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
"나눔과 봉사의 삶이 SMART한 삶"
16 · 17면


#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6월 1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49호 2013년 7월 17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장아함 반니원경

마음이 가는대로 따라가지 마라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마음이 극락도, 지옥도 만든다.

# 출가자 급감 시대, 출가정책도 바뀌었다

'사찰은 많은데 상주할 스님이 없다'는 불안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출가자가 나날이 감소 추세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출가자는 476명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줄고 있는 중이다. 실제 2011년 268명이었던 출가자수는 2012년에는 219명으로 뚝 떨어졌다.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출가자 수가 줄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기본교육기관이다. 매년 출가자 절반 가량이 16개 지방 승가대학에 진학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해인사, 통도사 등 대형사찰의 승가대학으로 몰려 소규모 승가대학은 학인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계종 교육원은 학년당 기본 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승가대학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교육기관 조정에 들어갈 것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출가자 감소로 인한 소규모 지방 승가대학의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가자 감소 원인은?**

출가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있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도 궤를 같이 한다. 한국의 경우 출산율이 1970년 4.53명, 1983년에는 2.1명에서 1999년에는 1.42명으로 낮아졌다. 실제 2010년 유엔인구기금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186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인구의 감소가 출가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출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스님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는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활성화 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일관)가 4월 23일 종립학교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진 연찬회에서 잘 나타난다. 이날 박영동 교법사는 "학생들은 불교에서 고행이나 한문경전을 떠올려 '어렵다' 고 생각한다"며 "부모들이 절에서 가족의 행복만 빌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라는 등 기복적인 이미지도 강하다"고 지적했다. '출가' 나 '불교' 의 이미지가 미래 출가재원인 학생들에게 '외롭고 어렵다' 는 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층 포교의 붕괴로 출가 예비군들이 줄었다는 점도 출가자 감소의 원인이다. 현재도 기초선원장 지안 스님 등 불교 학생회 활동을 통해 출가한 스님이 적지 않지만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으로 이어지는 포교 라인이 무너지면서 어릴 때부터 불심을 키우며 발심출가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게 됐다.

**수계교육 기수별 출가자 현황**

| 년도 | 수계 기수 | 인원 합계 | |
|---|---|---|---|
| | | 기수별 | 년도별 |
| 2001년 | 20기 | 245 | 476 |
| | 21기 | 231 | |
| 2002년 | 22기 | 218 | 406 |
| | 23기 | 188 | |
| 2003년 | 24기 | 226 | 373 |
| | 25기 | 147 | |
| 2004년 | 26기 | 136 | 297 |
| | 27기 | 161 | |
| 2005년 | 28기 | 154 | 326 |
| | 29기 | 172 | |
| 2006년 | 30기 | 145 | 334 |
| | 31기 | 189 | |
| 2007년 | 32기 | 198 | 363 |
| | 33기 | 165 | |
| 2008년 | 34기 | 149 | 287 |
| | 35기 | 138 | |
| 2009년 | 36기 | 116 | 266 |
| | 37기 | 150 | |
| 2010년 | 38기 | 147 | 281 |
| | 39기 | 134 | |
| 2011년 | 40기 | 117 | 268 |
| | 41기 | 151 | |
| 2012년 | 42기 | 104 | 219 |
| | 43기 | 115 | |

**2000년 476명 출가했지만**
**지난해 219명으로 감소**
**승가대 학인 채우기 급급**

**청소년 · 단기출가法 제정**
**20대 청년출가학교 개최**
**적극적 출가 정책 전환**
**장기적 전담기구도 필요**

**출가, 사이트 등 적극적 정책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조계종의 출가 정책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지난 조계종 중앙종회 194차 임시회에서 제정된 '청소년 출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 이다. 이는 중앙종회 차원의 출가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되고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회의를 거듭해 나온 결과물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년과 청년 출가가 종법상 인정됐으며, 단기출가도 출가의 유형의 포함된다. 소년 출가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종단 등록 사암으로 출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이 종립사학과 군법사 지원 시 우선 선발 등의 장학 혜택이 제공된다.

단기출가 운영 사찰은 교구본사별로 둘 수 있게 됐으며, 단기출가자가 1년 이상을 수행생활하고 정식 출가절차를 밟을 경우 종단에서 시행하는 2주간의 교육과 5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후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조계종 청년 출가학교는 출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다. 올해까지 2기에 걸친 출가학교를 통해 9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으며, 올해에만 남자 참가자 2명이 출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처음 개설한 출가 사이트도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에만 리뷰가 100만 건에 달했고 2011~12년 출가자 중 25%에 달하는 인원이 출가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받고 출가 발심을 굳혔다.

조계종 교육원 김병주 차장은 "이제는 출가 정책도 기다리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원의 출가정책도 이 같은 기조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출가 활성화위한 대안은**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종교 성직자의 감소는 추세인 상황에서 출가 활성화 정책은 '양보다 질' 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의 대사회 활동의 폭이 넓어진 만큼 능력있는 출가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출가자가 늘어나건 감소하건 간에 출가활성화 종책의 핵심은 좋은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출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계층 포교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군종병, 종립학교 등 기존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출가학교를 연 2회 확대 시행하고 출가사이트에 실시간 상담을 도입하는 등의 종책 확대를 모색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출가 정책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교육원에 증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무명초를 잘라내고…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전남 해남군 미황사에 '내려놓고 바라본다'란 주제로 열린 청년출가학교. 9일 동안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 43명의 참가자 중 한 명은 그동안 덥수룩했던 마음도 함께 '삭발' 했다. 마지막 날, 그는 "가슴이 먹먹하다"며 "참가자들 모두가 멋있고 존경스럽고 빛나는 사람들이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3면〉

글=배현진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교육원

## 종교편향 지적에 사과 잇달아

### 충북교육청 "채용 차별 없다"… 국방부, 기도문 교체

최근 불거진 신앙을 통한 국회의원 인사청탁과 군부대의 특정종교 식사 기도문에 대한 불교계의 비판에 해당 단체들의 해명과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7월 8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 회신한 공문을 통해 "오제세 민주당 의원의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와는 별도로 인사채용 과정에서 종교,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어떤 차별도 없다"고 해명했다.

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의 식사기도문이 특정종교 편향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국방부가 전체 군부대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국방부는 7월3일자로 조계종 종교편향위원회에 발송한 회신공문에서 "해당 대대의 식사기도문에 '신의 무한한 은총' 이라는 문구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해당 사단이 이를 즉각 교체했다"고 점검내용을 알려왔다.

종평위에 따르면 해당 사단은 "국민들의 성원과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전우들의 정성"으로 즉각 교체했다. 또 종평위의 요청에 따라 전 부대 식사기도문을 전수 조사해 추가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한데 이어, 6월28일 부대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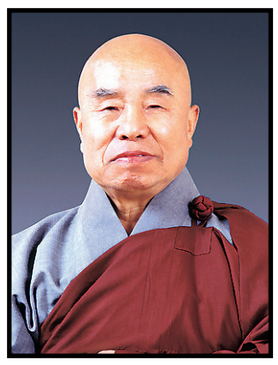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사 령**

배 현 진
명) 편집국 취재부 기자
2013년 7월 10일 부

## 前 조계종 원로의원 도견 스님 원적

### 12일 해인사 극락전서… 16일 영결 · 다비식



前 조계종 원로의원 도견 스님이 7월 12일 새벽 1시 30분 해인사 극락전에서 입적했다. 법랍70세 세납 89세.

스님의 장례는 종단 장례에 관한 령에 따라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5일간 치러졌으며, 영결식과 다비식은 7월 16일 해인사에서 봉행됐다.

1925년 강화도 화전면에서 태어난 도견 스님은 1944년 19세에 오대산 동관암에서 지월 스님을 만나 출가했으며, 1945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3년간 교학을 배웠다. 이후 범어사 3년 결사를 비롯해 해인사, 송광사 등 유수의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효봉 스님, 청담 스님, 동산 스님, 구산 스님, 경봉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평생 선원에서 정진한 도견 스님은 성철 스님이 '부처님 밥값 좀 해라' 는 권유를 받아 2년간 해인사 주지 소임을 살기도 했다. 또 1980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대흥사 조실, 1999년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원로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2005년 5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차주상보〉

신중일 기자

## 불교 학술 및 창작 콘텐츠 모집한다

### 동국대 · 진흥원, 4회 대원불교문화상 공모

대한불교진흥원과 동국대가 불교논문이나 저술, 콘텐츠 기획과 시나리오를 공모한다.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원장 이종대)과 대한불교진흥원(원장 김규칠)은 9월 30일까지 제4회 대원불교문화상을 공모한다.

대원불교문화상 공모는 불교학술과 불교창작 두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불교학술분야에서는 불교를 주제로 불교 발전을 위한 불교학 관련 논문 및 저술을 대상으로 동국대 재직 시간강사 또는 연구원이 응모할 수 있다.

불교창작분야는 불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소재이면 출품 가능하다. 동국대 연구원, 재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총 시상금액은 1900만원으로 1인 1분야 1개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donggukc3.ac.kr/riicc)에서 확인가능하다.

(02)2264-3696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949호 INDEX


시방세계 5
야단법석 시즌3 현장

해외 18
'중국 템플스테이' 1천여명 참여 주목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 종 류 | 컵 종 류 | 판매가 |
|---|---|---|
| A set | 마 음 + 대장부 | 9,000 |
| B set | 마 음 + 마 음 | 9,000 |
| C set | 대장부 + 대장부 | 9,000 |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 후보자들은 7월 12일 토론회를 열고 자신의 정견을 발표했다.

# “부채 감소 · 동방대학 활성화 진력”

## 7월 12일, 제 25대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자 토론회

7월 18일 치러지는 제 25대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각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자리가 지방과 서울에서 잇달아 마련됐다. 7월 12일 한국불교전승관서 열린 후보자간 종책발표 및 공개토론회는 9일 밀양과 10일 대전에 이은 세 번째 공개 토론회다.

총무부장 능해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단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첫 질문인 종단 부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도산 스님은 “청문회를 개최해 부채가 생긴 과정을 종도들이 제대로 알려야 한다. 이것이 부채해결의 열쇠다. 그런 후 경고성 백서를 발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수열 스님도 “인천 용궁사에 3대에 걸쳐 관리운영권을 주면 15억에 대한 부채를 책임질 용의도 있다고 제안을 받았다.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단을 위한 일이기에 누가 당선되든 고려한다면 부채 해결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수열 스님 “용궁사 활용해 종단 부채 해결”**

**월운 스님 “종립불교대학 지어 종단에 헌납”**

**백운 스님 “동방불교대 정식 허가 받겠다”**

**도산 스님 “위원회 구성해 공찰 합리적 운영”**

태고종립대학인 동발불교대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월운 스님은 “종립불교대학을 지어서 종단에 헌납하겠다고 각서도 썼고 학교부지도 준비해 놨다. 당선되면 바로 시행할 것이다. 300명이 동시에 기숙하며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운 스님도 “내가 당선되면 임기 내에 틀림없이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게 할 것이다. 학교 부지는 광역단체장들과 협의해 찾아볼 것이며, 지방 교양대학은 중앙서 행정적 지원을 통해 태고종 교육을 뒷받침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도산 스님은 “전국을 돌면서 기부를 받아 학교를 발전시키으며, 종립학교 규칙도 새로 제정할 것이고 인천 용궁사의 4만평 부지를 활용해 학교를 이전할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종단 공찰이 사유화돼 매각된 원각사처럼 종단 공찰을 삼보정재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수열스님은 “원각사는 사찰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찰이다. 사찰 매매과정과 현재 소송 진행 과정, 남아있는 잔액 등을 소상히 밝혀서 자진해서 종단에 보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월운스님도 “태고원은 이사진들의 이해에 좌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독 기능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이사진을 전원 교체하고 종단의 재산처분에 따른 스님 관련 정관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산스님은 “위원회를 구성해 공적기구 심의 의결을 통해 명확히 집행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일 · 배현진 기자

# 90여일 남은 조계종 선거 비방·폭로에 멍드는 佛心

그간 조계종 수뇌부의 비위를 폭로하겠다고 밝혀 온 포항 오어사 前 주지 장주 스님이 자신의 상습도박 사실과 함께한 스님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폭로는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9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흑색선거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장주 스님은 7월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포함한 상습도박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파계행위를 인정하고 대구지방검찰청에 자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주 스님이 공개한 자수서에 따르면 자신을 비롯한 16명의 스님은 전국 유명 호텔의 특실과 사찰 인근 모텔 등지에서 상습 도박을 했으며, 회당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도박자금으로 유용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조계종은 총무원 대변인인 주경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장주스님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 장주스님의 이번 주장과 같이 종단 주변에 떠도는 상습 및 해외도박 관련 유언비어는 이미 종단의 제적승 정한영(법명:성호)이 수차례 사법기관에 제소했으나 모두 ‘각하’ 종결됐고 현재는 무고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주 스님이 근거 없이 음해성 주장을 하는 것은 오어사 주지에 연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종단 내외에서는 회자되고 있다.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을 음해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관철하고자 하는 무모한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장주 스님, 상습도박자 폭로**

**본인 포함 중진 16명 거론**

**조계종, “허위 사실” 일축**

**선거 앞두고 폭로전 우려**

**이전엔 괴문서 음성 유포**

**최근 내부고발 형식 빌려**

**종법 통해 문제 제기해야**

이에 대해 장주 스님은 일간지들과의 인터뷰에서 “20년간 오어사 주지를 해 아무런 미련이 없다”며 “개인적으로 욕심이나 사리사욕이 있다면 나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자수할 수 있겠느냐”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하지만, 언론과 사정기관을 통한 일방적인 고발에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불교계 전반이다. 특히 선거를 9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불거져 나오는 잇달은 비방과 폭로는 자칫 선거가 과열양상으로 번질 수 있을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과거 과열 선거가 괴문서 유포나 금품 살포 등 음성적 방법에서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일반 언론 폭로와 사법기관 제소 등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고발은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지만,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고발은 흑색선전에 머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정안)가 7월 11일 발표한 담화문도 이 같은 성격이 짙다. 조계종 호법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근거 없는 비방과 폭로 행위로 인해 종단의 위상과 화합승가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며 “종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나 시정 과정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피와 땀으로 일군 종단의 위계와 질서를 유린하는 해종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종법이 정한 시정절차를 무시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극적이고 현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폭로와 비방 행위는 일벌백계의 자세로 신속히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만들자는 불교계 각계의 목소리도 높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는 오는 10월 10일 열리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깨끗하게 치루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결의문에서 “종법이 정한 정상적 절차와 방식을 외면한 일체의 행위에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며 “금권, 매관 매직, 비방 등 선거 3대 악행을 단호히 배격하고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선거보다 더 좋은 방안은 불교 공동체 정신이 담긴 대중공의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며 “선거가 투명하게 치러져야 하는 데 벌써부터 폭로 · 비방전으로 흐르면 안된다. 종단에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 ‘불교광장’ 창립… 거대 종책모임 탄생

## 11일, 성직 · 법보 · 지홍 · 성문 스님 공동대표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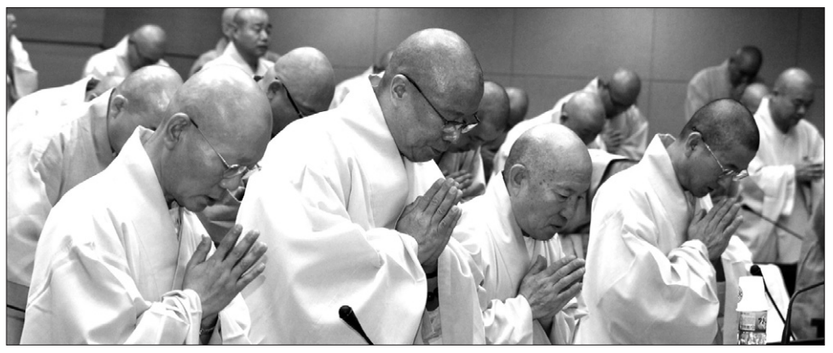
지난해 백양사 승려 도박 사태로 순차적으로 해체를 선언했던 종책 모임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1년여 만에 다시 창립됐다. 새로 창립된 정책 모임에는 중앙종회의원과 19개 교구본사 주지, 수말사 주지 스님 등이 참여해 그 외양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향후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행보가 주목된다.

화엄광장과 前 무량회, 무소속 중앙종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종책모임 불교광장은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회칙 정관을 제정했으며, 고문과 대표, 운영위원회 등의 조직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고문에는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이 추대됐으며, 공동대표는 중앙종회의원 성직 · 법보 · 지홍 스님과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이 선출됐다.

부대표에는 성월 · 원경 · 법안 · 정문 · 정도 스님이, 운영위원에는 정묵 · 진화 · 정념 · 삼해 · 장명 · 함결 스님이 이름을 올렸으며, 감사에는 중앙종회의원 태연 · 초격 스님이 사무처장에는 덕문 스님이 선임됐다.

또한 창립총회에 참석한 용주사, 신흥사, 월정사, 법주사 등 19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지도위원단에 합류하게 돼 유례없는 최대 종책모임의 탄생을 알렸다.


화엄광장과 前 무량회, 무소속 중앙종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종책모임 불교광장은 7월 11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前 화엄 · 무량회 · 무소속 의원**

**19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 참여**

**10월 선거 최대 세력 ‘급부상’**

조직 구성 이후에는 새로 선출된 공동 대표 스님들의 인사말이 진행되기도 했다. 성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대표 소임을 맡겨줘 어깨가 무겁다”며 “그간 계파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지만, 이번 불교광장 창립이 한국불교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광장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내적으로 승가의 화합과 안정, 외적으로 자비정신의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승가 화합과 아름다운 전통을 대중에게 보이고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 ‘시대정신에 부합한 통합과 결집’ 으로 종단과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 후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불교적 관점’ 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중일 기자

# “중앙기관 스님부터 내년 과세 도입”

## 주경 스님, 불교광장 세미나서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이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소임자부터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해 눈길을 끈다.

주경 스님은 7월 9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불교적 관점’ 을 주제로 열린 불교광장 창립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스님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종단 입장은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며 “소득에 따른 과세를 반대할 이유는 없으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종단 소임자 스님들의 경우 내년부터라도 세금을 내도록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 과세를 위해서는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주경 스님은 “과세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를 종단 방침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종무직과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일부 스님을 제외하면 정기 소득이 없는 스님이 많고, 안거기간의 특수성도 고려돼야 한다. 세금이라는 개념 자체에 익숙치 않은 스님들을 위해 정부 측의 설명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이성 법륜사는 태고종 창종주인 대륜스님께서 1946년 금강산 유점사 서울 포교당으로 창건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스님께서는 포교의 일번지를 주창하며 당대의 훌륭한 법사와 포교사를 초빙하여 1950년대 불교계 최초로 일요법회를 개설하였습니다.

덕암스님 당시까지 이어 오던 일요법회가 지금은 맥이 끊어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소납이 2012년 주지로 부임하며 첫 번째 발원한 것이 일요법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이제 법륜사 일요법회가 다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법륜사로 오십시오.

법륜사 ‘일요법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매주 주제별로 법석을 여는 일요법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법회안내
* 첫째주 : 명상기도 법회
* 둘째주 : 사경기도 법회
* 세째주 : 대다라니기도 법회
* 네째주 : 천수경 강의

◆대 상 : 초, 중, 고, 대, 일반인
◆시작일 : 9월 첫째주 일요일
◆시 간 :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법륜사 3층 대불보전
◆문 의 : 불이성 법륜사 종무소 (02-732-2710,3920)

불이성 법륜사 주지 도학 혜일

# 대불련 50돌 코 앞인데… 동문은 '이전투구'

## 대불련 50주년 사업 파행 논란

**총동문회, 사업 불참 통보**
**50주년 행사도 따로 기획**
**전국 동문회만 사업 참여**

**2월 동문회장 선거 이후**
**두 회로 갈려 대립각 세워**
**동문 분열이 사업 파행으로**
**애꿎은 현역 학생들만 상처**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의 기념사업이 동문 간의 갈등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원유자, 이하 총동문회)는 "7월 5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현행 대불련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8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밝혔다. 또한 50주년 기념사업회 측에 "제작 중인 브로셔 등에서 총동문회 소속 모든 회원 명단을 제외하고, 동문 회원들에게는 초청장 발송여부 문의 전화도 일체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총동문회는 8월 17~18일까지 예정된 50주년 기념사업에 불참하는 대신 9월 7~8일 서울에서 제11회 전국동문대회를 열 것도 결의해 사실상 사업이 두 쪽으로 나뉜 것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이 총동문회가 자신의 뿌리인 대불련 50주년 사업에 불참을 선언한 것은 동문 간 내부 갈등의 요인이 크다. 현재 대불련 동문은 총동문회와 전국동문회로 분열돼 갈등 중이다. 올해 2월 총동문회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 간 자격시비가 불거졌고, 결국 일부 동문들은 4월 27일 전국동문회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었다.

전국동문회가 출범하면서 동문 간의 갈등은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을 놓고 이어졌다. 기념사업회 측이 6월 17일 총동문회와 전국동문회 양측 회장에 공동추진위원장을 제안했지만, 이를 수락한 것은 전국동문회만이었다. 이에 기념사업회 측은 6월 28일 홍종표 전국동문회장을 공동추진위원장에 위촉한다는 공고를 냈다. 총동문회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7월 4일 대불련 현 집행부, 총동문회, 전국동문회, 기념사업회의 '4자 회의'를 제안해 회의가 열렸지만 의견이 갈려 별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원유자 총동문회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5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위원장은 본래 총동창회장과 현역 회장으로 규정돼 있지만, 4월 전국동문회가 만들어지고 3명의 추진위원장이 될 상황이 왔다. 이는 동문의 분열로 비춰질 수 있어 반대했다"며 "조율이 안돼 결국 재학생들이 단독 주관하고 동문들은 후원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결국 사업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홍종표 전국동문회장은 "50주년 사업을 위해 전국동문회 측도 2천만 원을 약정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해왔다"며 "엄연한 동문을 배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3자 추진위원장 선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양측 동문이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동안 애꿎은 대불련 현역 집행부와 실무진만 마음고생 중이다. 실제 박지연 대불련 중앙회장과 2000년대 중앙회장 동문들은 선배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지만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홍지연 대불련 지도위원장은 "총동문회가 50주년 기념사업에 불참하고 9월에 단독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동문회 분열이 대학생 분열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난감하지만 현재 50주년 기념사업은 전국동문회와 대불련 2인 공동체제로 준비하고 있다. 어찌 됐던 문제가 잘 수습이 돼 8월 17일 이전에 총동문회와의 갈등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지연 회장도 "동문회 내부 갈등은 동문회 안에서 정리돼야 한다. 현역 대불련 재학생들이 나서야 할 문제가 아니다"며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여름캠프를 잘 준비해 재학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중일 · 이나은 기자


불교방송 6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종하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7월 10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취임법회를 가졌다.

# "최첨단 구세대비 매체 만들겠다"

## 불교방송 6대 이사장 종하 스님 취임

"이제 그만 모든 잡음, 분규를 멈출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교방송 6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종하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7월 10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취임법회를 갖고 임직원들에게 성찰과 화합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암도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혜승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조계종 종회의원 장적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회의원 정갑윤 의원(정각회 회장),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 엄상호 이사, 이수덕 이사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종하 스님은 지난 불교방송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지난 일련의 사태들은 비판받아 마땅한 방송매체로 (불교방송이) 전락하고 말았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부터 변화해야 합니다"라며 직원들에게 제자리로 돌아가 각자의 임무에 충실한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직원 모두가 불제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불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간의 오염되었던 생각과 구업을 참회해서 불교방송을 이 시대 최첨단 구세대비자의 매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화합하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불교방송이 세계적인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스님은 "우리나라에 사찰이 2만여 개가 있지만 방송국 포교를 따라갈 수는 없다. 그만큼 방송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불교방송이 종하 스님의 취임으로 세계적 방송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규칠 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종하 스님께서 이사장 취임으로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되었다. 불교방송의 역할을 한 차원 높여달라"며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불교방송 신임 이사장 종하 스님은 1959년 해인사에서 고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 조계종 총무부장과 부원장, 중앙종회 의장 등을 지냈고, 현재 서울 남현동 관음사 주지와 조계종 원로의원을 맡고 있다.

정혜숙 기자

# 청년들, 내려놓고 바라보다

## 조계종 청년출가학교 6월 30일부터 미황사서

"켜켜이 쌓아둔 가슴속 돌덩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청년출가학교(이하 청출)가 열린지 일주일째 되는 날, 한 참가자가 이렇게 말했다. 스무 해 넘게 마음 속에 높이 쌓아두기만 했던 돌탑이 우르르 부서져 내렸다.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전남 해남군 미황사에서 '내려놓고 바라본다'란 주제로 열린 청년출가학교에 지도법사로 참여한 원영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은 참가자들 대다수가 이처럼 스스로의 무게 때문에 답답해하는 이들이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출가가 삶의 새로운 대안임을 제시하고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개설한 청년출가학교가 올해는 한층 더 정비된 모습으로 젊은이들과 만났다. 취업난, 학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을 위해 고민상담가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청출은 삶의 방향을 정비하고 싶은 20대 청년을 선발해 정목 스님, 도법 스님, 강신주 박사 등 스타급 강사진들의 강의와 함께 그들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새벽예불은 물론 울력, 참선, 숲길걷기와 수행일기쓰기, 소참법문 경청 등도 함께였다.

청년출가학교장 법인 스님은 "사회 속의 불교라는 기치아래 청년들이 스스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불교의 자산, 교리, 수행 문화 등을 적극 활용하려고 했다"며 커리큘럼도 작년에 비해 인문학 강의가 보강됐고, 스님과 대화하는 상담시간 또한 늘어났음을 밝혔다. 스님은 "인문적 사유가 결코 불교적 이해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강의를 통해 보편적으로 옳은 길과 불교의 관계를 보여주려 했다"고 전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참가자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강의 중 하나도 철학자 강신주 교수가 진행한 '철학, 삶을 만나다'였다. 강교수는 강의에서 젊은층에게 경험의 전수를 강조하며 그를 통해 세계관을 넓혀볼 것을 주문했다.

대학생 황수민 씨(21.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또한 "강신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진지(眞知), '내가 진실로 하는 것은 온몸으로 체험해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 가장 와닿았다"며 "혼란스러움을 정리하고 덕분에 좋아하는 일을 시도할 용기가 생겼다"고 했다. 청출에 참가한 후로 마음의 평화가 우선 충족됐음은 물론이다.


조계종 청년출가학교가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해남 미황사에서 열렸다.

총 84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43명은 지난해에 비해 더 진지해졌다는 반응이다. 청출 지원동기가 담긴 자기소개서가 선발기준이었던 만큼 행자선발이 어려웠다는 후문도 들렸다. 개중에는 실제로 출가를 고민하는 지원자들도 있어 1명은 이미 출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좌일(29)씨는 "9년 동안 고민하던 걸 5일 만에 결정할 수 있었다"며 "스님들을 보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에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다른 참가자들 또한 내면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준 스님들에게 고마워했다.

9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회향식을 가진 참가자들은 "여기서 배워간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희석될까봐 우려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법인 스님은 회향사에서 세상 속에서 출가할 2기 행자들에게 "회향이란 끝이 아니라 결실을 맺고 다시 씨를 뿌리고 가꾸는 과정의 반복"이라며 "시작 속에 결과가 담겨있음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년출가학교 행자들 덕분에 스스로 불교수행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 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해남 미황사= 배현진 기자

# 사랑의 교회 "주민소송 대상 될 수 없다"

## 서초구민들 패소…황일근 의원 등 주민대표 항소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과 건축허가 취소'가 주민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7월 9일 황일근 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을 인용, "주민소송제도의 입법 목적과 취지는 지방 재정의 적정성 확보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는 도로행정 및 건축행정 상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 뿐, 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해 재산적 가치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주민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일근 서초구 의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우리나라 법원의 심장부인 대법원 앞 공공도로 지하를 불법적으로 점용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행위를 눈 가리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혜숙 기자


碧巖錄 전 5권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드디어 5년 만에 재간되다!

원문에 토를 달고 번역하고 주와 해설을 붙인
벽암록 완역판

공안집의 최고봉,
선종문화의 총결산 《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다.

■ 원오극근 저 · 석지현 역주 해설
신국판 | 145,000원(세트)



석지현 역주 해설본 《벽암록》의 특징
① 국내 최초 《벽암록》 완역 해설본!
② 수시 · 본칙 · 착어 · 평창 · 송 · 송착어 · 송평창을 모두 번역하고 해설한 책!
③ 벽암록 전문(全文)의 원문 수록과 현토 작업 완료!
④ 벽암록 네 개의 이본(異本) 대조!
⑤ 벽암록 100칙 공안 하나하나마다 활구(活句, 참구할 부분)와 사구(死句, 이해할 부분)를 일일이 구분하여 제시한 책!
⑥ 장장 10년에 걸친 역주 작업, 출판기간 3년!
⑦ 벽암록 속어 낱말사전 완성!

8월 초 출간 예정!
무비 스님의
《서장—이것이 간화선이다》
《벽암록》과 함께 간화선 교과서의 쌍벽이라 할 수 있는 《서장》, 무비 스님의 강설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월 초 출간 예정! 예약판매 중.
사전 예약 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민족사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더운 여름,
마음의 휴식을 주는 책을 선물하세요.



탄허 허공을 삼키다
시대의 선각자 탄허 큰스님의 생애와 오대산 불교 이야기
■ 자현 스님 지음 | 264쪽 | 13,500원 | 무선(신국판)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탄허 큰스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을 품은 오대산 불교 이야기 《탄허 허공을 삼키다》는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 업적을 되살려 미래의 꿈과 좌표로서 한국불교 발전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이다. 스님의 생애와 시대정신과 함께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도 소개하고 있어 탄허 스님이라는 큰 그릇을 품을 수 있었던 오대산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스님의 친절한 해설
■ 보경 스님 지음 | 376쪽 | 15,000원 | 무선(신국판)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이 담긴 한 구절 한 구절이 삶의 지혜와 자비를 열어준다. 소박하고 쉬운 일상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종교를 뛰어넘어 모두의 가슴에 깊이 와 닿는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최초의 불교경전 《숫타니파타》. 《숫타니파타》 원전을 통해서 근본적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보경 스님의 친절하고 자상한 해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힘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
무아 · 무심 · 하심의 행복론
■ 정승석 지음 | 232쪽 | 10,800원 | 무선(4×6판)
행복의 법칙! 무아 · 무심 · 하심, 나를 버리면 정말 행복해질까?
우리는 무지 때문에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여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다.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바라는 강도가 셀수록 행복감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행복의 비결도 간단하다. 바라는 것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무아 · 무심 · 하심의 행복론》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여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나를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다양한 실례를 들어 일깨워 주고 있다.

Tel. 02)732-2403~4 민족사

## 일 주 문



**성철 스님 수행처 순례**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7월 20일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 스님 수행처 순례행사를 개최한다.



**불교평론 7월 열린논단**

조계종 교수아사리 명법 스님은 7월 18일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7월 열린논단 논객으로 나선다.



**평화재단 리더십아카데미 회원 모집**

윤여준 평화교육원은 8월 29일까지 제 9기 리더십아카데미 회원을 모집한다. 수업은 9월 5일~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02)6925-0522



**위안부 피해 할머니 동행 방미**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7월 13~23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 2명과 함께 뉴욕과 워싱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위안부 피해 참상을 알린다.

## 조계종 총무부장 원담 스님 임명

### 11일 임명… 상임감찰 지오 · 도봉 스님



원담 스님



지오 스님



도봉 스님

지현 스님의 사퇴로 공석이 된 조계종 총무부장에 원담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부장 원담 스님, 호법부 상임감찰 지오 · 도봉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원담 스님은 이번 33대 집행부 로드맵을 작성하고 기초를 다져줬다. 임명장 받기 전까지도 특보단장 소임을 맡아 와 업무 공백 없는 최적임자"라며 "33대 집행부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무부장 원담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여러 스님들과 종무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잘 마무리해 종단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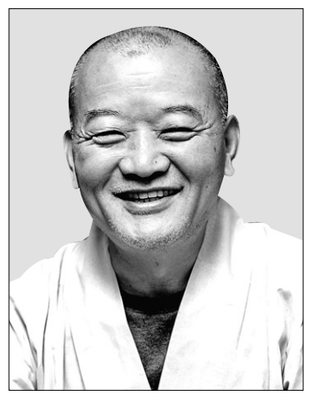
신임 총무부장 원담 스님은 무상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옥천암 주지, 총무원 기획실장, 총무원 종책특보단장을 역임했다. 현재 수국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호법부 상임감찰 지오 스님은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봉암사 태고선원과 고불총림선원, 남국선원 등 안거수행을 했다. 원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도봉 스님은 봉암사 태고선원 등 안거수행을 했으며, 어산작법학교 졸업했다. 현재 보리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신중일 기자**

# "군포교 활성화 윤활유 될 터"

### 제3대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



### 7월 11일 3대 군종특별교구장 임명
### 7월 25일 이취임식 4년 임기 시작
### 사병으로 군법당 2곳 건립

조계종 신임 군종특별교구장에 정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대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식에서 자승 스님은 "정우 스님은 군종병으로 입대해 직접 군법당 2곳을 건립하는 등 군법사도 하지 못한 걸 해낸 원력과 애정이 있으신 분"이라며 "군종교구장의 최적임자로 생각했다. 군종특별교구의 특성을 살려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임기를 마치는 2대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에게 "지난 4년 동안 논산 호국연무사 대작불사를 맡아 고생이 많았다"며 "마지막까지 정우 스님을 후임으로 추천하는 등 군종교구 발전에 노력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생각지도 못한 소임을 맡게 됐지만 미력한 힘이나마 군포교 발전에 쏟을 것"이라며 "군법사 활동의 자양분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1968년 통도사에서 홍법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71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9~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총무부장, 불교방송 이사 등을 맡은 바 있다.

스님은 도심포교를 발원해 현재 구룡사 자리인 강남 양재동에서 천막법당을 치고 기도 정진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강남과 일산 등 도심지에 포교당을 건립하는 등 뛰어난 포교 원력을 발휘했다. 군포교에는 사병으로 입대해 직접 군법당 2곳을 건립하는 등 남다른 열정을 발휘했다.

정우 스님은 임명식 이후 "군종교구는 400곳이 넘는 사찰과 수많은 군법사들의 활동의 유기적 매개체"라며 "교구장으로서 법사 스님들이 일선에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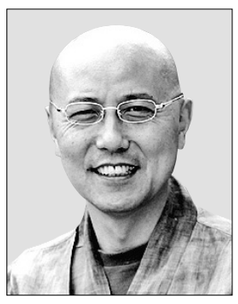
스님은 또 "군법사 스님들은 조계종 소속의 구성원으로 종단과 공유하며 맡은 지역에서 법음을 전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것은 언제 어디든지 잊으면 안되는 원칙으로 현장에서 이 원칙이 구현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종특별교구는 7월 25일 오후 6시 용산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군종특별교구장 이 · 취임 법회를 봉행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스님 손만 거치면 커플 뚝딱

### 국무총리 표창 수상한 혜철 스님



'중매쟁이' 혜철 스님(충북 옥천군 대성사 주지)이 8년 동안 이어준 인연은 1260쌍.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선남선녀가 스님 덕에 손을 맞잡게 되니 이만하면 혜철 스님 손바닥에도 접착제가 묻어있지 않나 싶을 정도다. 괄목할 만한 숫자 덕분에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국민추천 경진대회에서 '인연맺어주기 사업'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저출산, 농촌인력 충원 등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스님이 2005년 개설한 '선남선녀 따뜻한 만남'이라는 온라인 카페는 6개월 만에 회원 천명을 돌파했다. 방송, 신문 등 언론에서의 취재요청도 끊이지 않았다. 스님은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 법회를 만남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이렇게 시작한 '인연맺어주기 사업'이 이제는 옥천의 놀이 프로그램이 됐다. "살아가는데 혼자 사는 것 보다는 둘이 함께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면 행복해지기 마련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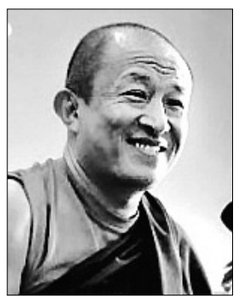
스님은 인연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팁을 전수해 달라 하자 "만남에는 희생과 봉사, 베풂, 나눔이 함께 들어있다"며 "나누는 마음이 없다면 만남 또한 힘든 것"이라고 했다.

"인연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고,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은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라는 스님. 얼마 전에는 충청도와 인연맺어주기 사업을 제휴하기도 했다. '커플 주선자'로 나선 혜철 스님을 조만간 전국곳곳에서 볼지도 모르겠다.

**배현진 기자**

## '종사르 켄체 린포체' 방한

### 영화 더컵 감독, 8월 2~4일 봉은사 등서 법문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자 티베트 불교의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명인 종사르 켄체 린포체가 8월 2일~4 일한국을 방문 법문을 펼친다.

스님은 이번 방문 동안 △8월 2일 오후 7시 유나방송 '마음의 자유' △8월 3일 오전 10시 봉은사 보우당 '일상의 명상' △8월 4일 오전 10시 상도선원 '현대인을 위한 불교의 지혜' 등의 법문으로 대중들을 만난다.

종사르 켄체 린포체는 1961년 부탄에서 태어났고 일곱 살 때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잠양 켄체 왕포의 세 번째 환생자로 판명됐다. 종사르 켄체 린포체는 불교 수행과 함께 영화 공부를 하던 중 영화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를 만나 그의 영화 '리틀 부다'의 고문을 맡았다. 1999년에 찍은 첫 번째 영화 '더 컵(The Cup)'은 동자승들의 이야기로 '최고의 티베트 불교 영화'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두 번째 영화 '나그네와 마술사(Travelers and Magicians, 2003년)'도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세 번째 영화 'Vara, a Blessing'도 곧 개봉 예정이다.

스님은 티베트와 인도에 있는 종사르 사원 네 곳의 스님 2,000명을 돌보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수행센터 '싯다르타의 의도'를 설립 서양과 동양의 수많은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교육과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연꽃 활동'을 만들어 여러 나라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에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켄체 재단'도 설립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봉은사 판전 후불탱화 점안식



7월 6일 점안식을 가진 봉은사 판전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봉은사(주지 진화)는 7월 6일 판전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안식에는 주지 진화 스님을 비롯해 신도회 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진화 스님은 점안식에서 "1856년 건립된 판전은 봉은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잘 보존해야하는 문화재"라며 "판전 신중탱화 수리, 보존을 시작으로 판전 건축물에 이어 이번 비로자나불 후불 탱화의 수리, 보존을 끝으로 모든 불사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동국대 경주캠, 필리핀 해외봉사활동




동국대 경주캠퍼스 동국참사람봉사단(단장 이태경)은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7박 8일 동안 필리핀 알바이(Albay)주 리가오(Ligao)시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필리핀 해외봉사활동은 35명의 자원봉사 학생들이 필리핀 리가오시에서 사랑의 집짓기, 학교 담장 페인트칠하기, 마을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한국음식 나누기, 문화공연 등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문화교류활동 등도 함께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예철우(경영학 4년) 학생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현지 주민들과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무척 보람 있었다"며 "필리핀 어린이들과 함께 했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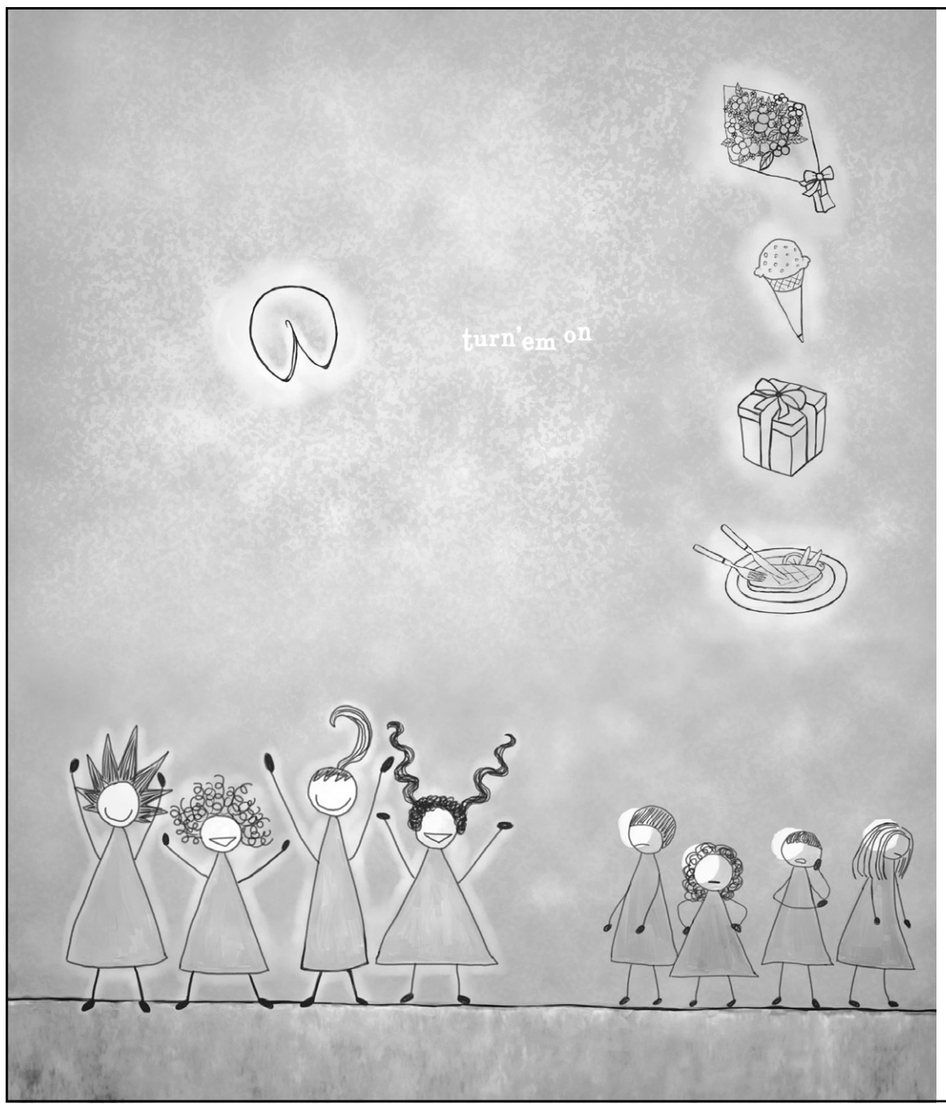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 양양군노인보지관 특별보양식 나눔



조계종 낙산사 및 무산복지재단과 양양군노인복지관은 7월 10일 현북면 실내 게이트볼 장에서 '시원한 여름나기' 특별 보양식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무산복지재단 이사장 정념 스님, 최승렬 속초경찰서장, 정상철 양양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350여 어르신들은 여름 특별 보양식 삼계탕 식사를 대접과 함께 선물도 제공 받았다.

**정혜숙 기자**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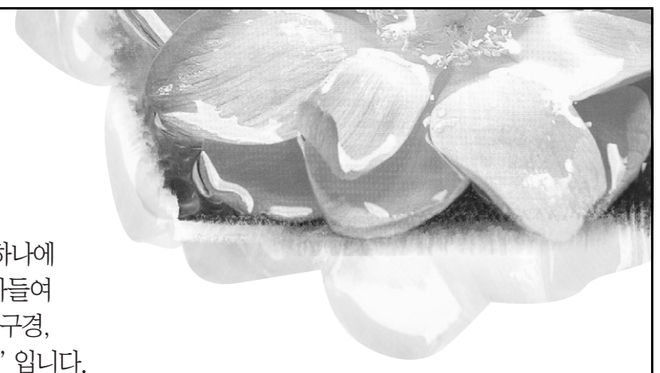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연극을 도입한 첫 시도인 '야단법석 시즌3'에 참석한 관객들은 높은 호응을 보였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는 7월 8일 '야단법석 시즌3'을 개막했다. 우바이를 테마로 열린 첫 번째 마당은 연극과 대중공사가 결합한 새로운 시도라는 평을 얻었다.

### 결사추진본부 · 불시넷
### 7월 8일 '야단법석 시즌3' 개막
### '희노애락 파도서 붓다의 바다로'
### 첫 테마 '우바이' 연극

# 부처님은 고부갈등 어떻게 해결했을까

우리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의연하게 살아가기를 발원하지만 현실에서 부딪히는 경계로 늘 번뇌와 갈등을 일으킨다. 가족, 인간관계, 사회에서 뿐 아니라 심지어 신행활동을 하면서 도반들과도 갈등을 만든다.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무대로 끌어올려 불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불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힐링퍼포먼스 연극'이 마련됐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이하 결사추진본부)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퇴휴)가 주관한 '야단법석 시즌3'이 바로 그것.

결사추진본부는 7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붓다로 살자-사부대중, 희노애락의 파도에서 붓다의 바다로'라는 대주제 아래 우바이를 테마로 연극을 펼쳐나갔다.

첫 공연인 '진정한 연민의 바다, 우바이!'는 한국불교의 근간인 우바이들의 고민과 신행 사례들을 연극으로 제시하며 문제와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마당이었다.

### 곳곳에 부적을 놓는 시어머니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일어난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위기에 놓인 부부가 있다. 외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온 시어머니는 아들의 장가 후, 아들 내외와 함께 불편한 동거를 10년째 지속해오고 있다. 아들을 위해 손수 속옷을 빨아 개놓는가 하면, 아이가 없는 며느리를 위해 부적을 곳곳에 넣어둔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간섭과 고지식한 행동이 거슬리기만 할 뿐이고, 서로 아들의 빨래를 잡아당기며 옥신각신하다 시어머니가 넘어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결국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스님의 권유에 따라 공개적인 토론의 장 '야단법석'의 무대에 섰고, 무대에 마련된 가림막 뒤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시어머니는 제 남편 속옷을 직접 빨래해서 옷장에 넣어두세요. 제 장롱을 뒤적이는 것은 부지기수구요. 또 집안 곳곳에 부적을 놔두세요. 도대체 개인 공간이라고 할 곳은 어디에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며느리)

"왜 부적을 미신이라고만 여기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절에서 108배, 3000배를하고 정성들여 기도를 올리고 받은 부적인데 그게 정성이 아니면 무엇이죠?" (시어머니)

### 고부갈등 '힐링퍼포먼스 연극' 형식
### 생활불교 주제… 객석 '적극적' 참여
### "사찰에 고민 상담실 있었으면"

가림막 앞에는 두 사람을 대변하면서 관객들의 발언을 유도할 두 남성 패널이 앉았고 사회자가 패널과 관객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무대를 전개해 나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술회 후, 사회자가 관객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며 첫 질문을 던졌다.

"○○동에서 온 불자인데요, 저는 며느리가 좀 한 발짝 물러나 양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생략)." 한 여성이 번쩍 손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객석에도 관객 역할을 맡은 배우를 배치해 관객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시도다. 그 덕분인지 관객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신호승 사회자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관객들은 연극을 보며 자신의 문제인 듯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연극을 관람하고 있는 도법 스님

"시어머니랑 얼마나 오래 산다고, 며느리가 좀 참으면 안 되나요?" "저 며느리는 10년을 저렇게 살았지만, 저는 30년을 시어머니와 살았습니다. 남편을 아예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이제 저는 자유부인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연극과 관객들의 발언에 공감을 느낀 참석자들이 너도나도 손을 들며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 현실 문제를 불교가 어떻게 끌어안아야 하나

이번 '야단법석 시즌3'은 고부갈등과 같은 현실의 문제를 불교가 어떻게 끌어안고 해결해나가야 하나 하는 의문에서 시작됐다. 그런 만큼, 다양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관객들은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신행활동과 개인의 문제가 연결돼지 않는 것이 불교와 사찰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봉은사 신도라 밝힌 한 관객은 "많은 우바이들이 신행생활을 하지만 이런 가정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은 마련돼 있지 않을 뿐 더러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종단에서 정책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0대 남성 관객은 "사찰에 가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스님이나 전문 상담사에게 삶의 고민을 털어놓고 불교적 해법을 전해 들었다면 고부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야단법석 3시즌이 지난 1 · 2시즌에 비해 대중적인 주제로써 흥미를 이끌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조금은 더 불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진행했어야 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은 "야단법석에서 '우바이'를 테마로 연극을 한 것은 반갑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부갈등을 주제로 연극을 진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며 "교단과 신행 현장에서 겪는 우바이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실제 신행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사례로 제시하고 풀어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외로움, 슬픔, 증오, 탐욕 등 온갖 갈등과 번뇌가 삶의 현장에 등장한다. 그런데 불교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는지, 붓다로 산다면 이런 직면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임하고 다뤄야 하는 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며 "결국 이러한 삶의 고민을 회피해야할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고 잘 소화시켜내는 것이 붓다로 사는 것이다. 객석과 무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연극을 통해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법 스님은 "첫 시도인 만큼 끊임없이 가꾸고 다듬어 탄탄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 마당의 주인은 불자 여러분이므로 주체로서 함께 발심하고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극의 전체 연출은 남우성 양지창작문화연구원에서 맡았으며, 신호승, 김성미, 황세원, 김상일, 손경원, 최영환 등의 배우가 출연했다.

### 우바새 · 비구니 · 비구 · 미래세대도 준비

남우성 대표는 "이번 야단법석은 지난 번의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로 담론형식의 자리를 탈피하기위해 조금은 쉽고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좀 더 세련되고 치밀하게 공연을 준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결사추진본부는 "대승불교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마당인 '야단법석 시즌3'은 불교 공동체를 이루는 사부대중과 미래세대를 테마로 각 주제와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열린 광장으로 기획하고 연극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단법석 시즌 3의 두 번째테마는 남성불자인 우바새를, 세 번째는 비구니, 네 번째는 비구 스님, 마지막은 미래세대를 테마로 진행한다. (02)2011-1925

글=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조계사, 우정청과 '우리 문화' 알린다

## 11일 서울 우정청과 협약식… 문화상품 개발 등 추진



조계사와 서울 우정청은 7월 11일 우리문화 알리기 협약식을 맺고 상품 개발 등 사업을 펼친다.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과 이승재 서울우정청장.

서울 종로 조계사가 서울 우정청과 함께 우리 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조계사(주지 도문)와 서울 우정청(청장 이승재)는 7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우리 문화 알리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협약이 맺어짐에 따라 조계사는 보유하고 있는 불교 문화재를 최대한 공개해 방문객들이 관람·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우정청은 문화상품 개발 기법 및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우정총국 앞뜰에 전통놀이 체험마당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승재 서울우정청장은 "서로 힘을 모아 국내외에 우리 문화의 정수를 알리고, 나아가 관광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의 특별함을 꼽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사동, 조계사와 우정총국, 경복궁 그리고 북촌마을을 아우르는 관광벨트가 세계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 후 서울 우정청에서는 각자의 발원을 적는 '엽서 쓰기' 이벤트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접수된 엽서들은 1년 후 같은 날짜(2014년 7월 11일)에 희망하는 주소로 발송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 연합캠프

## 7월 22~24일 아산 도고 일대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7월 22~24일 아산 BS투어앤리조트에서 '제16회 청소년 전국연합캠프'를 실시한다.

파라미타 회원과 지도자 1300여 명이 참가해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아산시 소재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답사활동을 비롯해 사찰문화탐방, 전통문화체험활동, 공동체놀이활동, 명사 초청 특강, 백일장, 음악경연대회, 도전1080배, 명상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백일장과 음악경연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여성가족부장관상 등 상과 상품이 마련돼 파라미타 회원들이 실력을 발휘하는 축제의 장으로 열린다.

파라미타는 "이번 캠프는 올바른 청소년문화의 방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는 친교의 장으로 마련됐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23-6165 이나은 기자

# 포교원 제7회 전문포교사 선발

## 19일까지 신행·문화예술·사회복지 3개 분야 접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7월 19일까지 제7회 전문포교사 신청을 접수한다.

모집분야는 신행지도전문포교사(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직장직능, 군경교도소), 문화예술전문포교사, 사회복지전문포교사 등 3개다.

응시자격은 △일반포교사 3년 이상 활동 △포교사 의무 이행 △조계종 디지털대학 포교사대학원과정 졸업 등이다. 응시 희망자는 19일까지 조계종 포교원에 응시원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8월 말 합격이 발표되며 제18회 일반포교사 품수식과 함께 전문포교사 품수식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곳

## 원심회, 청각장애·수화 인지도 높이기 위해 진력


원심회는 매주 월·목요일 조계사 불교대학 지하법당에서 수화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환 원심회 부회장(사진 맨 오른쪽)이 중급반 학생들에게 수화를 가르치고 있다.

책과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이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다.

책은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인터넷 또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고 듣는 선지식 법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막처리가 돼있지 않을 뿐 더러 수화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싶어도 수화 없이는 참여가 힘들며, 도반과 신행이야기를 나누려 해도 반드시 수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이 불교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인 수화로 불교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조계사 원심회(회장 김장경)는 청각장애인들이 좀 더 수월하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들에게 수화강좌를 상시 개설하고 있다. 수화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을 열고 있는 것.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수화 초급과정은 연 2회 3개월 과정으로 개강해 기초단어와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강의하며, 지난 6월 65기가 수료를 했다. 현재 수화중급 41기를 7월 1일 개강해 매주 월·목요일 7시30분부터 조계사 불교대학 지하법당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포교사가 된 김경환 원심회 부회장이 수화중급반을 가르치고 있으며, 병원·은행·공공기관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회화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지난 해 초급반 수료 후 중급반 과정을 듣는 문현경 씨는 "막연히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수화강의를 듣게 됐는데 단순히 수화익힘으로 생각한 수화배우기가 아니라 수화로 의사소통하는 농아인의 언어와 농아인의 문화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 돼 뜻깊다"며 "특히 그동안 배운 수화로 매주 일요일 농아인과 함께 수화법회에 참가하면서 그들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수화강의 진행…천여명 수료**

**불교의식 수화동영상 제작중**

**11월 전국사찰에 무료 배포**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돼야"**

원심회는 1988년 설립 초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수화강좌를 진행해 1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 가운데 일부는 사찰 또는 원심회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며 청각장애와 수화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외활동을 하고 있다. 각종 행사에서 통역 봉사를 하는 한편 각 단체나 학교 복지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외부 수화교육에도 강사를 파견하고 있는 것. 그러나 보통 전문적으로 수화를 표현해 내는 데만 10년 정도 걸리는 상황에서 불교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을 키워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인 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낮은 인식으로 이들을 지원할만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한현명 원심회 부회장은 "수화통역사가 불교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불자들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족한 상황이나마 회원들이 협심해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한자, 컴퓨터 같은 기초교육은 물론 바둑이나 요가 등의 여가 프로그램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또 지역단체나 학교 등에서 수화통역봉사와 수화공연을 열고,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한지연꽃을 제작, 판매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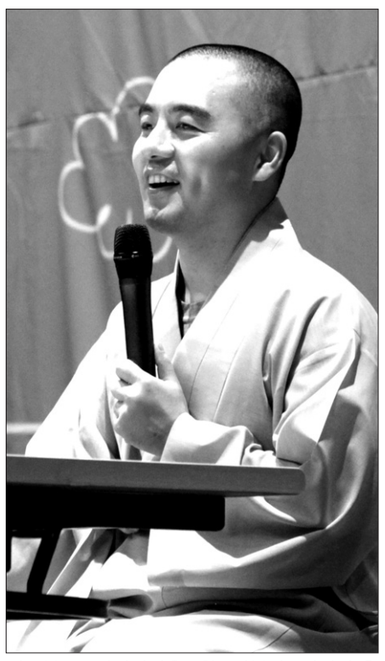
현재 원심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불교수화 동영상 제작 사업이다. 청각장애인들이 불교의식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불교의식 및 불교관련 수화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 김장경 회장을 비롯해 김경환 부회장과 초등학교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본의식 △의식찬불가 △생활찬불가 등 동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원심회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사회생활에서 소외되는 청각장애인들이 불교의식 및 불교관련 수화동영상을 접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기에 포교원 장애인 전법단의 후원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며 "10~11월 경 동영상이 완성되면 전국 사찰에 무료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2030청춘들 혜민 스님과 울고 웃다

## 문화사업단, 5~7일 마음치유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7월 5일부터 7일까지 충남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혜민 스님과 함께 하는 2030 마음치유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 시대 청춘들의 멘토 혜민스님과 2030 청년들이 산사에서 뭉쳤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7월 5일부터 7일까지 충남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혜민 스님과 함께 하는 2030 마음치유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지난 4월 트위터를 잠시 중단한 혜민 스님과 일반인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로, 최근 취업문제와 경제난, 학업 등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높아진 2030 세대를 위해 멘토링을 통한 건강한 청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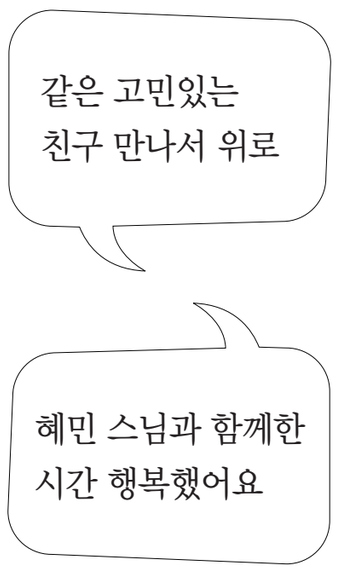
참가자들은 첫 날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에서' 감상을 시작으로, '혜민 스님의 행복한 묻고 답하기', '이야기로 풀어요-대화 명상' 등을 통해 자신이 직면한 갈등과 고민을 털어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기간에는 운성 스님(진주 용화사), 혜장 스님(동국대 정각원)이 불교문화 소개와 다양한 놀이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2030세대로 인터넷을 통해 150명의 인원이 모였다. 이들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위로 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2박 3일간 혜민스님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평소 접하지 못한 걷기 명상, 사찰음식 등을 접하며 진정한 마음치유의 시간을 보냈다"고 높은 호응도를 보냈다.

한편, 이번 참가자들의 참가비는 (재)아름다운 동행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담 화 문

**종법 질서를 유린하는 해종 행위를 단호히 척결하겠습니다.**

삼보전에 귀의합니다.
최근 근거 없는 비방과 폭로 행위로 인해 종단의 위상과 화합승가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종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나 시정 과정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이와 같은 행위는 1700여년의 한국불교의 역사와 가깝게는 50년 통합종단 출범 이래 피와 땀으로 일군 종단의 위계와 질서 그리고 종단의 자율성을 유린하는 해종 행위입니다.

종단 구성원은 종법이 정한 질서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종법이 정한 시정절차를 무시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극적이고 현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폭로와 비방 행위는 일벌백계의 자세로 신속히 엄단할 것입니다.

특히 호법부는 일방적인 사정기관에 대한 각종 제소 행위, 언론을 통해 진행하는 무차별적인 제보 행위 등 외부의 힘을 빌어 종단의 자주권과 자율성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강도 높게 엄단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해종 행위자로 간주하여 종법이 정한 과정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에 회부할 것입니다.

종단은 그동안 수많은 내외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수행풍토를 확립하고 청정승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종법 질서를 확립하고 해종 행위를 척결할 수 있도록 종도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7년 7월 11일

**총무원 호법부장 정안**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
| 신행과정(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7월 24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 텃밭가꾸기·전래놀이…건강지키는 지름길

## 아리담문화원, 아동·가족위한 프로그램 운영





소림사 아리담문화원은 매주 일요일 소림사에서 '3W 프로젝트-키즈농부교실'을 실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텃밭가꾸기, 명상, 전래놀이, 요리하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가족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다. 여가 및 휴식기능으로서의 가족이기 보다는 개별적인 개인생활을 중요시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런 위기에 빠진 현대가족을 행복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한 사찰이 건강권 확립 및 가족기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소림사(주지 지범)는 2012년 11월 아리담문화원(원장 송탁)을 설립하고, 아이들의 건강권 확립을 위한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3W 프로젝트-키즈농부교실'를 201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3W프로젝트'는 심리·신체적으로 보호체계가 취약한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스스로의 심신(心身) 상태를 파악하고 건강한 습관 형성 생활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동행이 지원하는 NGO단체 공모사업에 2013년 선정됐다.

송탁 스님은 "스마트폰 터치 하나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점점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스스로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참지 못하게 되고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며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명상과 텃밭가꾸기, 전래놀이 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여 명의 아이들은 매주 일요일 소림사에 모여 △생각을 돌보다 △몸을 돌보다 △관계를 돌보다 등 3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생각을 돌보다'는 사고력 향상을 위한 명상시간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성장기 올바른 스트레스해소방법을 배워 나간다. 이후 '몸을 돌보다' 시간에 아이들은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로 직접 요리해 먹고, 108절 운동을 생활화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또한 스마트폰 게임 외에는 노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제기차기, 팽이치기, 강강술래, 윷놀이 등 전래놀이활동을 익힐 수 있게 한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관계를 돌보다' 시간. 아동들은 버려진 텃밭을 농장으로 꾸미고 오이, 배추 등 농작물을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거둬들인 수확물은 주변 이웃에 나누어 나눔을 배운다. 가꿔 수확물은 주변 이웃에 나눠줘 자연과 나눔에 대해 배우게 된다.

송탁 스님은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정도로 집중을 못하던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텃밭가꾸기와 놀이에 참여하는 등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아리담문화원은 가족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가족건강성 지킴이 양성과정'을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조계종 사회부가 불교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선정한 것으로, 가족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40~60대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권확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참가자 20여 명이 매주 수·목요일 아리담문화원에서 △가족 건강성 지킴이 교육 △동기강화 프로그램(상담기법 및 대체놀이) △마음챙김명상 등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다.

'가족 건강성 지킴이 교육'은 업과 윤회, 연기설 등 불교적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가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족의 건강성 유지와 회복에 대한 방안을 배우는 시간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가족건강성 지킴이 명상'에서 마음챙김명상을 배워 올바른 마음과 소통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밖에 '상담기법 및 대체놀이 동기강화'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의 소통능력과 심리적 연대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놀이와 상담기법을 교육하고 있다.

송탁 스님은 "요즘은 어른들의 지혜를 전수받는 시대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시대가 됐다. 가정이 삶의 지혜를 얻기보다는 물질적 관계를 맺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며 "어른들의 경험과 연륜을 통해 가정의 건강을 회복하기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향후 아리담문화원에서는 사회 환원을 위해 재능기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리담문화원은 어린이를 위한 여름캠프를 7월 27~28일 소림사에서 개최한다. 초등학교 2~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습관 바꾸기 △부모님은혜 알기 △스트레스, 감정다스리기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2)359-2525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도심 속 옥상에서 농촌 추억을

## 서울노인복지센터, 도심텃밭 '찬들마루' 개장



서울노인복지센터 도심텃밭에 모종을 심고 있는 어르신과 아이들.

휴게공간으로 사용되던 옥상이 어르신들을 위한 텃밭으로 탄생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7월 9일 3층 옥상에 '찬들마루'를 개장식을 갖고 공동 경작을 통해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찬들마루'는 '결실이 가득 찬 하늘'이라는 순 우리말로 삼성 에버랜드의 '조경' 재능기부로 조성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센터 옥상은 그간 가벼운 체조와 휴게공간으로 사용됐으나 에버랜드의 도움으로 도심 속에서 농촌의 추억을 느끼고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며 "찬들마루에 공동 경작 프로그램을 비롯해 장미넝쿨 조성과 토끼를 기르는 등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어르신의 사회적인 관계망을 더욱 긍정적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장식에는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 김영종 종로구청장, 삼성 에버랜드 직원들이 참가했으며, 탑골문화예술학교 판소리반과 서울 창일어린이집의 율동 공연에 이어 모종심기체험, 텃밭 둘러보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로 진행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그동안 복지관에서 소규모로 진행되었던 텃밭 가꾸기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를 담은 공간으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번 '찬들마루'는 센터만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흙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02)6911-9554

이나은 기자

# 광동학원 교직원 45명 장기기증희망등록

## 7월 8일 불암사 교직원 합동법회서

학교법인 광동학원 교직원이 장기기증희망 등록에 동참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광동고, 광동중, 의정부광동고 등 광동학원 교직원 45명이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최상균 광동교 교장, 박병선 광동중 교장은 7월 8일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사에서 열린 교직원 합동법회에서 장기기증희망등록 서약서 45장을 일면 스님에게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따뜻한 가르침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우리 광동학원 선생님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최상균 교장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명존중 교육을 중요성을 느낀다"면서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장기기증 홍보를 돕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광동학원은 이번 서약서 전달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장기기증희망등록한 교직원까지 포함해 대부분의 교직원이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동참하게 됐다. 6월에는 광동고등학교와 의정부광동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한 후 모은 헌혈증 250장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한 데 이어서 장기기증희망등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학교로 주목받고 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사진 오른쪽부터) 일면 스님, 최상균 광동고 교장, 박병선 광동중 교장

# 108명 지원단,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

## 아름다운동행 모금홍보단 조직, 신인아이돌 '퓨어' 참여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108명의 지원단을 조직해 체계적인 모금홍보를 전개해 나간다.

아름다운동행은 7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원단을 위한 '첫 걸음의 시작-두 번째'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의 특강으로 시작됐다. 혜일 스님은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분들을 위한 보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남을 향해 웃어주고, 칭찬하고 좋은 말로 희망을 주는 것이야말로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보시"라며 참된 보시의 의미를 전했다.

교육에는 5인조 신인 아이돌그룹 '퓨어' 멤버들도 함께 참석하여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퓨어'는 1집 타이틀 '아직도 널'과 세상에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한 곡 '함께'를 공연했다.




아름다운동행은 7월 7일 지원단 교육을 진행했다.

공연에 이어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의 전반적인 소개와 자원봉사 기초교육 및 기부와 모금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아름다운동행 지원단은 지난 4월 13일 62명의 단원으로 진행된 발대식 이후 46명의 단원들이 최종 선정됐으며 약 2개월만의 108명이 구성되는 성과를 보였다. (02)737-9595

이나은 기자

# 동국대학생, 몽골 자원봉사 뜬다

## 조계종복지재단·동국참사람봉사단 12박 14일 해외봉사활동 전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과 동국대 동국참사람봉사단(단장 김희옥)은 7월 17~30일 몽골 울란바트르시에서 하계 해외봉사활동을 전개 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재단의 첫 번째 해외사업장인 몽골 드림센터에서 바양주르흐구청 게르 24동의 유아와 청소년들에게 교육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손재현 동국참사람봉사단 부단장과 봉사단 25명 등 28명이 참가해 도서관 꾸미기, 도로보수작업, 교육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동국참사람봉사단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몽골드림센터와 협력해 하계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한바 있다. 지난 1월 15일 복지재단과 '국내·외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맺으며 본격적인 전문봉사단의 체계적 파견, 효과적 활동, 불교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등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협약식과 함께 참사람봉사단 후원금 약 1500만원을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해 두 기관은 이번 하계 해외봉사활동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 나갈 것"이라며 "유아기의 6%만이 유치원에 다니는 몽골의 현실을 감안해 몽골 드림센터 3층에 다락도서관을 꾸며 희망찬 책방을 만들고, 울퉁불퉁 흙길 보수공사를 통해 마을주민들을 위한 노력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대학생 봉사단의 책임감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월드프렌즈코리아의 봉사단 파견실적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총 4720여명의 봉사단이 파견됐으며 이중 약 76%인 3583명이 아시아로 파견됐고, 이 가운데 대학생봉사단은 2456명에 달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런 흐름에 맞춰 동국참사람봉사단과 하계 해외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현지의 필요성에 귀 기울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 학 과 | 학제 | 모집인원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한의학과 | 5년 | 40명 | · 최종학력증명 1부 (영문)<br>· 입학신청서 1통<br>· 여권용 사진 10매 |
| 석사과정 | 3년 | 10명 | |
| 박사과정 | 3년 | 10명 | |
| 재경대학 | 4년 | 10명 |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신문,영어학 등 |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 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7월 20일

**5. 문의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학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 율종) 불교 조계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청정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띄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혜인 합장**

**입종및사찰등록안내**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참고사항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무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 “자기 진심 한번도 못써보고 죽어서야…”

## 창립 25주년, 한국교수불자 하기 대회 특강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 · 통도사 반야암 주지)

아인슈타인은 우주종교란 인격화된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에 내재해 있는 근원적 원리에 감화 받는 종교라고 했다. 그렇게 보면, 인과와 연기로 설명되는 불교는 아마 아인슈타인의 말에 가장 잘 부합하는 종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범우주적인’ 불교사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간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하거나 재생산하는 작업에 게을렀다.

7월 2일 통도사에서 열린 한국교수불자대회에서 지안 스님(통도사 반야암 주지)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불교가 현대 사회에 생생히 내재할 수 있도록 불교 요체를 제대로 알 것을 주문했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지안 스님**은 … 통도사에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 통도사 강원 강주를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고시위원 및 역경위원장을 역임. 저서로는 〈기신론 강의〉, 〈신심명 강의〉, 〈기초경전해설〉,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다〉, 〈처음처럼(초발심자경문)〉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대반니원경〉이 있다.

### 유구한 불교역사 그러나 얕은 불교지식

우리나라 불교 역사가 꽤 깊습니다. 기독교는 물론이고 유교하고 비교해도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종교임에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각 종교에 대한 지식수준으로 따지면 불교가 꼴찌일 것입니다. 초중고 학생, 기성지식인 층에 이르기까지 불교에 대한 지식 습득은 기독교, 유교 중에서도 제일 떨어질 것 같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한국 지식인들의 지식공간에 불교가 입력되어 있는 정도가 미약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불교가 시급히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이 공간에, 교리, 경전내용. 수행내용 등을 넣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불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가르침이 고차원적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탁월하죠. 제가 스님이기 때문에 아전인수격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읽어보고 다른 종교 책도 읽어봤지만, 불교야말로 차원 높은 교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교수님 중 한분이 말씀하시길, 일본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초중고 교사들 혹은 대학교수들 10명 가운데 6-7명이 불교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의 교양지식으로 어떤 주제로든 불교를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 경우에는 20명 중에 1명 정도만 그게 가능할 거라 했습니다. 강의는 차치하고 불교를 설명해주는 것도 그 정도 비율을 벗어나지 못 할거라더군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학자들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미국으로 유학갔을 때, 미국 학생들이 동양 학생에게 동양 사상에 대해 많이 묻는다고 합니다. 물론 불교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한국 출신 유학생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일본, 대만 유학생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하는데 말이죠. 동양출신인데 동양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것. 문제입니다.

43년 동안 스님 노릇 하면서 답답했던 건, 스님들을 만나도 불교적으로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어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 스님들을 만나면 불교적으로 상통하는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 겨울에 방한한 프랑스 출신 마티유 리카르 스님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스님은 20대 중반에 노벨상을 수상한 교수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받은, 촉망받는 과학도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도 여행길에서 티벳 출신의 스님을 만나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과학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한다”며 “행복할 길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만류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간의 골은 채워지지 않았고 20년 후, 마티유 스님이 있는 히말라야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부자가 열흘 간 대화를 나눠 기록한 책이 〈승려와 철학자〉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철학자 장 프랑수아가 아버지였던 거죠.

이 스님께서 한국을 둘러보며 “한국의 불교역사가 깊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인들의 행동에는 불교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비불교적이라는 거지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이혼율, 교통사고율도 금메달감입니다. 이렇게 잘사는 나라에서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이유가 뭐지요? 스님은 이를 지적하며 불교적인 가치가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몸만 돌볼 줄 알지 마음을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구한 불교 역사를 자랑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 불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 불교의 요체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불교적이란 것이 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첫째로 불교는 인과를 생각할 줄 알아야합니다. 부처님 법의 기초는 인과법입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원인에서 나타나는지 그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는 훈습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행하려고만 하잖아요. 이론은 너무 포화상태에요. 이론을 실천에 적용하고, 체질화, 사회화 시킬 때는 아직 많은 문제에 노출돼 있거든요. 인과를 통해서 개인문제, 사회문제 등을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이 넓어져야합니다.

두 번째로 불교는 연기입니다. 이 세상을 상대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또 다른 상대가 있다, 내 주장뿐 아니라 남의 주장에도 옳은 면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이 연기적인 성찰입니다. 사회는 다양한 현상이고 종교 안에도 다양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도 지금은 과학하고도 만나야 하고 타 종교하고도 소통해야 합니다. 내 종교만 내세우고 남의 종교를 무시하는 근대적 사고방식으로는 현대인들에게 감명을 줄 수 없습니다. 연기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인과 · 연기 · 일심법 실천… 불교적 삶**
**불교 바르게 알아야 자비심 일어나**
**불교역사 깊으나 한국사회 ‘비 불교적’**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는 일심법의 해법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해결하는 겁니다. 부처님, 하느님, 신이 해결하는 것 아닙니다. 불교는 인본주의 자성을 직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개인의 신상, 사회문제를 마음이 해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현상이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대승경전을 봐도 산, 바다, 우주천체는 마음에서 생긴 거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법은 마음입니다.

인과법, 연기법, 일심법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사고방식인 순환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인생관이 바뀝니다. 오늘날 직선적 서구 사고방식이 동양 교육에 영향을 많이 줬죠. 현대인들의 지식중독증세 또한 여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직선적으로 가니까 항상 대립될 수 있고 기차선로처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불교적 사고방식이죠. 불교의 육도윤회설을 보면 사람이나 소나 언제까지 같은 종류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생이 바뀌질 때, 사람이 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사람 몸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경책이 자주 나오거든요. 인간 구실을 잘못하면 악업의 과오를 받게 돼 짐승 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다음 생에 짐승 몸을 받으면 금생에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순환사고방식입니다.

### 불교적 삶 실현하기

부처님은 싫다고 가는 사람을 막지 않았어요. 부처 생존 당시 제자들이 따르다 보니 정치세력화 된다고 부처님을 모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무엇을 강요하며 세력을 형성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말에 참고할 만한 유익한 점이 있다면 참고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만을 추종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저에게 다가와 회개하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스님에게 전도하는 그런 종교는 없는 게 낫습니다. 종교를 안 믿어도 괜찮은 사람이 종교를 믿어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믿었다면 인간성도 소박하니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어떤 종교에 빠져서 이상해지는 건 인간성이 유린당하는 것과 같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인간이 인간의 마음, 진심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하는가입니다. 불교는 사람의 마음을 진여(眞如), 생여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진여는 진(眞)으로 보고 생여는 망(妄)으로 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선악관념과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사람마음에는 선한 의지도 있고 악한 의지도 있다 하잖습니까. 착한 행위도 악한 행위도 나오죠. 마음자체에 진망이 있다는 거에요. 진심과 망심말입니다. 조사어록을 보면 사람이 한 평생을 살면서 번뇌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 진심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백열등이 있는데 전선에 연결돼 불이 들어올 인연이 없다면, 다시 말해 전선에 연결되지 않았다면 백열등은 무용지물입니다. 등은 어두운 방을 밝혀야 하는 거니까요. 가령 사람이 ‘인간은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며 진을 목적으로 둘 때, 망심만 쓰고 진심을 안 쓰면 태어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앞서 말한 진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어느 선방에서 정진한 스님이 도반 스님을 찾았습니다. 가보니 도반 스님은 없고 법당에서 관음기도를 하는 신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신도에게 도반 스님에 대해 물었고 방해받은 신도는 스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나는 보살님을 몇 번밖에 안 불렀는데, 계속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보살님께 관음보살님은 얼마나 화를 냈겠습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뜻이 있습니다. 종교 믿는답시고 허망된 마음을 함부로 움직이면서 허튼 짓을 많이 하거든요.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정진입니다. 인격과, 교양은 이 바탕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 교법은 청정성입니다. 생각의 청정, 이게 중요합니다. 채식, 금욕, 자연환경 등 불교를 바로 알면 내 마음이 정화되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대자대비와 동체대비도 여기서 나옵니다. 염주의 염(念)은 생각 염자입니다. 원래는 찰나를 뜻하는 시간을 번역한 거에요. 한 생각이 퍼뜩하는 순간, 1/75초, 이는 1초에 75 찰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일념 안에 9백 생멸이 있다.’ 라고 합니다. 부처님 생각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말하는 거에요. 그 순간이 가장 맑다는 거죠. 염주는 생각의 구슬을 뜻하므로 생각이 영롱하다는 겁니다. 염력이 맑으면 진실이 드러나고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청소하는 거니까요. 생각을 맑게 함으로써 시간을 청소하는 거죠.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3년 동산불교대학 43기 신입생 모집 [2년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8월 10일(토) 오후 5시 개강]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통신반

| | | |
|---|---|---|
| 1년차 | 과 목 |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대승불교,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
| | 교수진 | 무진장대종사(본대학장), 정엄스님, 김형준교수, 종석스님, 주명철교수 보각스님, 최종석교수,백도수교수, 윤열수교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
| 2년차 | 과 목 | 근본불교, 유식사상, 반야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
| | 교수진 | 최봉수교수, 묘주스님, 김형준교수,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김상현교수, 박종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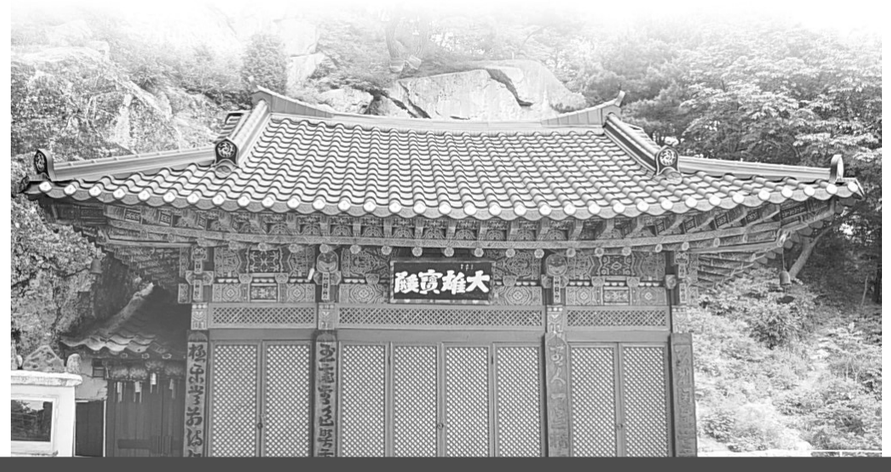
✲ 불교관련학과 개강 [다도학과 9월3일, 불교미술학과 9월5일, 선·명상학과 9월5일]
✲ 불교 대 학 원 개강 [9월2일, 9월3일, 9월5일]
✲ 불교의식교육원 개강 [한글의식반 9월7일, 범패의식반 9월4일]

■ 모집인원(불교학과) | 180명(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6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불교학과) | 2013년 7월 1일부터 ~
■ 문의 | 02)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 부사관, 장교)는 전액면제 교육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 종립학교 80% 종교의식 강제

## 송기춘 교수 '중 · 고등학교 종교차별실태' 발표

"현재 중 · 고등학교 내 학생 종교인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없는 반면 대부분의 종립학교가 강제적 종교교육 및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종교차별 실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월 9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만해NGO센터에서 개최한 만해축전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이날 '중 · 고등학교에서의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그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현행 교육체계에서 학생들은 종립학교에 강제 배정되는데 여기서도 강제적으로 종교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종교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종자연에 의뢰한 종교차별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종교차별실태조사는 당시 전국 중 · 고생 14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송 교수는 이날 실태조사 발표에서 현재 중 · 고등학교에서의 종교차별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립학교에서의 종교차별 행위는 종립학교 학생 80% 이상이 학교 종교행사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입학 당시 종교활동 설명이 부재할뿐더러 일부 학교에서는 활동 불참에 대해 알게모르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며 "학생들에게 종교교과 수강의 자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 란 응답이 60.9%에 달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특히 종립학교 60%이상이 주요 학교행사에 종교의식을 진행하지만 입학 당시 교내 종교관련 활동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학교에서 부재했다"며 "종교교육에 대한 대체과목 개설도 극히 적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교내 종교 활동에 불만족을 표현한 응답이 34.5%로 만족한다는 응답에 2배를 넘었다"며 이어 학교 내 종교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적 차별 기준 마련, 종교교육 선택권 보장과 대체교과목 개설, 종교의식 참석 강요 금지, 입학 후 일정 기간 내 전학 가능 제도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월 9일 만해축전 학술세미나에서**

**교내 종교활동 불만족 34.5%**

**"청소년기 종교 자유 보장 당연**

**학교선택권과 수업선택권 부여해야"**

송 교수는 특히 "학교선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종교교리만 가르치는 교과 역시 대체과목이 복수로 개설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교수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종교편향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격적 성장이 되는 청소년기에 종교자유 보장을 통한 종교적 다양성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며 "다종교 사회의 조화로운 공존과 종교갈등 해소를 위해 일선학교에서의 차별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정연복 한국기독교연구소 편집위원의 '종교와 파시즘, 그 역사적 고찰', 강인철 한신대 교수의 '민주주의와 종교정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의 '민주주의와 종교의 사회적 기능' 이 발표됐다.

이날 강인철 한신대 교수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5대종교로 불리던 종교들이 2000년대에는 3대종교로 압축됐다. 98.2%가 3대종교인 상황에서 점차 기독교가 세를 넓히고 있다"며 "추세로 보면 미래 한국사회는 단일 종교사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이어 "한국종교는 시민조직과 사회운동의 산실 역할을 한만큼 종교지도자의 도덕적 권위와 이웃종교에 대한 관용, 시민사회 포용 등의 전제조건이 더욱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이천 중심도량 영월암, 학술적 조명된다

## 오는 20일 불사 방향 설정 위한 세미나 개최

경기도 대표 도농복합도시 이천의 중심도량인 영월암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이천 영월암(주지 보문)은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영월암과 전통문화공간의 활용 방안' 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영월암에서 추진 중인 불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천시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맡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지역의 대표사찰인 영월암의 역사와 인물을 통한 고증과 지역문화거점으로서 영월암의 불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보는 자리에서 눈길을 끈다.

기조 발제는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이 '영월암 불사의 복원 방향과 과제' 를 주제로 진행하며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영월암의 역사와 인물' 을, 손신영 동국대 강사가 '영월암의 조선시대 가람 배치와 복원' 을,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가 '영월암의 마애불상과 불교미술' 을, 김현정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영월암 소장 법화경과 변상도' 를, 김유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장이 '이천 문화크러스트 조성과 관광 방향 모색' 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황인규 동국대 교수,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 김정희 원광대 교수, 이병두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주지 보문 스님은 "세미나를 통해 영월암과 연계된 이천지역 문화크러스트 조성과 문화 탐방지로의 연계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영월암이 지역사회 전통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며 "더불어 사찰의 복원불사가 종교적 기능을 확대하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거점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 정암사 법화경 판본 보물 지정

## 문화재청, 7월 10일 지정 예고

창원 정암사 '묘법법화경' 판본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7월 10일 '묘법연화경 권4~7' 과 '칠태부인경수연도' 2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창원 정암사가 소장 중인 '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 은 불교의 대표적인 대승경전(大乘經典)으로 조선 태종 5년(1405)에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安心社)에서 성달생(成達生, 1376-1444년)과 성개(成槪, ?~1440년) 형제가 필사한 것을 새긴 목판본 전 7권 가운데 권4~7의 1책이다.

성달생은 고려 말 · 조선 전기의 무인으로 전라도관찰사 겸 병마절도사 등을 지냈다. 문무를 겸비해 당시 법화경을 비롯한 불서 편찬에 참여했다.

묘법연화경 발원문에 따르면, 태종 5년(1405) 3월 권근(權近, 1352~1409년)이 종래의 묘법연화경 글자가 작아 독송이 어려운 까닭에 중간 크기의 글자로 필사 후 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판각은 대화주 선사 명회(大化主 禪師 明會) 등 주도 하에 총지종 대선 자옥(摠持宗 大選 慈玉), 우산군부인 김씨(兎山郡夫人 金氏) 등이 발원 · 시주해 이뤄졌다.

문화재청은 "간행사실을 밝히는 권근의 발문을 갖추고 있어, 조선 초기의 불경 간행 방식을 알 수 있는 등 서지학(書誌學)과 불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칠태부인경수연도(七太夫人慶壽宴圖)' 는 왕의 명령과 보조를 받아 70세 이상 모친을 모시고 있는 신하 7명이 1691년 8월 경수연(慶壽宴: 장수를 축하하고자 베푼 잔치)을 치른 후 기념으로 제작한 것이다. 1745년 전후로 새롭게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묘법연화경〉 4권.

이 작품은 당시 행사의 세밀한 표현이 돋보이는 우수한 행사기록화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유물 2건에 대해,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수렴된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돈황벽화 조성에 미친 한국인의 불심

## 리신 둔황연구원 , 7일 공개…40곳

## 고구려 · 신라 · 백제 인물상 확인


막고굴 제61굴의 '오대산도' 에 들어 있는 '신라송공사' .

불교문화의 보고(寶庫)인 중국 돈황 석굴 조성에 고구려 · 백제 유민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리신(李新) 둔황연구원은 7월 7일 경상북도가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개최한 '제2회 경주 실크로드 국제 학술회의' 에서 "둔황 석굴 중 40곳에서 새 깃털을 꽂은 관모를 쓰고 넓은 소매 옷을 입은 한반도 사람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돈황 벽화에 고대 한국인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로 리신 연구원은 당시 동북아의 큰 흐름이었던 불교 전파와 고구려 · 백제 유민(遺民)의 돈황 이주를 들었다.

리신 연구원은 "돈황 벽화는 인접국들이 불교에 귀의하는 모습을 많이 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대 한반도 사람들이 들어갔다. 또 백제와 고구려 멸망 이후 둔황 지역으로 적지 않은 유민이 이주됐고, 이들이 석굴 조성과 불교 신앙 활동에 참여하면서 석굴 벽화에도 표현됐다"고 밝혔다.

당시 돈황 지역에는 중국 성씨가 아닌 구(具), 김(金), 채(菜) 등의 성씨 기록이 남아 있어 한반도에서 건너온 유민이 대거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리신 연구원은 "유민들은 장기 거주하여 둔황 시민 중 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조우관과 넓은 소매 옷을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한반도의 독특한 복식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돈황 벽화 중 조우관을 쓴 인물상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왕릉벽화, 남당시대 번객입조도(蕃客入朝圖)에 나오는 한반도 인물상과 용모, 동작, 관모, 복식이 비슷하다. **노덕현 기자**

# 동국대 불교학술원, 〈해심밀경소〉 3권 출간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7월 10일 신라 유식학(唯識學)의 대변자로 평가받는 원측(613~696) 스님의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 3권을 출간했다.

해심밀경소 출간은 불교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ABC) 사업 중 '한국불경전서 역주사업' 으로 진행됐다.

총 8품 가운데 '제1 서품', '제2 승의제상품', '제3 심의식상품 · 제4 일체법상품' 이 1차로 출간됐다.

해심밀경소는 유가행파의 소의경전인 〈해심밀경〉에 대한 주석서로 원측의 저술 중 가장 중요한 대작으로 꼽힌다. **노덕현 기자**

# 일심 사상'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 한마음과학원 2013학술심포지엄서

안양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은 7월 6일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2013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임심사상,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은정희 前서울대 교수의 '원효의 일심사상', 김원명 한국외대 교수의 '일심사상의 연구현황',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의 '일심사상의 연구방향과 과제', 소광섭 서울대 융합기술원 박사의 '현대물리학과 일심사상' 이 발표됐다.

이날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는 "일심 사상은 불교를 넘어 동체의식, 평등주의적 의식이 반영된 한국인의 철학"이라며 "종교적 영역을 넘어 한국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현하는데 일심사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한국인은 누구나 '하면된다' 는 생각, 누구나 일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끝까지 분발하고 분투한다. 이밖에 인정이 많고 의리가 넘치는 행위들도 그 심층마음인 일심으로 귀결된다는 바탕이 있기에 가능하다"며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진정한 사해동포주의로 나아가는데 일심사상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Hwalbup Apitherapy Correct Master



벌(蜂)침관리사

일침 이구 삼약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벌침(蜂)관리사란?

벌(蜂)꽁무니에 있는 침을 손과 핀셋으로 압통점 및 경혈에 직침과 자침을 하여 일침이구삼약(침/뜸/약)의 동시 효과로 밸런스가 무너진 몸의 균형을 신속히 회복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활법 교정술과 접목되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평생 유지되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벌침관리 전문가다.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 자 격 과 정 | 교 육 기 간 |
|---|---|
| ● 바른자세와 근육론 / 경혈론 / 증상론<br>● 벌(蜂)침의 척추신경 / 경락의 활용법<br>● 척추와 아시혈 찾기 / 주의사항<br>● 활법교정과 벌침의 직,자침 실기<br>※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 ● 교육기간 :<br>6주과정<br>(토) 오후 1시 ~ 5시 |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자
▶ 특 전 : 봉산물 및 가축(봉침)용 양봉기술 전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 이주민 위한 자비보시행 눈길

## 7월 10일 외국인 근로자 쉼터 마련 위한 음악회



2500여명의 불자들이 가득 채운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가수 안치환 씨가 노래를 하고 있다.

호남지역 불자들과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감동과 화합의 음악회가 개최됐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지난 7월 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광주 외국인 쉼터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아름다운 꽃이어라'가 펼쳐졌다.

이날 음악회에는 스님과 불자들 2500여명이 1800석 규모의 대극장을 가득 매우고 통로까지 자리를 점하는 등 높은 호응 속에 개최됐다.

**정목 스님 · 안치환 힐링 콘서트**

**수익금 전액 이주민 쉼터 마련 사용**

**故 범능 스님 추모도 진행**

행사는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진행으로 광주외국인복지센터를 알리는 영상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다 최근 입적한 故범능 스님의 마지막 유작 앨범인 '나 없어라'가 스님의 생전 영상과 함께 흘러나왔다. 행사 개막은 장내에는 스님을 추모하는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과 함께 시작됐다.

행사장은 가수 안치환 씨의 노래가 되면서 활기를 띄웠다. 안치환 씨는 이날 자신의 히트곡인 '내가 만일', '인생은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다양한 노래와 범능 스님의 유작노래를 불러 관중들의 환호에 답했다.

행사의 말미는 불교 힐링의 대가로 꼽히는 정목 스님의 '톡 하나'가 장식했다. 이날 정목 스님의 힐링 강좌에는 정겨울 피아니스트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넬라판타지아' 등의 연주가 함께해 좌중의 심금을 적셨다.

정목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나와 주변의 고통의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강조하고, "자신을 늘 점검하며, 돌아보기를 바란다"며 불자들의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이 힐링임을 강조했다.

행사장 주변 곳곳에는 광주전남불교NGO연대의 회원단체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행사장의 도움미로 자청해 재가불자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행사를 마련한 이주성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은 "우리사회가 풍족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신, 어렵고 힘든 일은 이주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최근 이들은 한국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음악회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우리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한국생활에서 힘든 점을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작은 지대방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외국인근로자쉼터는 대부분 불교국가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외국인들에게 작은 쉼터 역할을 하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한 한시적 주거공간과 휴식처를 제공한다.

또한 법 테두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법률 상담실과 한국음악, 운동공간, 문화공간과 자기 나라의 전통문화 활동을 고국의 친구들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센터가 위치한 곳이 공단과 도시, 농촌이 어울어져 있는 곳으로 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인성교육과 부모교육, 취업상담 등을 같이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선운사 지장신앙 원찰 명성 이어간다

## 7월 7일 지장보궁 조성 완료… 일본 환수 지장보살 봉안

삼장(三藏) 지장보살을 모신 국내 유일의 지장도량 고창 선운사가 지장보궁 조성불사 회향법회를 열고 지장기도도량으로 사격을 회복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7월 7일 재곤, 범려, 재덕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정만수 선운사 신도회장 등 불자 3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장보궁 조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법만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국내 유일의 삼지장 기도도량으로 일군 조사스님들의 정신과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구현하여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를 이루겠다"며 "지장기도 성지의 사격에 맞는 지장보살 선양운동을 널리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곤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장보살은 자신의 성불을 미루면서까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원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보살이다"며 "이러한 지장보살의 원력을 실천하는것이 불자로서의 사명이다. 열심히 기도와 수행정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향한 선운사 지장보궁은 정면 7칸, 측면 3칸(연면적 731.25㎡)의 2층 한옥구조로 이전까지 선운사 성보박물관으로 이용됐다. 지장보궁에는 이날 일제 강점기인 1936년 2명의 일본인 도굴범들에 의해 일본에 밀반출됐다 환수된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 제279호)이 봉안됐다.

선운사에는 지장보궁의 지지(持地)지장보살(보물279호)과 도솔암의 천장(天藏)지장보살(보물280호), 참당암의 인장(人藏)지장보살(전북유형문화재33호)의 삼장(三藏)지장보살을 모두 모셔졌다.

**국내 유일 삼장보살 봉안 사찰 사격**

**천장 · 지장 · 인장보살 선양운동 계획**

선운사는 법회 이후 지장보궁 앞 뜰에서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지장보궁에 봉안된 금동지지 지장보살좌상은 1936년 일본인 도굴범들에 의해 일본으로 밀반출됐으나 지장보살상을 소장한 사람들마다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 소장자가 현몽을 꾸고 고창경찰서에 연락해 1928년 선운사 스님들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선운사로 이운해 왔다. 이후 금동지장보살상은 관음전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도난과 훼손을 우려해 선운사 성보박물관에 봉안돼 있었다.



지장보궁 조성불사 회향법회(①, ③)와 일본에서 반환당시 모습(②).

한편 선운사는 이날 대웅보전에서 재연스님을 포살법사로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광주불교계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인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지역민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7월에 개관해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자활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특히 송광푸드뱅크, 광산나눔드리푸드마켓, 광주하나쉼터 등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송광어린이집, 송광지역아동센터, 송과사회복귀시설, 송광노인복지센터, 송광가정폭력상담소, 소년가장 그룹홈 '길상원' 등 지역복지기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은 불교계가 현재 5번에 걸쳐 재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의 우수복지관으로 알려져 있다.

우산동 시영2단지 옆 근린공원에서 개최된 개관 20주년 기념행사에는 기념식, 시상, 나눔문화행사, 영상음악제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있기에는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었고, 직원들의 노고와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지역 주민들, 관련 행정기관은 도움이 있었다"며, "불교의 자비와 이타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복지 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통해, '공동체 복지', '자생적 복지', '경제적 복지', 문화적 복지 '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기반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사회복지 바라밀 이사장 현고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 김동철 국회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 500여 스님과 지역민들이 함께했다.

시상식에는 도제 스님의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장을, 지역민과 우수 직원들이 공로패와 감사패 등을 수상했다.

2부 나눔문화행사에는 참석한 지역민들에게 비빔밥과 민요, 벨리댄스, 통기타 등 문화공연이 진행되었고, 마지막에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이 상영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청화 스님 선서화 순천전시회

한국불교의 큰 스승이었던 무주당 청화 스님(1924~2003)의 법문을 선서화로 만나는 전시회가 열렸다.

성륜불교문화재단(이사장 용타)과 곡성 성륜사(주지 무상)는 지난 7월 6일~12일까지 순천시립 문화건강센터에서 '청화 스님 열반 10주기 추모 선서화 초대전'을 개최했다.

이날 초대전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인 서예가 박경순 씨가 청화 스님의 법문과 열반게, 발원문, 관음찬 등을 그림 120여점을 전시했다.

무상 스님은 인사말에서 "엄정한 수행자의 표본과 자애로운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끝없이 베풀어주신 법유지은(法乳之恩)을 어찌 필설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하지만 일 점, 일 획에 정성을 다하여 대가의 심혼(心魂)을 담아 큰스님의 유지를 되새겨본다"고 말했다.

전시회는 순천전에 이어 오는 7월 14~20일까지 진주에 위치한 경남도립 문화예술회관과 7월 22일~8월 11일 곡성에 위치한 전남도립 옥과미술관에서도 개최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익산 숭림사 방하착 템플스테이

익산 지역 유일의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는 7월 6~ 7일 익산지역의 신행단체회원, 직장인, 주부, 대학생, 고등학생등을 대상으로 쉬고 버리고 내려놓는 방하착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보광전에서 열린 입제식에서 지광 스님은 "소중한 여름휴가를 산사에서 보내며 사회와 학교에서 쌓였던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버리고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불교 전통 식사 발우공양을 통해 불교의 예법과 음식의 소중을 배우고 저녁 예불에 앞서 각자 소망을 기원하며 범종을 직접 타종해 보는 기회도 가졌다.

이어 참선체험, 아침예불, 108배, 함라산 둘레길 포행을 하며 잠시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 또 예전에 용궁사가 있었다는 웅포 곰개나루 덕양정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좌선 삼매에 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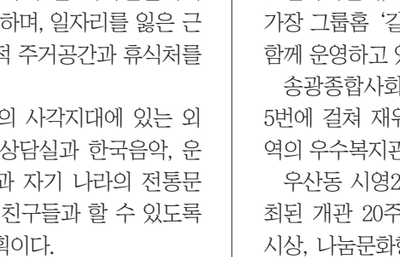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얀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 시원한 바다서 '힐링' 하며 신나는 방학을!

## 부산지역 여름방학 어린이불교캠프 풍성

부산지역 사찰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어린이여름불교캠프 프로그램을 펼친다. 올 여름은 바다가 매력적인 도시 부산 사찰에서 놀이를 접목한 힐링 명상프로그램으로 시원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범어사(주지 수불)는 금정산 천혜의 숲과 시원한 계곡물만 해도 초등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이다. 범어사의 보물을 찾아서, 캠프파이어 등 문화유산 탐험프로그램, 학습과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특색이다. 7월30일부터~8월1일 3일간 범어사 경내 휴휴정사에서 개최된다. (051)508-3122

부산 초읍 삼광사(주지 무원)는 발우공양을 통한 음식과 자연의 소중함 느끼기, 반야심경 사경, 부채만들기, 물총놀이 등 몸과 마음의 행복을 담아 줄 천태어린이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무원 스님은 "사찰에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캠프는 7월 20~21일 양일간 경내에서 개최된다. (051)808-7111

양정 여여선원(선원장 정여)은 7월 20일~21일 양일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양생물체험, 해양 환경보호활동, 모래성 쌓기와 물놀이 등 다채로운 해양 체험 활동이 펼쳐진다. (051)866-6645

7월 20일~21일 금정구 홍법사(주지 심산)는 넓은 농원부지와 수목의 조경이 아름다운 사찰로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 놀기에 최적이다. 만다라 그리기와 각종 만들기 놀이를 통한 집중력 향상을 위한 명상프로그램과 페트병 물총놀이, 슬라이딩 물놀이 등 다채로운 물놀이가 진행된다. (051)508-0345

당리 관음사(주지 지현)는 7월 20일~22일 '자연과 하나되는' 이라는 주제로 협동심과 배려심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어울림 활동, 다양한 놀이와 문화체험, 자아 개발과 인성 향상을 위한 명상프로그램,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사찰 습의와 불교사상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51)294-9300

연산동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우리도 부처님처럼' 이라는 주제로 7월 26일~28일 경내 만불전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테마로 한 애니메이션 시청, 병풍만들기, 동극 발표 등이 진행된다. 그밖에도 물놀이와 캠프파이어, 부모님께 올리는 발원문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도 어우러진다. (051)866-7771



범어사 삼광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등 부산지역 사찰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을 위한 어린이여름불교캠프 프로그램를 개최한다.

**범어사 '문화유산 탐험'**

**삼광사 '천태 어린이힐링캠프'**

**여여선원 '해양생물체험'**

**약사선원 '오체투지 체험'**

해운대 약사선원(주지 법생)은 7월 26일~28일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송정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물놀이, 해운대 일대 문탠로드와 비밀의 숲길 탐사프로그램, 풍선아트, 종이접기, 마술공연 등 다양한 놀이수업이 펼쳐진다. 특히, 티베트 밀법 수행도량의 특성을 살려 티베트 오체투지 명상프로그램을 통한 자비와 지혜를 개발하는 집중력 체험도 선보인다. (051)702-7746

영도 한마음선원부산지원(선원장 혜도)은 '느껴봐 늘 함께 있어'라는 주제로 마음자리를 느끼고 주인공이 함께 있음을 체험한다는 한마음선원 특유의 수행 의미를 담았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부산탐방 프로그램이다. 탁트인 바다로의 힐링탐방, 동물체험의 교감탐방, 금강공원 일대로의 자연탐방, 을숙도 야생화, 생태, 자전거 등 체험탐방, 어린이 연극, 영화관람의 문화탐방, 감천 벽화마을로의 낭만탐방, 국제시장일대의 먹거리탐방이 진행된다. 7월 26일~28일 3일간 경내와 부산 일대에서 개최된다. (051)430-7077

남포동 용두산 미타선원(선원장 하림)은 게임과 휴대폰 없이도 즐겁게 놀 수 있는 명상프로그램 '아하! 어린이명상캠프'를 진행한다. 아빠와의 유대감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아빠 어디가?' 프로그램이 이색적이다. 명상, 청학동 계곡 물놀이, 섬진강 재첩체험, 캠프파이어, 아빠와의 대화시간 등이 진행된다. 8월 10일~11일 양일간 하동 섬진강 일대에서 진행한다. (051)253-8680

박경수 부산지사장

# 한국불교대 '백중 맞이 릴레이 법문'

## 7월 9일 백중 천도재 입재식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을 맞아 천도재와 큰스님 초청법회를 잇따라 갖는다. 한국불교대학은 7월 9일 백중 천도재 입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1만여 명의 불자들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조계종 원로의원 성파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성파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오묘한 법은 경전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것은 다 나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면서 "매일 거울속에 비춰지는 자신을 바로보기 위해서는 거울의 때를 닦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수행을 게으르지 않게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는 8월 21일까지 매주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며 원로의원 도문 스님과 중앙승가대 명예총장 종범 스님등 8명의 스님들을 법사로 초청 대중법문을 갖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대학은 7월 9일 백중 천도재 입재식을 갖고 성파 스님 초청 법회를 가졌다.

# 금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여름음악캠프

## '플러스 미디어'…8월 14일~15일

부산 금정청소년수련관(관장 박용하)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4일~15일 청소년을 위한 음악캠프 '플러스 미디어'를 실시한다. 이번 음악캠프는 부산지역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기타, 베이스, 드럼, 파트별 악기연주 클리닉과 쉽게 배우고 만드는 작사,작곡 교실, 프로듀서가 되어 미디어 제작을 체험하는 녹음체험학습, 음반제작체험 등 다양한 음악활동을 진행한다.

청소년들에게 악기연주력을 향상시키고 문화감성 계발과 창의적 체험학습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여가를 활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051)581-2070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전통사찰과 어울리는 해우소를

몇 년 전 영국의 첼시플라워쇼에서 한국의 작가 황지해는 '해우소 가는 길'이라는 작품으로 최고상의 영예를 얻었다. 첼시플라워쇼는 영국왕립원예학회가 주관하는 정원 및 원예박람회로 세계 최대의 권위를 자랑한다.

'생명의 환원'과 '비움'이라는 한국의 전통화장실 문화가 가지는 철학적 함의를 정원디자인으로 재해석해서 승화시킨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해우소 가는 길'은 진정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말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작품이 아닐 수 없다.

해우소는 '근심을 풀어버리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비우지 못하는 것은 곧 근심과 걱정의 근원이고, 비우게 되면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는 불교철학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소인 것이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재래식 전통 해우소를 사용하는 일이라고 한다. 서양식변기에 길들여진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찰에서는 해우소를 개조하거나 새로 서양식 화장실을 만들어서 그들의 불편을 덜어주었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템플스테이의 원래 취지가 한국사찰의 전통문화를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었다면 해우소나 발우공양이나 온돌방에서 이부자리를 깔고 자는 것과 같이 우리 사찰에서 스님들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생활 그 자체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템플스테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선암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멋진 해우소를 모두 지워버리고 말았다. 사부대중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능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편리성과 청결성 그리고 쾌적성을 추구하되 경관적으로는 한국사찰이 유지해온 진정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었을 텐데, 우리는 이러한 발상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전통사찰에 벽돌을 쌓거나 콘크리트로 만든 현대식(?) 화장실을 만들어놓아 전통사찰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관을 연출하게 되었다.

무엇을 하나 만들기는 쉬워도 그것을 개조하거나 다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전통사찰의 화장실은 지난날 우리 사찰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을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곧 우리 사찰의 모습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전통사찰의 해우소는 청결과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전통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남 ㄱ사찰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염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사무총장 석초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dwbk.net

부 산 제 2 총 무 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 2총무원 혜광사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행자모집 중
종 무 소 051)893-3346
학 장(直)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 진구 당감1동 232-3 현우정사
(백양대로 5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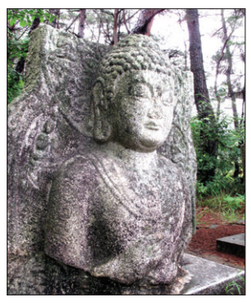
대원불교조계종 '세계평화와 국태안민을 기원 수륙대재' 봉행
범종단차원에서 수륙대재를 성대하게 봉행 하오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 시 : 2013년 9월 29일(음력8월25일) 일요일. 오전10시~
장 소 : 경남 사천시 대방동 삼천포대교 바닷가 야외무대
문 의 : 010-3565-2462 총무원장 / 055)364-4747 종정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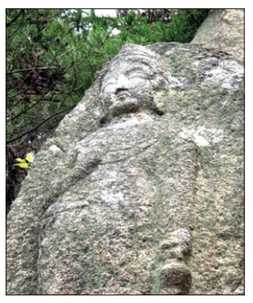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사단이 남산 삼릉계에 위치한 보물 제666호 석조여래좌상을 살펴보고 있다.









남산 삼릉계 인근에는 수많은 불보살이 산재한다. 사진 위에서 왼쪽부터 삿갓골 여래입상, 보물 666호 석조여래좌상, 냉골 마애관음입상. 아래는 보물 제63호 배리삼존불



참가자들이 유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남산 속살을 톺아보니 곳곳에 부처님

## 신라인들의 불상 조성 방법을 찾아서

경주 남산을 오르는 코스는 다양하다. 포석정과 통일전 주차장, 신라의 발상지 나정 등 올라갈 때마다 색다른 유적과 남산의 맨 얼굴을 만날 수 있다. 그 중 답사코스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는 곳은 삼릉계곡이다. 삼릉에서 용장계로 넘어가는 길 구석구석에는 불국토 남산이 숨겨놓은 부처와 보살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가장 많은 불교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곳도 삼릉계 부근이다.

이번 경주 남산 불적답사는 삼릉과 기암골에 산재한 불 · 보살상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뤄졌다.

### 남산의 계곡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답사은 삼릉 옆 삿갓골 여래입상으로 찾는 것부터 시작됐다. 삿갓골 여래입상은 풍채가 풍만하고 섬세하고 생기가 넘치는 통일산라 중엽의 걸작이다. 위엄이 있다기보다는 자비스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특히 두광과 신광으로 구성된 광배는 황홀할 정도다. 머리 뒤에는 보상화가 둥글게 나타나고 그 양가로 연꽃 위에 앉아 합장한 화불들이 나른다. 신광에도 당초 잎사귀와 보상화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두광과 신광 가장자리에도 당초무늬가 생기있다.

사실 중국 불상에는 두광과 신광의 가장자리에 불길을 새긴다. 그러나 불길 대신 꽃넝쿨로 표현한 것은 평화를 우리네 조상들의 마음씨를 알 수 있게 한다.

비운의 왕 경애왕의 릉(陵)을 지나 삼릉에 들어섰다. 본격적인 염천(炎天)의 날씨다. 지난 새벽까지 비가 이어졌다고는 믿기 힘든 기온에 숨이 가빠진다. 그래도 삼릉계곡을 따라 오르니 계곡 물소리가 더위를 식혀준다.

경주 남산은 마사(磨砂)로 이뤄져 비가 내리고 반나절이 지나면 산 아래로 물이 전부 빠져나가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기가 어렵다는 게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의 설명이다. 남산에서 계곡 소리를 듣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라는 사족도 덧붙였다.

### 삼릉계 사이사이 펼쳐진 불국토

삼릉 계곡을 따라 5분여를 걸어 오르면 머리없는 부처님과 관음보살 한 분이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 냉골 석조여래좌상과 마애관음보살입상이다. 마애관음보살입상은 세월의 풍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지만 호상과 수인만은 뚜렷하다. 아슬아슬한 산벼랑위에 조각된 관음보살은 억겁의 시간을 넘어 오묘한 미소를 지어 내고 있다. 최민희 소장의 설명을 들으면 신라인들의 불심을 알 수 있다.

"이 관세음보살이 서 있는 자리는 집을 지을 공간도 없고 기와 조각도 발견되지 않아 처음부터 노천불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산기슭에서 올려다보며 예경하면 그 소리를 듣고 하강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산벼랑에 불상을 새긴 것입니다."

마애관음보살 아래에는 냉골 석조여래좌상, 일명 불두 없는 여래좌상을 만날 수 있다. 머리가 없는 부처님이지만, 어깨로부터 내려오는 가사의 선이 뚜렷하고 선명하다. 그만큼 불두만 있었으면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걸작 불상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존재한다.

**삼릉부터 기암골을 지나니**
**수많은 불 · 보살상 산재해**
**부조 · 선각 등 조성법 '다채'**
**炎天만큼 답사 열기 뜨거워**

두 불보살상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마애선각육존불이 있다. 마치 병풍을 쳐놓은 듯한 바위에 아미타삼존상과 석가삼존상을 각각 새겼다. 마애불이지만 선각으로 이뤄져 있다보니 조각이라기보다는 그림에 가까운 형상이다. 또한 육존불의 위로 오르니 부처님들이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한 물꼴과 천정을 만들었던 흔적들이 보인다. 표면이 불규칙한 바위 위에 펼쳐진 자유로운 필치의 조각뿐만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조상들의 신앙의 열정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 세월을 이겨낸 부처님들 '감탄'

산 계곡을 따라 오르는 길이 가파라진다. 사실 경주 남산은 해발이 500m가 안되는 낮은 산이지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산은 아니다. 울퉁불퉁한 바위와 보기만 해도 아찔한 기암들로 이뤄진 험로(險路)는 산을 오르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한다.

한 무리의 바위 군을 헤치고 나오니 단아하게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 보인다. 바로 보물 제666호 경주삼릉계곡석불좌상이다. 이 석조여래좌상은 훼손이 심했다. 불두는 떨어져 다시 붙였고, 광배는 군데군데 깨어져 보수한 흔적이 많았다.

그래도 광배의 화려함에는 눈을 뗄 수가 없다. 가장자리에 타오르는 불꽃은 춤추는 듯 역동적이며, 생기가 넘친다. 반면 두광은 고요한 꽃송이로 마무리했다. 이는 번뇌로 번잡한 사바세계에서 적정에 들은 부처님의 고요한 심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일 것이다. 최 소장 역시 "이렇게 생기 넘치는 석불의 광배는 남산뿐만 아니라 전 신라시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걸작"이라고 설명했다.

이 여래입상에서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은 주위 환경과의 조화다. 어느 방향에서 봐도 아름다운 여래입상은 곁에 있는 바위들이며, 계곡의 여울 등과 잘 조화되도록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 산 정상과 세상을 보는 부처님

양대 봉우리 중 하나인 금오봉을 오르는 길 사이에는 남산에서 두 번째 큰 마애불인 상선암 마애불상이 있으나 지금은 생태보존과 문화재 보수공사를 이유로 출입이 금지돼 있다. 지난해 9월에도 친견을 못하고 발길을 돌렸던 필자에게는 그 아쉬움이 더 컸다.

상선암을 통해 기암골로 자리를 옮기니 곳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대부분이 마애불에 석조와 선각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것들이지만 그 수법들이 매우 다채롭다. 수법만큼 눈길을 끄는 것은 불 · 보살상의 시선이다.

최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남산에서 독존인 경우가 18곳, 삼존이 6곳, 이존이 2곳으로 대부분의 시선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적지 않는 불상이 가까운 곳의 봉우리를 보거나, 계곡 건너 토함산, 망산 등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고부조인 경우에는 가까운 봉우리를, 저부조나 선각인 경우 계곡을 건너 멀리 산을 향하고 있다.

"남산에 올라 마애불을 답사할 때 단순히 불상만을 바라볼 일이 아니라 그 불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선의 방향성은 신라인들이 불상을 조성함에 있어 특정한 방향을 선호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산 아래 배동에는 보물 제63호로 지정된 배리삼존불이 있다. 본존 높이 2.75m, 왼쪽 협시상 높이 2.36m, 오른쪽 협시상 높이 2.36m이다. 조선시대에 무너진 것을 1923년 복원했다.

얼굴과 몸이 어린아이를 묘사한 점은 장창곡 삼존상과 같으나 장식적이고 생경한 것은 신라 조각사상 새로운 양식의 등장이다. 이같이 둔중하고 강직한 작풍이 불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나, 동안과 균형을 잃은 체구 등의 수법은 따뜻한 생명을 실감하게 하는 자신감이 넘친 기법이다.

삼존불이라고 하지만 최 소장은 양협시보살의 양식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본존과 좌협시보살만 함께 조성되고 우협시보살은 후대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여래상과 보살상이 동시에 조성돼 모셔지는 '불보살 이존'이라는 독특한 형식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독특하게 창안된 '불보살 이존'이라는 전혀 새로운 형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불상을 조성함에 있어서 독존 아니면 삼존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이존 형식도 존재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리 삼존불을 지나 다시 사바세계로 내려왔다. 산 어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등뒤의 땀을 식혀 준다. 이것 또한 부처님의 가피일까.

경주 남산=신중일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8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 주제 : 금강산에서 바라보는 남산
- 일시 : 8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필기구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주소_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_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교무실)
(054) 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 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불교와 미학

한국 사찰 마당의 미학

# 절 마당 한 켠 풀꽃에도 佛性은 현현하네







일본 교토 용안지의 사찰 정원〈사진 왼쪽 위〉. 바위와 모래, 나무로 정원을 선의 정신을 미학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 사찰의 마당은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간월암에서 서해로 지는 해〈사진 왼쪽 아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잊고 근본으로 돌아간다. 절담 아래에 피어난 풀꽃에도 불성이 담겼다. 〈사진 오른쪽〉

일반적으로 종교건축은 강한 상징성을 갖는다. 욕망으로 넘치는 지상에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려면 종교적 상징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종교건축의 신성함은 그곳에 안치된 성상의 힘에 의지하지만, 발리 섬의 힌두 사원처럼 지상에 강림한 신이 사용하게 될 빈 의자만으로 종교적인 신성함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종교건축은 인간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를 위한 공간으로 고안된다.

하지만 불교건축은 초월적 존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공간, 수행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지만 불교건축 역시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기 위하여 그 속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불교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은 불상을 모신 전각이나 탑이지만 법당 안팎의 여러 가지 구조물과 장식물들, 심지어 진입공간과 일주문, 불이문으로 이어지는 문, 종교적 승화를 표상하는 계단까지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보르부두르 대탑은 단일한 구조물로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적멸의 세계로 상승하는 불교적 우주관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건축물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불교사찰의 상징적 의미는 유형의 구조물뿐 아니라 건물들의 배치에 의해 만들어지는 빈 공간에도 깃들어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바로 절 마당에도 종교적인 상징성이 깃들어 있다.

절 마당에는 탑이나 괘불대 같은 석조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텅 빈 공간 한 쪽 구석에 자연석이 세워져 있거나 향나무, 보리수, 파초 같은 식물이나 국화, 나팔꽃 같은 다년생 풀이 자라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텅 빈 마당에서 신남신녀들이 탑돌이를 하고 대중들이 야단법석을 펼치거나 선수행자들이 좌선하다가 일어나 행선을 하기도 한다.

사찰의 텅 빈 마당은 이처럼 신남신녀의 염원도 받아들이고 오고가는 뭇사람들의 발자국도 받아들이고 눈 푸른 납자의 그림자도 받아들인다.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낮에는 뙤약볕을, 밤에는 별빛과 달빛을 받아들이고 여름에는 장대비를, 겨울에는 하얀 눈을 받아들이고 봄가을에는 산천에 피어나는 꽃과 단풍을 받아들인다. 뿐만 아니라 스쳐가는 바람과 하늘을 떠도는 구름까지도 받아들인다.

특히 한국의 절 마당은 유럽식 중정(中庭)처럼 사면의 담이나 벽으로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사면의 건축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허술한 공간이다. 그곳은 꽉 막힌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열린 공간이다. 이 텅 빈 장방형의 공간은 그야말로 '공(空)'의 상징이면서 실제로 마음을 비우고 청정하게 하는 '비움'의 장소이다.

사찰 마당은 담이나 벽 같은 경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경계 너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누각과 종루, 창호을 통해 높이 자란 아름드리나무의 푸르른 잎도 받아들이고 저 멀리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산과 강,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까지도 받아들인다. 이렇게 절 마당은 담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담장 너머의 자연을 받아들인다.

누정이나 종루에서 바라본 아스라하게 사라져가는 먼 경치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사물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유명해진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어 안양루 아래로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백두대간을 바라보거나 선운사 만세루에서 비학산의 비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월명암 마루에 앉아 보름달이 떠오르는 것을 맞이하고 간월암에서 서해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잊고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리하여 마당도 비고 마음까지도 텅 비어질 때, 산을 보면 산이 그대로 산이고 물을 보면 물이 그대로 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외부의 자연을 끌어들여 자신의 풍경으로 만드는 것을 '차경(借境)'이라고 한다. 차경을 위하여 대부분의 선종 사찰은 탁월한 조망을 갖는 지점에 조성되었다. 또한 한국의 사찰정원은 선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차경의 또 다른 훌륭한 본보기이다.

자연의 풍경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한국사찰은 바위와 나무, 심지어 마당의 모래까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일본 사찰의 고도로 정제된 정원을 거부하고 토종의 꽃과 풀이 자라는 소박하고 정감 있는 뜰에 만족한다. 의식적인 집중을 요구하는 일본 젠 스타일의 정원이 아니라, 오히려 꾸미지 않고 무심하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 듯한 한국 절마당의 작은 뜰에서 사물은 종교적 상징성을 버리고 제각각의 모습으로 불성을 현현한다.

**푸른 대나무는 모두 法身이요**
**향기로운 국화는 반야 아님이 없다.**
(靑靑翠竹 盡是法身, 郁郁黃花 無非般若)
〈景德傳燈錄 卷6〉

자연이란 '스스로 그러한 것', '원래 그러한 것'이다. 우주 만물은 인연에 따라 생멸하고 변화하여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산수자연은 법성의 구체적인 현현이며, 모든 자연이 연기로 생멸하는 불성의 체현이기 때문에 자연은 적막하게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선취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일월성신(日月星辰)과 산하대지뿐 아니라 대나무 하나, 꽃 한 송이, 구름 한 조각, 골짜기와 개울, 화초와 나무를 관조하는 가운데 청정한 마음을 얻게 된다.

시불(詩佛)로 일컬어지는 중국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왕유는 〈여름날 청룡사를 지나며 조선사를 뵙고서(夏日過靑龍寺謁操禪師)〉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선적 자연관을 읊고 있다.

**산하는 천안 속에 있고** 山河天眼裏
**세계는 법신 가운데 있다.** 世界法身中

불교를 독실하게 믿은 왕유는 아름다운 산수자연에서 진여불성을 느끼는 경지에 이른다. 산수자연에서 공적청정한 선취(禪趣)를 추구하여 허정한 심경을 이루고 있다. 왕유는 험준하고 기괴한 경치가 아니라 한적하고 평온하고 고요한 산수자연에서 자연의 청정함과 마음의 고요를 맛보며 번잡한 세상을 벗어나 이상적인 삶을 이룰 수 있었다.

**홀로 깊은 대숲 속에 앉아**
**거문고를 뜯고 또 길게 읊조리네**
**무성한 숲이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밝은 달이 찾아와 비쳐주네**
〈죽리관〉

**걸어서 물이 다한 곳에 이르면**
**앉아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고,**
**우연히 숲 속의 늙은이 만나**
**얘기하고 웃으며 돌아가기를 잊는다네.**
**(行到水窮處 坐看雲起時 偶然値林叟 談笑無還期)**
〈종남별업〉

동아시아에서 선종사상은 자연을 감상하고 관조하는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산수는 세상의 속된 가치에 몸을 더럽히지 않고 청정하게 살면서 마음의 깊은 근원을 깨닫는 매개물이었다. 따라서 사찰의 정원은 또하나의 산수로서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미덕으로 선의 정신을 구현하였다.



이처럼 선종사찰은 종교적 상징물들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텅 빈 공간이 갖는 종교적 변형의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행의 매개로 삼아 다른 종교적 공간과 다른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東亞 사찰 마당엔 상징이 가득**
**사찰 정원 또 하나의 산수로 평가**

**바위, 모래 등 놓은 日사찰 정원**
**선 강조하지만 결국 인공 조형물**

**한국 사찰은 자연 그대로를 담아**
**차경한 절 마당은 '비움의 공간'**
**작은 뜰의 사물도 불성을 보여**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 “조그만 쇳덩이인 저울추가 만근을 들어올려”



## 方山老의 無影樹 〈21〉

###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전보삼



**전보삼** 박물관협회 회장
신구대 교수, 만해기념관 관장

**“만해는 저울추 · 선사 · 혁명가야”**
**만해 연구의 결정적 동기부여**
**“공부는 한가지라도 10년은 해야”**
**탄허 스님 초청 사상강좌 개최**
**한양대 전체 들썩…일간지 보도**
**박한영 스님 잇는 대강백**

**–교수님은 강릉 지역에 살았고, 그 지역의 학교에 다니면서 큰 활동을 하였지요?**

우리 집이 강릉포교당 근처예요. 그래서 학교는 강릉에서 초 · 중 ·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인 1962년에 강릉불교학생회에 들어가서 강릉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인 1968년까지 6년 동안 강릉포교당을 거점으로 활동을 하였지요. 중등부 부장을 중2 때에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부회장을 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때에는 회장을 하였어요. 내가 강릉불교학생회의 47대, 48대 회장인 셈이지요. 그 당시에 회장 선거할 때에는 강릉고, 강릉여고, 강릉상고, 강릉농고의 불교학생회원들 1천여 명이 와서 법당이 꽉 차고 그랬어요.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강릉포교당에서 탄허 스님을 여러 번 만났고, 그곳에서 큰스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운허 스님, 관응 스님, 석주 스님을 다 그곳에서 만났고, 도문 스님도 그 포교당 주지를 하실 때에 만났지요. 그러니깐 강릉포교당은 나의 안방이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학생회 잡지인 〈보리수〉도 만들고, 수많은 행사를 가졌어요. 그 시절에는 학생법회를 하면 수백 명이 모이고 그랬어요.

**–강릉 지역의 불자들은 탄허 스님을 어떻게 말하였을까요?**

강릉의 신도나 보살들은 탄허 스님을 불교뿐만 아니라 동양철학의 백과사전으로 불렀어요. 한암 스님은 부처님, 생불이라고 불렀지만 탄허 스님은 근기가 높은 스님, 백과사전으로 많이 불렀어요. 내가 스님들에게 자꾸 뭘 질문을 하면 탄허 스님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탄허 스님은 백과사전이라 다 아신다고 그랬지요.

**–탄허 스님을 만나서, 인연을 갖게 된 것을 들려주세요.**

내가 중2 때부터 탄허 스님을 뵙고, 뵙기만 하면 불교에 대해서 묻고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물으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지요. 나는 그 시절에 궁금한 것이 많아서, 스님들을 만나면 자꾸 질문을 하였어요. 스님들을 괴롭힐 정도로 물으면 그 스님들은 탄허 스님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피했어요. 내가 탄허 스님에게 물은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느냐, 인과가 무엇인가, 색즉시공이 뭡니까 등등이었지요. 이런 것을 물으면 스님이 툭 던져주는 것에 자극을 받고 불교를 배워 갔지요. 그때에 탄허 스님은 학생들에게 “공부해”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부지런해야지 뭐라도 된다”고도 하셨고요. 내가 탄허 스님에게 들은 것 중에서 제일 인상이 깊은 것은 공부를 하더라도 새벽에 하라는 것이었어요. 새벽정신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아침의 한 시간은 저녁의 열 시간과 같다,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은 그 양과 질에서 다르다, 그래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강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부처님도 새벽 별을 보고 깨치셨지요.

그래서 나는 아! 공부는 새벽에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어요.

**–교수님은 한용운 스님을 평생 연구하시고, 그 관련 자료를 모아오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것에도 탄허 스님에게서 영향을 받았는지요?**

그렇지요. 내가 중학교 2학년부터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요. 내가 탄허 스님에게 만해에 대해서 물으면 스님은 나에게, “저울추가 뭔지 알아? 조그만 쇳덩이가 만 근을 들어 올려, 만해 스님은 저울추야, 저울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님은 기분이 좋으신지 웃으며 좋아하셨지요. 저울추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훗날 저울추는 노자의 말 “돌덩이 보다 무거운 것은 다듬으며 잇돌, 다듬잇돌보다 무거운 것은 저울추”라는 사실을 인용하신 것을 알았지요.

**–그런데 탄허 스님이 어떻게 해서 만해 스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만해 스님이 오대산의 한암 스님에게 몇 번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암 스님의 옆에 탄허 스님이 있었기에, 자연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한암 스님과 만해 스님도 가까운 사이였어요. 두 스님이 비밀리에 편지를 주고 받은 사이라고 그래요. 조지훈 선생이 그 중간에서 심부름을 하였다고 하지요, 지훈 선생이 일제 말기에 월정사의 외전강사를 하였잖아요. 내가 조지훈 선생을 찾아가서 묻기도 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밝히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탄허 스님은 이런 바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지요. 탄허 스님이 만해 스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확신에 찬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해스님에게 빨려 들어가게 되었지요. 힘 있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만해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님은 나에게 공부는 10년은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어요. 그리고 내 법명도 지어 주었어요. 내 이름이 전보삼, 보삼이 아녜요. 그러니깐 스님이 “니 법명은 이름을 뒤집어서 삼보(三寶)라 해라”고 하셨어요. 내가 “삼보 스님이 있는데, 어떻게 같은 이름을 쓰면 됩니까?” 하면, 너는 재가의 삼보이니까 둘이 같이 삼보이니, 친구로 지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삼보스님과 친하게 지내요.

**–교수님이 만해 연구를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를 탄허 스님이 제공하였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스님이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만해에 빨려 들어갔다고 보지요. 그때에 스님의 화엄경 강의를 듣고, 고민하다가 내가 스님에게 “만해스님은 선사가 아닙니까” 하고 여쭈어 봤어요. 그러자 스님은 “만해는 선사이지, 선사이니까 혁명을 꿈꿨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만해 스님은 냉돌에 앉아 있었다. 조선 전체가 감옥이니 방에 불을 때지 않고 냉돌에 앉아 참선을 했다”는 말씀도 하셨지요. 선사이면서 동시에 혁명을 꿈꿨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만해를 선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강릉포교당에서 한용운 스님에 대한 행사도 있었는가요?**

있었지요. 만해 스님의 기일에는 우리 학생들이 주관하여 추모재를 지냈어요. 기일에는 늘 했지요. 불교학생들이 모일 이벤트 차원에서 하였어요. 그러면 포교당 주지스님이라든가, 인근 주변에 계신 스님들을 모셔서 하였어요. 그때에 도원 스님, 양형우 스님이 하신 것 같아요. 간혹 스님들이 못 오시면 내가 주관하여 지냈어요. 우리는 열성적으로 했어요. 또 만해특강도 하였어요. 나는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만해 연구를 해서 서울에서 발간된 〈법시〉라는 잡지에 글을 기고했어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국어수업 시간에 책을 탁 펴니까 만해의 시 〈알 수 없어요〉가 나와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수업이 시작되니 친구들이 이 시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안다고, 나를 들먹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날보고 그러면 나와서 어디 한 번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해서, 내가 한 시간 동안 만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나는 만해 연구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지요.

**–탄허 스님은 교수님의 일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군요?**

내가 그렇게 자꾸 묻고 그러니깐 스님이 나를 기특하게 보신 것 같아요. 날보고 늘 공부를 하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10년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시고 또 만해스님은 당신보다는 서울에 가면 칠보사에 석주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스님이 만해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석주 스님을 찾아가라고 알려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1968년에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에 메모한 정보가 세 가지예요. 첫째가 칠보사, 둘째가 망우리, 셋째가 심우장이었어요. 이것이 다 만해 스님의 연고지이지요. 그래서 내가 칠보사로 가서 석주 스님을 찾아뵈었지요.

**–그때는 만해 한용운 전집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지요?**

그렇지요. 만해에 대한 관심은 그때에 대불련에서도 아직 시작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1972년인가에 대불련 차원에서 탄허 스님을 모셔서 풍전상가에 있는 삼보법회 강당에서 특강을 한 일이 있어요. 그때에 탄허 스님과 김열규 교수를 같이 모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제안을 하니까 전창열, 명호근 같은 선배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탄허 스님을 아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강릉불교학생회, 오대산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해를 하고, 내 제안에 100% 찬성을 해주어서 강연이 마련됐어요. 그리고 1974년에는 만해 스님 입적 30년을 기념하는 강연회를 하였는데, 그때에도 탄허 스님이 연사로 나섰어요. 스님은 만해 스님의 불교사의 깊이는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무아를 달성한 그의 선적(禪蹟)은 돌덩이보다 무거운 저울추라고 하신 큰 법문을 하셨지요. 어찌 보면 스님은 나의 증명법사처럼 그렇게 특강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양대에 입학을 해 보니 불교학생회가 없더군요. 그래서 내가 불교써클을 만들어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등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양대는 기독교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당국에 가서 강한 항의를 하였더니 들어주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학생회 이름을 선지식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학교에서 불교학생회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등록은 했지만 우리들은 선지식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한양대 동문들은 선지식으로 부르면서 만나지요. 불교학생회를 만들어서 내가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탄허 스님을 모시고 큰 행사를 가졌어요. 사상강좌라고 부르고, 학교 입구에서부터 강당까지 행사 안내를 써 붙이고 그랬더니 학교 전체가 들썩이고,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고 그랬어요. 그때 모신 분들이 서정주, 이기영, 서경보, 탄허 스님이었어요. 이기영 교수와 탄허 스님이 우리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어요. 스님은 강당을 땅땅 울렸지요. 그 법회를 보도한 스포츠 신문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 강좌의 인기가 폭발적이었지요. 그 뒤로는 학교에서 불교학생회를 지원했지요. 그 후로 한양대 학생들이 대불련 간부에 많이 진출했어요. 나는 대불련의 전국대의원 의장을 하였고.

**–교수님과 탄허 스님의 인연이 보통이 아닙니다. 진작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군대에 갔어요. 서울비행장(성남)에서 복무하였는데 장교이기에 오후에 시간이 많이 났지요. 그러면 개운사 대원암에 계신 스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때, 화엄경이 발간되었는데 한 질에 10만 원인가 그랬지요. 그래 나는 월부로 사서, 군대 월급으로 그것을 샀어요. 그랬더니 스님은 “너는 돈도 없는데 조금만 내고 가져가라”고 그러셨어요. 그이후로 나는 탄허 스님의 책은 나오면 다 샀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내가 가면, 스님은 “아직도 만해공부 하고 있나”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난 “그렇습니다”고 말씀을 드리지요. 스님은 그러면 “잘 했다, 계속해라”고 격려를 해 주셨어요. 그때에 내가 스님에게 화엄경 입법계품의 53선 지식, 선재동자에 대해 묻고, 만해 스님의 사상이 화엄사상이 아닌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그랬어요. 내가 〈불교대전〉을 읽어 보니 화엄경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이 나오더군요. 나는 스님에게서 늘 화엄경을 많이 들어서 화엄에 대한 것은 머릿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에게 쫓아갔지요. 가서는 “스님 불교대전을 읽어 보니 화엄경이 제일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것은 만해 스님이 화엄경을 제일 좋아하였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만해사상을 화엄사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였지요. 그러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그 뒤에 내가 홍정식 교수에게도 만해사상을 화엄사상으로 볼 수 있지 않냐고 하였더니, 그 교수님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한국불교가 화엄사상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또 이기영 교수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 후에 박사논문을 〈화엄의 관점으로 본 만해사상〉으로 하게 된 것도 스님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그때에 내가 스님에게 만해의 님에 대해서도 자주 물었어요. 그러면 스님은 여러 말씀을 해주었지만 나는 못 알아듣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님 만해 스님의 사상은 화엄사상이니, 만해의 님은 비로자나 법신불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였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하여간에 그때부터 나는 화엄경에 대한 책은 다 사서 모으고, 읽고 그랬어요.

**–교수님이 보실 때에 탄허 스님의 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제 때에는 최고의 강백으로 박한영 스님을 쳤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맥이 단절됐어요. 나는 이런 측면에서 박한영 스님의 대를 이은 강백이 탄허 스님이라고 봐요. 탄허 스님도 은근히 당신께서 그런 자부심이 있지 않았나 하고 보지요. 탄허 스님이 원래 박한영 스님에게로 배우려고 가려다가 오대산에 승려수련소가 생기자, 그 수련소의 중강으로 있게 되어서 서울(개운사)로 공부하러 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그때 개운사에는 청담 스님, 조종현 같은 인물들이 다 모여서 공부를 하였어요. 만약 그때에 탄허 스님이 개운사에 갔었다면 더 큰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청담 스님과 조종현이 만해스님과도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사랑〉에 글을 기고하였지요.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사과말씀드립니다.

그동안 CJ택배로 배송해 왔으나
택배회사의 횡포(파업·배송지연·미배송·불친절)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것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거듭 사과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현대택배·우체국택배로 변경 출고됨을 알려드리며
최대한 신속·정확·친절한 배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 7. 4
동진기획·붓다쇼핑 드림





B형-남 정가 1,300원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여



동남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할인가 170 (60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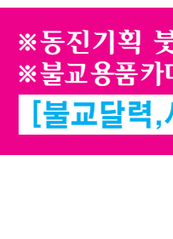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크기
• 대 6.5×24㎝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大30,000원 / 小27,000원 (100개)
할인가 大@270원 / 小@240원 (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1000벌이상)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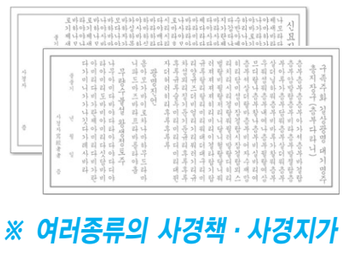
경전사경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촘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 "보신과 화신은 참된 부처 아니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2〉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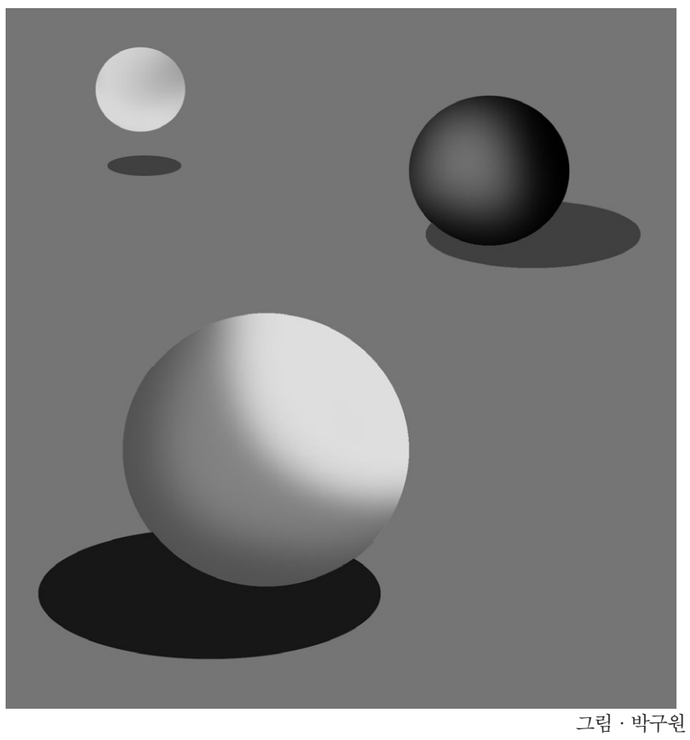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인연이 다하면, 모든 것은 무상(無常)으로 돌아가고 만다.**

일반적으로 몸을 지니며 쓰고 사는 한, 선업을 짓고 좋은 결과로 나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처의 입장은 다르다. 부처는 지옥에 있든 천상에 있든 상관없이 늘 여여해서, 한 번도 만들어지고 변해 없어지는 모습을 지닌 적이 없다. 알고 보면 모든 변화하는 모습은 다 허망한 일이다. 그래서 한 생각 돌이켜서, 본래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열반 실상에 눈을 뜨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이 중도요, 진정한 선(禪)이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보신과 화신은 참된 부처가 아니요,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고 하였다.**

법신 · 보신 · 화신의 삼신을 비유하자면, 법신은 달이고 보신은 달빛이며 화신은 달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달이 있으면 달빛이 있고, 달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보신과 화신은 모두 인연 따라 만들어진 모습일 뿐,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알아 아상(我相)과 인상(人相)이 없으면, 본래 그대로 부처다."**

아상과 인상은 본래 없는 것이다. 그 인 · 아상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다. 없는 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나? 인 · 아상이 본래 없는 줄을 확실하게 자각할 뿐이다. 사람들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모두 그림자일 뿐이다. 때에 당해서 인연 따라 모습을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끊어야 될 뭐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중생의 어리석음이다. 본래 상이 없음을 철두철미하게 자각을 해서, 없는 상을 없애려고 애쓰는 또 다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3. 기틀을 쉬고 견해를 잊음

**배휴가 물었다.**
**"성인의 무심은 곧 부처이지만, 범부의 무심은 공적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본래 무심이어서, 성인의 무심 따로 범부의 무심 따로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는 중생은 자꾸 범 · 성을 구별 지으려고 한다. 따라서 명안종사는 중생의 미혹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편을 시설해준다. 믿음을 낸 사람으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황벽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법에는 범 · 성의 구별이 없으며, 또한 공적에 빠지는 일도 없다.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없다는 견해도 내지 말라. 또한 법은 본래 없지 않으나, 있다는 견해도 내지 말라.**

법신은 달이고
보신은 달빛이며
화신은 달 그림자

"보신 · 화신은 인연따라
만들어진 모습일뿐
법을 설하는자 아니다"

아상과 인상 없으면
본래 그대로 부처다

아상 · 인상은 본래 없는것
인연따라 나타나는 '상'을
끊으려 함은 어리석은 일
'본래 없음' 철저히 자각해야

공부한 사람은 견해를 세우는 법이 없다. 세워야 할 법이 본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법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쓰되 쓰는 바 없이 쓰는 그런 인연들을 살피며 살아간다. 본래 마음자리에 성인과 범부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밝게 아는 것이다. 부처님도 성품이 둘이 아니라 했다. 성인의 마음과 범부의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만 업의 인연이 성인과 범부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본래 마음자리에 무슨 범 · 성이 있겠나? 본래 마음자리와 이미 벌어진 현상세계의 양쪽을 모두 소화하여, 이쪽과 저쪽의 가르마를 잘 탈 수 있는 법의 인연을 능숙하게 알고 사용하는 힘을 가진 공부인이 되어야 한다.

**법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모두 정식(情識)으로 헤아리는 견해로서, 마치 허깨비와 같은 것이다.**

현상계의 차별은 다만 정식으로 헤아린 견해일 뿐이다. 그런 허깨비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도인의 눈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일반 사람들은 범부와 성인을 구분 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규범을 만들며, 그렇게 살도록 스스로와 주위를 독려한다. 그렇지만 진정한 도의 안목을 지니게 되면, 그런 상대적인 차별을 뛰어넘는다. 세속의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어, 불이(不二)의 중도로써 상대적인 가치들을 포섭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인은 상대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평상심으로 무애자재 하게 살아간다. 한쪽으로 치우친 변견을 뛰어넘어 중도실상에 눈뜨려면, 훌륭한 선지식 아래에서 부단히 정진하며 또 안목 있는 도반을 가까이 하면서 늘 자기점검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공부인의 청복(淸福)인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보고 듣는 것은 마치 허깨비 같고, 헤아려 아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고 하였다.**

중생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낸다. 본래 중생과 부처는 하나로서 차별이 없는데, 중생은 인연 따라 만들어진 그림자에 현혹되어 끄달리는 것이다. 깨달음을 눈 뜨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분별이 사라진다.

**조사 문중에 있어서는 오로지 마음을 쉬고 알음알이를 잊는 것을 논할 뿐이다.**

하루 종일 마음을 일으켜도 일으킨 바가 없는 본래 실상을 완벽하게 깨달으면, 더 이상 시비는 시비가 아니게 되어 저절로 그림자에 속지 않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쉬어지고, 알음알이를 잊는다.

**그러므로 마음을 쉬어 버리면 부처님의 도가 융성해지고, 분별하면 마구니가 치성해진다.**

사실 쉬어 버릴 마음이란 본래 없기 때문에, 마음을 쉬라 마라 할 것이 없다. 이 하나를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황벽스님이 고구정녕하게도 완릉의 관찰사인 배휴의 눈높이에 비춰서 방편으로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다.

---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⑦⑧



## 나보다 아랫사람이나 빈천(貧賤)한 사람에게도 공양한다

〈법화경〉

**공양(供養) 개념의 확충**

절에 가면 부처님 앞에 불전함이 있다. 불전(佛錢)을 넣는 함이다. 흔히 다른 이름으로는, 복전함, 혹은 희사함으로도 부른다. 불전을 올리는 것이 복전(福田)에 복을 심는 행위라는 뜻이 담겨있다. 또한 나의 것을 기쁘게 내버릴(喜捨) 수 없다면, 불전을 부처님께 올리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물질적인 기부를 바치는 것은 아무리 종교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물질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존, 우리의 몸 자체가 물질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물질은 노동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런데 종교적 가치를 전문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속사람들처럼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신자들이 보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물질적 기부의 대상, 즉 그러한 물질적 기부를 받아들여주는 존재는 신앙의 대상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불교의 경우에는 부처님이나 스님이 된다. 스님 역시 삼보(三寶)의 하나이므로, 신앙대상이다.

부처님이나 스님들께 바쳐지는 물질적 기부는 다른 말로는 '공양'이라 한다. 공양은, 그러므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세속의 계급은 아니지만, 부처님이나 스님은 우리 신자들보다는 높은 존재들이다. 저 높이 앉아계시는 분이다.

공양은 그렇게 높은 분들에게 바치는 행위이다.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높은 분들에게 올리는 것만을 공양이라 말하지는 않는다.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나, 흔히 비천한 사람이라고 외면당하는 사람들까지 다 공양의 대상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화엄경〉에서는 공양 개념이 확장되어 있다. 높은 곳에 올리는 공양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올리는 공양이다! 보살이 존재하는 곳은 바로 여기다. 높은 분들은 물론, 낮은 사람에게도 공양을 올리는 사람을 우리는 보살이라 부른다.

**공양은 회향이다.**

부처님 앞에 놓여있는 불전함은, 우리의 복을 저축할 수 있는 통장일는지도 모른다. 10원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100원, 1,000원, 혹은 10,000원 ---? 그 액수의 규모는 일정하게 정할 일이 아니다. 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0원이라도 넣고 나서 절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공양을 올리는 행위가, 나의 것을 나누어 갖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회향(廻向)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회향이라는 행위에서, 어떤 성스러움을 발견한다. 그렇기에 회향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이라 하기 어렵고, 불자라고 하기 어렵다.

회향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원한다. 회향이 반드시 다른 존재,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원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이유이다.

나보다 낮은 사람들이나 비천한 사람이



그림 · 박구원

라고 천시되는 사람들에게까지 꽃을 올린다.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한 공양, 즉 회향에는 반드시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함께 염원하는 마음이 담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원하옵건대, 이러한 모든 선근의 공덕으로 일체 중생들이 다 모든 부처님의 삼매의 꽃을 얻어서 청정하게 꽃을 피우고, 그 마음으로부터 진리의 모든 꽃을 피우게 하소서."

이렇게 원하는 것이다. 공양, 즉 회향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 앞에 올리는 우리의 공양이 다시 어떻게 회향되어야 할 것인지, 그 점은 관리자인 승보(僧寶)의 책임이다. 다시 우리 사회의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라 천시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어느 만큼 회향되어야 하는가? 절이나 스님이 회향중개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손기원 박사와 신명나는
여름 청소년 지혜인 캠프
집중력

집중력 High5 프로그램

집중력 향상 (목표의식+명상+만점 자세)
+인성+자기주도학습+자신감+힐링캠프

▶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 21기 : 7.20~7.24 / 22기 : 7.29~8.2 (5일 과정)
단체복, 수료증 (특목고 / 입학사정관제 활용)

☞ 문의: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경영연구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340호

함께 하나되어 변화하는 새로운 종단!
禪大韓佛教 曹溪宗
이땅에 부처님법 뿌리내리고 불교의
진리와 위상을 드높일 종도를 모십니다.

입종안내 제출서류
• 승적원부 (본종입종양식 1통)
• 타종단승려는 승려증 복사본 1통
• 주민등록증 복사본 앞뒤1장
• 사찰전경 내외부 사진 각1장
• 반명함사진 4매 (대가사 수한 사진)
• 승려증,임명장,사찰등록증,지급

승려증만 남발하는 종단이 아닙니다.
이제 이종단 저종단 가입하지 마십시요.
몇몇 종단을 제외하고 등록하신 종단에서
무엇을 지원했는지 생각 해 보십시요.
가입비 및 분담금이 최저이지만 종단
에서 무료 지원 할 수 있는 종목을 최대
한 늘리겠습니다.

총무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
禪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가입문의 : (02) 959-1825
종단사업부 : 070-7391-7767

본 종단은 출판 및 불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으며 그 수익금은 종단 운영기금으로 쓰입니다.

종도가 잘 되어야 종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 "연화세계에서 좋은 소식을 얻었는가"

추사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구 제주 판관으로부터 초의의 편지를 받았다. 그가 말하는 구 판관은 아마도 제주 목사로 재임했던 이원조가 아닐까 생각된다. 〈벽해타운첩〉으로 인해 알려진 이 편지는 초의가 제주에서 뭍으로 돌아간 후인 1844년 가을에 보낸 편지라 짐작된다. 이는 그가 초의의 편지를 받은 지 며칠도 되지 않아 받은 편지였다는 고백에서 드러난다.

"(그대가 계신) 두륜산의 푸른 나무들이 (그대의) 참선하는 자리 사이로 떨어져 있을 것이니 지척 간의 상황인 듯"하다는 추사의 표현은 자신과 초의 사이의 거리가 이리 가까움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으론 최근에 받은 소식임을 이리 표현한 듯하다. 아울러 초의가 보내준 차품과 포장에서 지인의 따뜻한 정을 가슴으로 느낀 추사는 그 감동의 여운이 "오래도록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들의 진실한 우정이 행간마다 전해지는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 사이 구 제주 판관이 돌아감으로 인해 그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불과 며칠 만에 받은 최근의 편지입니다. (그대가 계신) 두륜산의 푸른 나무들이 (그대의) 참선하는 자리 사이로 떨어져 있을 것이니 지척 간의 상황인 듯합니다. 또 그대가 노닐던 부처님의 연화세계에서 좋은 소식을 얻었는가. 나를 위해 말해주길 기대합니다. 가을이 이미 깊었는데 수행의 자리는 편안하며 등화는 맑고 또렷한지요. 참선과 글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늘 바랍니다. 나의 처지는 오히려 입과 코가 고통을 일으킵니다. 고통스러운 코와 입은 (코와 입) 스스로가 아픈 것이고, 고통스럽지 않은 곳도 고통스럽지 않은 곳 스스로가 아프지 않는 것이니 고(苦)와 불고(不苦)는 그 상황에 따라 맡길 따름입니다. 보내주신 차는 모두 다 아름다운 가품(佳品)입니다. 그대와 오랜 차 인연을 이어 (차와 물의 품평을) 다시 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보내주신)포장은 위병을 둔화시키니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이만 8월 29일 나옹

(間因舊濟判官隷回 獲見禪械 是不過數日來近信 頭輪翠色 落在几案間 恰有尺咫之勢 且審瓶錫間 頗遊歷蓮界 得甚好消息歟 爲之翹誦 秋事已晏 團蒲厚安 燈火靑熒 禪誦無輟 念念 此狀尚以口臭作苦 苦處自苦 不苦處 亦自不苦 苦不苦 隨境任之耳 茶甌儘佳 恨不得與師重續竹爐舊緣也 泡醬頓發病胃 且感感 留續 不宣 八月 廿九 那翁)



벽해타운첩의 편지

**"수행자리 편하며 등화 또렷한지요**
**나의 苦와 不苦는 상황에 맡길 따름"**

초의의 소식을 전해 받은 지 며칠도 되지 않은 늦가을, 차와 포장을 받았으니 그 감동은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웠으리라.

"그대가 노닐던 부처님의 연화세계에서 좋은 소식을 얻었는가"라고 한 추사의 언구는 제주에서 차와 불교를 함께 공유했던 초의와의 인연을 담박하게 드러낸 것이다. 늘 벗의 수승한 수행의 경지를 기대했던 그는 "가을이 이미 깊었는데 수행의 자리는 편안하며 등화는 맑고 또렷한지요. 참선과 글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늘 바랍니다"는 것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벗이라 원래 이런 관계이다. 항상 보인(輔仁)과 괄목(刮目)을 도모하는 사이, 이것이야말로 지기가 된 이들의 목표와 가치였다.

척박한 제주의 환경은 추사의 건강을 허용하지 않았다. 코와 입병의 고통을 호소하던 추사가 초의에게 산이화를 보내달라는 간청은 이 병의 고통을 벗어나려는 그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런 절발한 상황에서도 달관된 그의 경지는 "고통스러운 코와 입은 (코와 입) 스스로가 아픈 것이고, 고통스럽지 않은 곳도 고통스럽지 않은 곳 스스로가 아프지 않는 것이니 고(苦)와 불고(不苦)는 그 상황에 따라 맡길 따름"이라고 한 대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더구나 좋은 차를 받은 기쁨은 한없이 컸겠지만 벗과 함께 감상할 수 없음이 한스럽다는 말로 에둘러 표현한 그의 언어적 선택은 추사다운 수사학의 묘미라 할 수 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94년도 보이차茶

**본초강목습유(本草綱目拾遺)**
"보이차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보이차는 장을 원활하게 하여 그 움직임에 걸림이 없게 한다. 보이차는 까만 옷 빛깔과 같은데 술을 깨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보이차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을 풀어주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그 즙을 잘 생기게 하는 바, 그 효능은 참으로 크다. 입안에 목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차고를 5분정도 머금으면 다음날이면 낫는다. 데었을 때도 상처에 바르면 치료된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모채방(思茅採訪)**
"소화를 도와주며 한랭한 기운을 몰아내고 해독작용을 한다."

**백초경(白草經)**
"풍이 생기거나 음식이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화기가 일때.....보이차 두잔을 끓여서 복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운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청나라 오대운(吳大勳)의 전남견문록**
"보이차의 효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다스린다. 막힌 것을 뚫고, 풍한(風漢)을 치료한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이다." 라고 극찬.

**물리소지식(物理蘇知識)**
"보이차는 쪄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서번에서 사 갔으며, 모든 물건을 잘 소화한다."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飮食譜)**
"차는 약하게 쓰고 달며, 찬기운이 있다. 보이차는 맛과 기운이 강하고 세며 구토, 풍, 가래에 좋고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도 치료한다."

94년도 산차 120g
차통(자사) 크기 : 높이 9㎝ × 지름 7㎝
◆ 가액 : 11만원 (택배비 무료)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비첸지오 판매 비취)
  - ▶ B비취 : 원석에 착색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나눔과 봉사의 삶이 SMART한 삶"

이근후 (이화여대 정신과 명예교수)

최근 서점가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은퇴세대를 위한 책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바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이다.

책의 저자인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책 제목 그대로 평생을 즐겁게 살아왔다. 70대 후반의 그는 죽음의 위기를 몇 차례 넘기고 일곱 가지 병과 더불어 살면서도 늘 유쾌함을 잃지 않고 있다. 왼쪽 눈 실명,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협착, 담석, 통풍, 허리디스크를 앓는 '종합병원' 이지만 열정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신체적 고통은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이 먹어 병들고 아픈 건 자연의 이치니까, 거기 맞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박사는 젊은 시절부터 열정적으로 일을 진행했다. 의료진과 가족의 반대에도 폐쇄적인 정신과 병동을 개방 병동으로 바꾸고, 사이코드라마 치료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인 1980년대부터 네팔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그 밖에도 보육원봉사, 시낭송회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원기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근후 명예교수. 이 명예교수는 1995년 정년퇴임을 앞둔 회갑자리에서 제2의 인생에 대해 마음을 먹었다.

"등산을 좋아해서 히말라야에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산 정상에 오르면 아래를 내려보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회갑자리에서 그 점을 절실히 느꼈어요. 정년퇴임 5년을 앞둔 시점이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회학 교수를 한 아내와 의대 교수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교육과 봉사에 매진하자고 큰 줄기를 잡았어요."

이 명예교수는 부인인 이동원(77) 이화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가족아카데미아를 세웠다. 가족아카데미아는 바람직한 가족 모습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100세 시대입니다. 가족 아카데미에서는 스마트하게 나이 들어가자는 스마트에이징을 교육하고 있어요."

이근후 명예교수는 스마트에이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S'는 심플(Simple)이에요. 젊을 때는 상상력도 많고 창의력도 많은데 나이 들수록 단순해야 해요.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서 병이 나요. 그걸 단순화하면 병이 회복되는 거고요. 산속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떠올려 보세요. 도를 깨쳤다는 것은 단순화를 통한 집중력의 발현입니다. 수천 개의 번뇌를 하나로 집약해 에너지화 된 것이죠. 'M'은 무브(Move)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죠. 'A'는 감성적 즉 아티스틱(Artistic)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성이 메말라 갑니다. 어른의 감성은 어린 아이의 순수함을 뛰어넘는 세련된 점이 있어요. 이를 잘 살려야 합니다. 'R'은 릴랙스(Relax)로 일생 동안 앞만 보고 걸어왔으니 이제 여유를 즐기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T'는 함께 하는 삶, 투게더(Together)죠. 불교의 연기법이 바로 투게더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많은 유정무정의 인연 때문입니다. 이런 인연을 잘 살피자는 것이죠."

이 명예교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은 결국 가족의 해체와 개인의 소외에서 비롯된다며 이런 부분에 현대인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네팔의 산에서 만난 힐러리경에 영감 얻어

사실 이 명예교수의 이웃에 대한 따듯한 관심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지난 1982년, 한국산악회가 조직한 마칼루 학술원정대에 대원으로 참여했다가 쿰중에서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오른 힐러리경을 만났습니다. 사비를 털어 오지 주민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을 짓고, 네팔 산림의 황폐화를 막는 자연보호운동에도 앞장서는 그에게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힐러리경과의 만남이 이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 명예교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극빈국인 네팔이지만 네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 수준은 우리의 예상을 상회함을 느꼈다고 힘주어 말했다.

"물질을 여읜 삶이지만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병마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이 명예교수는 1989년부터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해 20년 넘게 매년 1회 이상 네팔의 오지마을과 수도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다. 퇴임 후에는 학교있을때보다 대규모 의료봉사를 할 수 없기에 그는 교류활동을 위주로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병원에 가면 보통 의사들이 질병 외에도 신변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는 환자를 좀 더 이해하고 면밀하게 살피기 위함입니다. 의료봉사를 진행하다보니 네팔 사람들의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1995년 회갑자리서 나눔행 결심**
**가족아카데미아 세워 가족 교육**
**1989년부터 네팔 의료봉사**
**실명 아픔에도 자비행 이어가**
**광명보육원 문화상담교육 진행**
**부처님 법은 주변살핌서 시작**
**자연 순응하는 안분지족이 답**

한편으론 한국에 유학 온 네팔 학생들을 집에 데려와 숙식을 제공해주며 지원하는 한편, 그들이 의사가 돼 고국에 돌아가면 자연스레 그의 의료봉사 활동에 동참케 했다.

이 명예교수는 네팔인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에 온 것이 돈벌이 목적이 돼선 안 된다. 한국에서 얻은 것을 고국에 돌아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곤 한다. 그 덕분인지 그의 강연을 듣고 네팔로 돌아간 사람들 중 학교를 세우고 교장이 된 사람이 다섯 명이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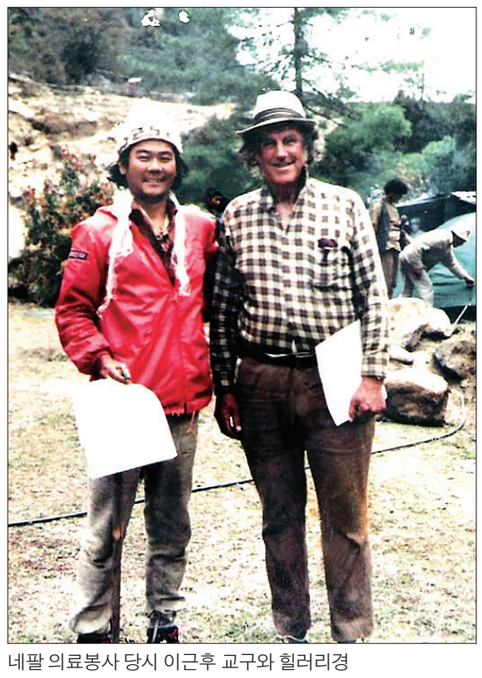
그들을 떠올리는 이 명예교수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렸다. 나눔에 열정을 다하는 이가 지닐 수 있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다. 2003년 의료봉사 후 트레킹 중 왼쪽 눈의 망막이 터져 실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명예교수는 실명 또한 순리라고 담담히 말했다.

"서울 시민들에게 행복한가를 물어보세요. 과연 몇 명이나 행복하다고 답할까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불안 초조함 등에 더욱 시달리고 있어요. 네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답합니다. 자연을 비롯한 환경에 순응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저의 환경과 상황에 순응할 뿐입니다."

## 국내 복지 활동도 꾸준히 진행

이근후 명예교수는 40년째 자신이 이사로 있는 광명보육원을 돕고 있다. 인연은 더 오래전에 맺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이 명예교수의 어머니는 한국전쟁으로 대구에 피난 온 광명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밤낮없이 봉사를 했고 이를 보면서 자신도 어른이 되면 그런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명예교수는 군의관으로 있던 1967년 근무지인



네팔 의료봉사 당시 이근후 교구와 힐러리경




1989년 제1회 네팔의료봉사 때의 모습



**이근후 명예교수**는 … 1935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근후 명예교수는 61년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73년부터 이화여대 의대 신경정신과 교수로 재직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 등을 역임했고 89년부터 네팔-이화 의료봉사단 단장을 맡아 30년 넘게 네팔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95년 사회봉사단체 가족아카데미아를 설립,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정신치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등 40여 권의 저서가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서울 창동 부근에 광명보육원이 있음을 알고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1995년 연세대 교수로 정년퇴임을 하면서 보육원에 3층짜리 건물을 기증했다. 여기에 '환자를 진료할 때 따지지 마라'는 의미의 이 명예교수의 호 '무하'(無何)를 딴 '무하문화사랑방'을 열고 아이들에게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무하문화사랑방에서는 시인과 화가 등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아이들에게 예술 체험 교육을 시킨다. 아이들이 각종 백일장에 나가 상을 휩쓸 정도로 성과가 좋다고 한다.

"예전 보육원에는 부모가 없어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보육원에는 부모가 있음에도 버림받아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버림받은데 대한 앙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앙심을 청소년기에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신과에 오래 있었기에 닫힌 마음을 풀기 위해서는 감성을 건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예술적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2004년부터 네팔 작가들을 초청해 전시전, 공연 등을 펼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시를 올려 청소년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 불교사상이 '힐링', 사회 구석 관심 가져야

이 명예교수는 종교계가 나눔과 사회기여에 대한 자원을 많이 갖고 있으며 특히 불교 자체가 마음공부이기에 현대인들을 위한 상담활동 등의 개척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불교에는 '힐링' 기능이 큽니다. 예전에는 몸이나 마음이 불편하면 절에서 수행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스님들의 법문과 사찰 생활이 하나의 힐링인 것입니다. 불교의례가 힐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내려놓음 등 사상이 힐링인 것입니다. 불교에는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정신과 후배들을 보면 기독교 신자인 이들도 불교공부를 많이 합니다. 2000년이 넘는 경험적 지혜에 과학이 문호를 연 것입니다. 불교계도 의례화 되고 있는 불교문화를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명예교수는 현대사회가 고통스러운 것은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불자들도 목표지향적인 삶을 사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마음의 경계를 넓히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뼈아프게 자성을 해야 합니다. 자성반조하지 않으면 항상 남의 탓을 하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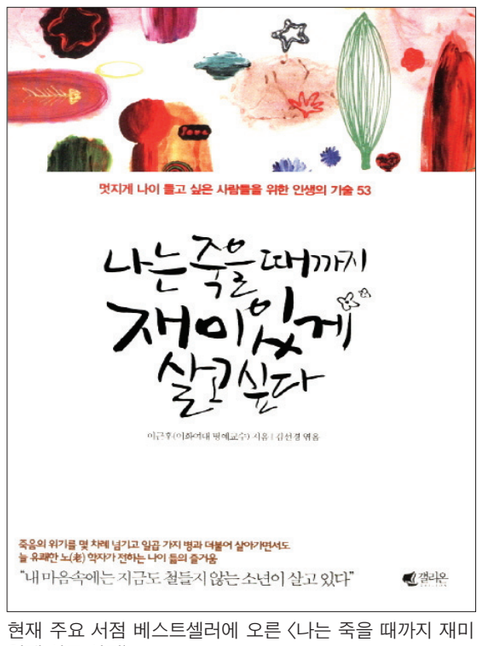
이 명예교수는 불교 핵심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펴는 어른 스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남겼다. 이 명예교수는 이러한 어른 스님이 있으려면 신도들이 먼저 어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2003년 서울 구기동에 집을 지어 4남매 가족 등 3대가 함께 살고 있다. '예티의 집'으로 이름 붙여진 이 집의 가훈 중 하나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나누면서 항상 이웃과 함께 이를 봉사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합니다'이다. 이 명예교수는 자녀는 물론 손자들도 모두 네팔에 다녀오도록 했다. 그 이유는 네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삶과 여유를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불자들이 나 아닌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앞만 보지 않고 주변을 살피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이 아닐까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3년 5월 11일 복지아카데미 특별강연




현재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에 오른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전법일기

# 청년이 서야 불교가 산다

### 대한불교 청년회의 위기

큰일이다. 이러다간 완전히 사라져버릴지 모른다.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대한불교청년회 말이다. 2주 전에 말한 것처럼 대불청 대구지구 관계자들이 우리절 어린이·청소년법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대구는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대구지구 차원의 연합법회는 꿈도 못 꾸고 있고, 지회가 몇 개 있긴 하지만 회원의 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으로 젊은이들의 또래문화에서 불교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게다가 일부 청년회는 누가 봐도 '청년'이라고 할 수 없는 연령층이 이름을 장악하고 있다.

나는 청년회 출신이다. 출가 전에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와 울산지구에서 신행생활을 했었다. 부산에서 활동했을 때는 매주 정기법회 때 7,80명, 울산에 살았을 때는 매주 3,40명 모이는 법회에 함께 했었다.

법회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단연 곡차 모임이었다. 법회가 끝난 후 대부분의 회원들은 단골집에 모여 파전이나 부추전을 앞에 두고 막걸리나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곡차 모임이라고 해서 불교 이야기만 했겠는가. 여느 술자리와 마찬가지로 으레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직장 생활의 애환 같은 게 화제에 오르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빠지지 않았다.

'남자들이 모이면 여자 얘기, 여자들이 모이면 남자 얘기, 남자 여자 모이면 사랑 얘기'라는 말이 있다. 청춘남녀가 모였는데도 사랑이 싹트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청년회일수록 회원들끼리 결혼하는 커플이 많았다. 부부 몇 쌍이 탄생했다는 것이 그 청년회의 자랑인 시절이었다. 물론 사랑이 깨지는 날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취를 감추거나 아예 둘 다 안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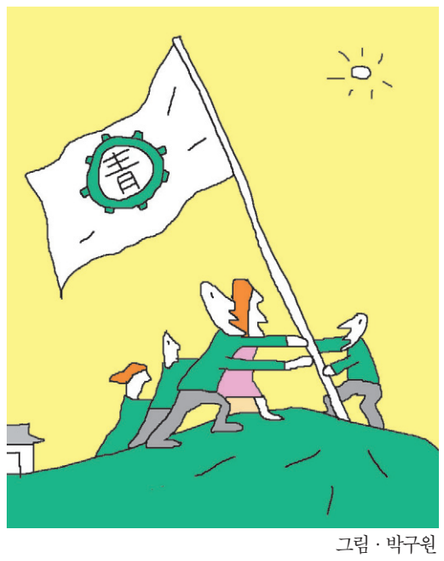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매주 7~80명 모이던 청년 법회**
**출가자도 나오고 회원끼리 결혼도**
**명맥 유지하는 대불청에 관심절실**

청년회는 때때로 호법신중의 역할도 했다. 타종교에서 '심령대부흥회'를 하면서 불교비방 전문 목회자를 초청한다는 현수막을 내걸면 회원들이 교회로 몰려가 행사를 저지하기도 했을 정도로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초파일에는 밤을 꼬박 새며 등불을 지켰고, 제등행렬 때 대열의 중심에서 커다란 목탁을 치면서 행렬을 이끌기도 했었다. 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회원들은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동참하여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냈다.

청년회 출신 중에는 나처럼 출가하는 사람도 심심찮게 나왔는데, 어느 청년회에서 몇 명의 스님이 나왔는가 하는 것은 청년회 회원들의 원력과 신심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다.

내가 이처럼 길게 청년회 경험을 늘어놓는 이유는 우리 절집에 청년회를 다시 일으켜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젊은이들은 '청년이 서야 불교가 산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당시 청년들이 불교의 미래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컸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청소년법회가 활성화 되면 청년회는 저절로 잘될 것이다. 긴 세월동안 투자하기 어려운 절에서는 일단 청년회를 만들어 미혼 남녀가 모여 함께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절에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힘겹게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대불청 각 지구와 지회를 위해 사부대중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할 때다.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 종류 | 일반전구 | 찬덕 LED 전구 |
|---|---|---|
| 소비전력 | 10W | 2W |
| 효율 | 10 lm/w | 50 lm/w |
| 연간전기료 | 2146원 | 429원 |
| 수명보장 | | 30,000 시간 |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중국 템플스테이' 1천여명 참여 주목

중국 저장성의 한 사찰이 시범적으로 기획한 '중국판 템플스테이'에 1000여 명의 희망자들이 몰려 해당 사찰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 일대에 화제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을 선보인 사찰이 저장성 일대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소규모 사찰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는 반응이다.

인민보 영자판(secretchina.com)은 7월 9일 "저장성 씨엔사(寺)가 7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수행자로 살아보기(To Live As a Buddhist Monk)'라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동중국해 연안 일대의 지역 주민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씨엔사의 템플스테이는 3개월에서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찰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수행자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내 씨엔사에서 숙식과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가져와 공부를 하거나 일상의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미 한계를 초과한 상태라 더 이상 희망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전한 시지두(Shi Zhidu) 스님(씨엔사 주지)은 "사찰에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전해오는 사람들에게 사찰의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전화벨이 좀처럼 자자들지 않고 있다"며 "중국인들이 출가 체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장성 씨엔사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 수행자 체험에 100여명이 몰려와 주목을 받고 있다.


씨엔사 내부. '수행자로 살아보기' 참가자들이 사용하게 될 공간.

**中 저장성 씨엔사 '수행자로 살아보기' 프로그램 선보여**

**허름한 소규모 시설에도 '출가체험' 줄이어**

또한 스님은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중에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며 "어떤 청년의 경우, '강변을 걸으며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며 '사찰에 머물며 그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계기를 찾고 싶다'고 부탁했다"며 "그런 전화를 받고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에 집어넣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지두 스님은 "'수행자로 살아보기'는 부처님의 삶을 그대로 옮겨보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불성을 일깨워보자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인민보 영자판은 "탬플스테이 참여 희망자들은 '영혼을 정화하고 자아를 찾기 위해', '의지를 다지고 영혼의 안식처를 찾고자', '그릇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등의 이유로 씨엔사에서 '출가 체험'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민보 영자판은 저장공상대학교(Zhejiang Gongshang University)의 마 리앙(Ma Liang) 교수의 말을 인용, "이번 씨엔사 현상은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극심한 불안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가를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들은 학업과 과업의 압박에 시달리며 결코 챙길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씨엔사가 처음 선보인 '수행자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서 그 단초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美 위스콘신 주방위군 첫 군승 임명

**크리스토퍼 모어(Christopher Mohr) 중위…32여단 배치**


미국 위스콘신 주방위군 사상 첫 군승으로 임명된 크리스토퍼 모어(Christopher Mohr) 중위(사진 왼쪽). 주방위군 군단장 더글라스 플리치프레서(Douglas Fleischfresser) 대령(사진 오른쪽)이 모어 중위에게 32보병여단 베지를 달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 주방위군 사상 첫 군승이 임명됐다고 DVIDS(dvidshub.net) 지가 7월 11일 보도했다. 주방위군은 7월 10일 포트맥코이(FortMcCoy)에서 크리스토퍼 모어(Christopher Mohr) 중위의 군승 임명식을 성료했다.

이날 주방위군 군종 서약에 서명한 후 32보병여단에 배치, 군종 장교로서 복무하는 모어 중위는 여단 지휘관들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장병들의 도덕관과 윤리관을 다지는 한편 장병들과 교류하며 마음챙김을 통해 군 평정심을 찾는 데 힘을 더할 예정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타인의 안전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군인들에게 최상의 가치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모어 중위는 "일주일에 한번 대중 법회를 봉행하며 명상을 통한 마음챙김의 시간을 모든 장병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위스콘 주방위군 군종단장 더글라스 플리치프레서(Douglas Fleischfresser) 대령은 "주방위군에 첫 군승이 영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병들의 영적 다양성에 부응한 군의 결단은 장병들의 인성을 곤고히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밝혔다.

32여단 존 리터(John Reiter) 사령관은 "군종은 장병들의 마음의 건강함을 지켜주는 보루"라며 "모어 중위가 장병들의 인격교육, 자살예방, 정신수양을 통해 행복한 군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이 크리라 생각한다"며 기대를 보였다.

모어 중위는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학위를 받고 불교로 개종, 불교법사로 활동하며 입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마하보디 사원서 폭탄 테러…무슬림 소행으로 추정

**7월 7일 인도 보드가야, 경미한 피해 입어**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가 있는 인도 마하보디 사원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사원 근처에 설치된 13개의 폭탄 중 10개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티베트와 미얀마 두 명의 승려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원 또한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고 보리수도 무사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보드가야에 테러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각으로 7월 7일 새벽 5시30분 무렵. 마하보디 사원을 중심으로 반경 2km 안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인 힌두신문에 따르면 폭탄은 사원과 25미터 불상, 보리수 주변 등에서 터졌으나 문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폭탄은 테러에 흔히 사용되는 재료인 질산암모늄, LPG 등으로 만들어졌다.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 테러에도 질산암모늄 폭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직 터지지 않은 3개의 폭탄을 해체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이른 아침 시간에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인도 당국은 미얀마의 극단적 무슬림들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미얀마에서 불교 신도가 무슬림을 탄압한데 대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보복차원에서 이번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 그러나 유일한 단서인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용의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다 얼마 전 12명의 몽타주를 완성해 배포했다.

사원 근처에서 커피숍을 운영중인 라케시 쿠마르씨는 "첫째 폭탄이 터지고 사원은 검은 포화에 휩싸였다. 사원 근처에서 사원에서 그런 공포는 처음 본다. 정말 두려웠다."며 당시를 전했다.

인도인구의 8%만이 불교신자지만, 보드가야는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장소로 신성시 되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매년 세계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다. 사고가 있은 다음날 50여 명의 승려는 평화를 기원하는 의식을 집전하고 일반인에게 사원을 재개방했다.


7월 7일, 불교성지 인도 보드가야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마하보디 사원 앞에 무장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폭탄 테러가 있은 직후 인도 수상 만모한 싱은 "종교적 장소에 대한 어떤 테러도 용납할 수 없다"며 "다양한 문화가 섞인 인도는 모든 종교에 대한 존중을 중요시해왔다"며 테러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달라이 라마 또한 "평화의 장소가 공격당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고 복수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자"고 사람들에게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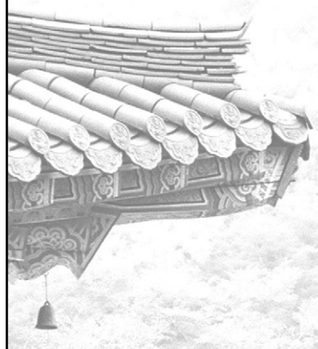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언덕에 작은 상자…4만 여 스님들의 수행처**

중국의 가르체(Garze) 티벳자치주 셜타르카운티(Serthar County)에 있는 라렁갈(Larung Gar) 계곡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불교연구소'가 있다고 '메일 온라인(Mail Online)' 지가 최근 보도했다. 메일 온라인 지가 주목한 부분은 1만2천500피트의 고도에 앉은 티벳사원인 설타르불교연구소(Serthar Buddhist Institute)를 중심으로 라렁갈 계곡을 가득 매운 수천여 채의 목조가옥. 이곳에는 4만여 티벳스님들과 티벳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먼 이국에서 찾아온 학자들과 학생들이 살고 있다. 메일 온라인 지는 "척박한 환경도 결코 막을 수 없는 '티벳불교 연구열정'"이라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공 고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 중

전문 카이로 프락터 양성

1. 교과목
중추신경계 31쌍의 영역 장기 및 근육 통증, 척추질환, 행동제한의 정상화, 현대질병 퇴치, X-RAY 판독법, 테크닉.

2. 대 상
의료기관 종사자, 의사, 물리치료사, 대체 의학 의술인, 체육관련 종사자, 스포츠 마사지사, 피부미용사, 봉사활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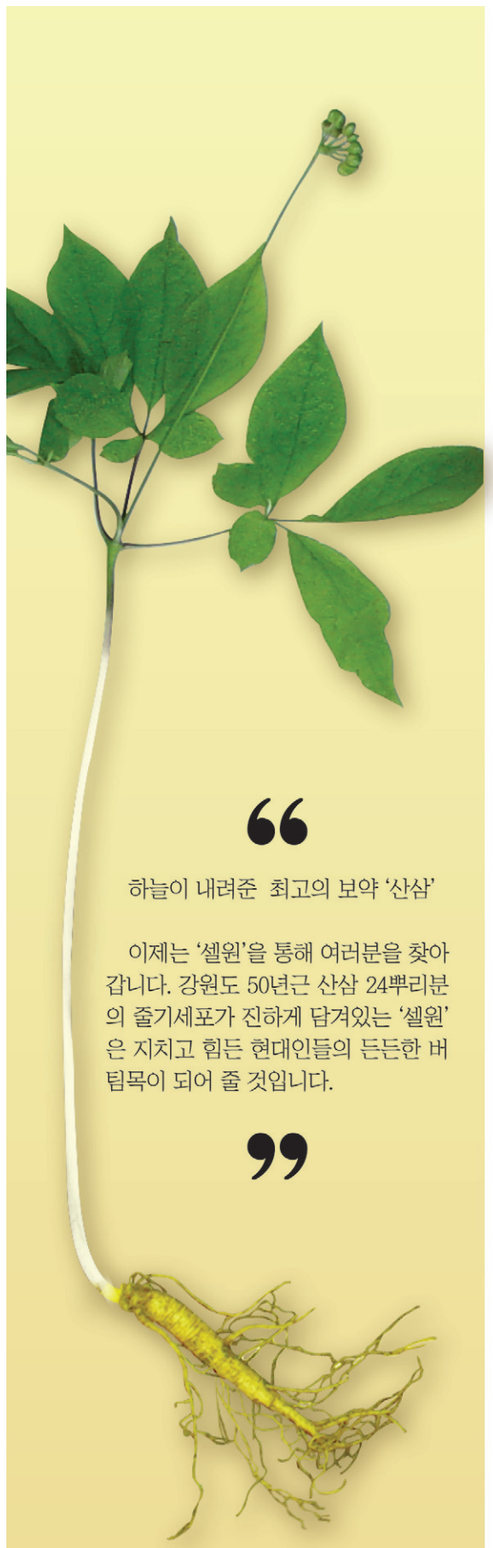
3. 기 간
미국 팔머 대학 교재 직강.
주 1일 2개월.

4. 일 시
2013년 7월 23일 13시
▶공개강좌 수강 후 신청 접수(선착순 15명)◀

5. 특 전
- 장학생 교육비 면제.
- 전문강사 배출.

사단법인 국제사회교육원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75-7, 화이트탤 709호(2호선 서울대역 4번출구)
기업은행빌딩 7층 02-861-2833 국제문화사회교육원
HP : 010-7179-1060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보약 '산삼'

이제는 '셀원'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분의 줄기세포가 진하게 담겨있는 '셀원'은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중국 최고의 약효 서적인
신농본초경 [神農本草經] 에 수록된

## '산삼의 7가지 효능'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은 중국 최초의 약물학에 관한 전문서적으로 本草經(본초경), 本經(본경)이라고도 불린다. 이 책은 '산삼' 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산삼의 맛은 달고 차며 주로 보하는 것은 오장을 편하게 안정시키고, 혼백을 진정시키며, 놀라고 두근거리는 것을 멈추게 하고, 사악한 기운을 제 거하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려 지혜가 더해지며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장수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산삼이 사람에게 이로운 일곱가지 효과가 있다고 한다.

■ **보기구탈(補氣救脫)** : 원기를 보하고 허탈을 다스린다. 심신의 기운을 돋우어 허약한 체질을 개선시키는 체력을 증진시키고 피로 회복에도 매우 좋다.

■ **익혈복맥(益血復脈)** : 혈액에 이롭게 하고 맥을 고르게 한다. 체내의 혈액을 왕성하게 생성케 함으로써 항상 혈액순환을 고르게 하고 신체의 기능이나 발육을 개선시킨다.

■ **양심안신(養心安神)** :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 마음을 편안히 해주고 정신을 안정시켜 줌으로써 심장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신경쇠약이나 노이로제, 스트레스 등의 해소에도 효과적이다.

■ **생진지갈(生津止渴)** : 체액을 보충하고 갈증을 해소한다. 체내의 체액을 보충하는 한편 갈증을 해소케 함으로써 비장 기능의 강화와 함께 당뇨병에도 매우 큰 효과가 있다.

■ **보폐정천(輔肺定喘)** : 폐 기능을 보하고 기침을 멈추게 한다. 폐의 전반적인 기능을 보호해줌으로써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 기능을 강화시켜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하다.

■ **건비지사(建脾止瀉** : 위장기능강화 및 개선) :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설사를 멈추게 한다. 위장기능을 보다 튼튼히 해줌으로써 식욕을 촉진시켜줌과 동시에 배탈 등의 위장계질환과 예방에 효과적이다.

■ **탁독합창(托毒合瘡)** : 체내 독을 제거하고 종기를 삭혀준다. 체내에 내재되어있는 독기를 제거해줌으로써 피부를 곱게 하고 몸에 생기는 종기 등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

### 기력회복 / 노화방지 / 면역력 강화 / 위·간 보호 등에

# '진짜 산삼'이 최고입니다!

### 몸에 좋은 것은 많지만 '진짜 산삼' 만 하겠습니까?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분이 진하게! '셀원' 출시!

◆ **죽을 사람도 살린 영약 '산삼'**

고려시대 동복현 유천리에 거주하던 최(崔)씨 성을 가진 사람이 죽을병에 걸렸다. 여러가지 약을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산신령에게 남편의 병이 완치되도록 기도를 올리던 어느날, 꿈 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모후산에 가면 영약이 있으니 그것을 먹으면 살 것이다." 라고 일러 주었다. 아내는 산신령이 알려준 곳에서 사람과 비슷한 약초를 발견하여 남편에 게 먹였더니 병이 완치되었으며, 그 종자를 재배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삼을 재배하게 된 시초라고 한다.

◆ **고려 '태조왕건' 의 보물**

이처럼 '산삼'과 관련한 수많은 전설들이 내려져 온다. 산신이나 호랑이 등 영물이 지키고 있으며, 효자의 정성에 감복하여 선물로 내려주는 등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온다. 그만큼 '산삼'은 구하기가 힘들어 일반인들의 삶 속에서는 그저 '전설속의 명약'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명약이다. KBS에서 인기리에 방영했던 '태조왕건'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백제국 견훤왕의 부친인 아자개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때, 고려에서 산삼을 가지고 찾아온다. 이를 복용한 아자개는 며칠동안 비몽사몽하였지만 깨끗하게 나았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 **50년근 산삼의 신비**

이처럼 산삼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 가장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삼'과 '장뇌삼', '산삼배양근'이다. 산삼의 경우 조절작용이 뛰어나 체질에 관계없이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삼 등은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용에 무리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신기술이 나왔다. 산삼의 '줄기세포' 만을 순수하게 분리·배양하는 기술(특허 제10-1064518호 / 저장근을 가지는 초본 식물의 형성층 유래 식물줄기세포주 및 이의 분리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이 신기술을 통하여 '한국산삼감정협회' 에서 인증한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의 줄기 세포를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이는 강원도에서 채취한 50년근 산삼의 효능·효과를 유전적 변이없이 100% 완벽하게 복제한 것으로 실제 산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산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50년근 산삼 24뿌리 '셀원'**

강원도산 50년근 산삼 24뿌리가 담겨있는 '셀원'은 그 동안 극소수만이 누려왔던 산삼의 효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특허 받은 기술을 통해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 24뿌리분을 추출하여 한병 한병에 진하게 담아냈다. 섭취와 흡수에 좋은 액상형태 '셀원'은 하루 1병씩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니 진정 '하루에 산삼을 한 뿌리씩' 먹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옛날 왕들조차 이루지 못했던 불로장생의 꿈을 현대에 와서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셀원'을 통해 하루 산삼 한뿌리를 먹는 특별함을 느껴보도록 하자. 온 몸에 넘치는 활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상담문의 : 080-810-8100

**각종 특허와 언론보도를 통해 효과 입증**
**'한국산삼감정협회'에서 인증한 50년근 산삼**
**산삼 줄기세포 - 산삼의 효과 100%일치**




"식물줄기세포는 분열조직이라 불리는 특수 구조안에 존재하며, 매우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진다. 이들은 수백 년동안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기관을 생성할 수 있게 한다."

nature 415, 751-754(2002)

- 특허 제 10-126315호 산삼줄기세포 노화방지 및 용도 특허
- 특허 제 10-1128953호 산삼줄기세포 암의 예방 및 치료용도 특허
- 특허 제 10-1179171호 산삼줄기세포 간질환 예방 및 치료용도 특허 외 다수

▲ 국내에서 개발한 식물줄기세포분리, 배양기술은 2010년 11월(네이처)지 표지논문으로 실렸습니다. 네이처지는 전세계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분야 학술지입니다.

##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 관심 받아




SBS KBS MBC YTN Discovery CHANNEL

▶ **SBS 8시 뉴스**
"세계 최초 식물줄기세포 분리 • 배양, 한국이 해냈다."

▶ **KBS 9시 뉴스**
"식물줄기세포 분리 • 배양 세계 첫 성공"

▶ **MBC 9시 뉴스**
"나무도 복제 • 식물줄기세포로 항암제 생산"

▶ **YTN 뉴스**
"식물줄기세포 분리 • 배양 첫 성공"

▶ **디스커버리채널**
2011년 다큐멘터리 3편 제작, 세계 30여개국에 방영

## | 셀원 관련 인증서 |

'셀원' 에 담긴 원천기술은 2010년 10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 에 논문으로 게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소개되고 학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유일의 식물줄기세포 원천기술로서 국내·외 엄격한 평가기준을 통해 그 기술적 성과가 높고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1년 12월

Green Certification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기술인정
2011년 2월

NET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NET 인증)
2011년 12월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08년 8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9001

(ISO 9001 품질인증)
2007년 9월



한국산삼감정협회 50년근 삼삼인증서

## 세계가 놀란 '산삼줄기세포'
## 숨겨진 놀라운 진실, 속속 드러나...



◀ 산삼배양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 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산삼은 피로회복, 면역력증진, 정력증진, 위·간 보호 등에 뛰어나며 사포닌이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 이상 포함되어 있다. 과거부터 신비의 명약으로 불리며 신성시된 약초로 시중에서도 찾아보기 매우 힘들 뿐더러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최근 식물줄기세포를 세계최초로 분리 배양한 특허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계적으로 권위있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의 표지논문으로도 게재된 바 있는 이 기술을 '동양의 신비' 로 불리는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에 접목한 것이다. 그결과 산삼의 줄기세포인 '산삼배양세포' 에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신규 물질이 다량 발견된 것이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이 산삼배양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 보호 등의 유효 활성 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분이 진하게! '셀원'

#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

**산삼줄기세포 셀원 으로 만나는 확실한 변화!**

50년근 산삼의 신비 「셀원」 의 출시를 기념하여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만나보기 어려웠던 50년근 산삼의 신비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300분에 한정하오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셀원'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항상 지치고 피곤하신 분
- 기력이 떨어지고 힘에 부치는 분
- 병이나 수술 후 기력회복이 필요하신 분
- 손발이 차고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
- 평소 술과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
- 잔병치레가 많으신 분




· 제품명 : 셀원 · 주요원료 : 산삼배양세포 추출물, 가피타히보추출물, 영지추출물, 참당귀추출물, 솔잎 추출물, 복합황금추출물 외 · 제품구성 : 1박스 20ml×30병 · 제조원 : (주)에이지아이생명과학

상담문의 080-810-8100

## “실용적 조형으로 불교예술의 대중화 선언”

### 청원 스님 장학기금 마련 전시회…인사동 라메르 갤러리서



부산 강서예술촌서 작업중인 청원 스님.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채색개금불상과 금니채색도자기 등 총 200여점을 선보인다.

불상조각의 대가 청원 스님(동국대 경캠 불교미술학부 교수)이 후학양성을 위한 동국대 장학기금 모금 전시회를 개최한다.

청원 스님은 7월 24일~30일 서울 인사동 라메르 갤러리에서 채색개금불상과 금니채색도자기 등 총 200여점을 선보인다.

스님은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적 소산은 팔만대장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예술과 불교조형예술에 펼쳐진 문화적 소산 역시 불교를 떠받치는 소중한 가치”라며 “이를 위해 불교예술을 이어가는 인재발굴과 후학양성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불교예술인 후학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이 작업중인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에 위치한 강서예술촌은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었다. 청원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는 불상 제작시 사용했던 채색개금 장엄기법의 모티브를 접목한 도자기 작품들을 대거 선보인다”며 “불교 조형을 대중화시키고 실용성을 담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보기에도 도자기의 장식이 아주 화려하다. 도자기라기보다 마치 채색 개금 불상의 화려한 장엄을 보는 듯 금니채색의 화려함이 이미 불상 장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보인다. 또한 종류에 있어서도 병, 합, 필통, 조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학 양성에는 더욱 힘이 든다고 전한다.

스님은 “국내 불교 조각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머물렀다. 이런 상태로는 후학양성이 힘들다. 불교미술의 전통적 계승만큼이나 불교예술인들의 삶의 질을 담보해 줄 대중성과 실용성을 갖춘 문화예술 상품 개발과 해외 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전시회에 처음 선보일 금니채색 도자기들은 오랜 고민과 연구의 성과”라

#### 불상 · 도자기 등 200여점 선보여

#### “불교예술인 후학양성 매진”

며 “관공서, 기업 등에서 기념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0호 목조각장으로 등재된 청원 스님은 불교전통예술에 대한 남다른 집념과 후학양성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청원 스님은 지난 1981년 지리산 칠불사 삼존불과 영산전 후불탱화 등을 모두 조각으로 표현한 바 있으며, 2001년부터 부산 강서구에 강서예술촌을 만들어 문화재 수리 기능 인력양성에 힘쓰고 있다. 향후 문화재 전수를 위한 전수관을 계획중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김양희 · 이준형 ‘좋은 인연’ 발표

성악가이자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김양희와 테너 이준형의 듀엣 음반 ‘좋은 인연’을 발매됐다. 불음포교를 위해 30여 년 동안 정진해온 두 사람은 불교계 유일의 오페라단인 바라 오페라단의 단원으로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오세암’ ‘아미타불’ ‘에밀레! 그 천년의 연가’의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동해왔다. 이번 음반에서도 두 사람은 각자의 색깔과 역량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김양희 이준형은 불교학생회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찬불가를 통한 불음 포교




의 원력을 갖고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는 포교사이기도 하다. 이번 음반에서는 이종만 작곡의 ‘좋은 인연’을 타이틀곡으로 덕신스님이 작사한 ‘연꽃 피어오르리’ ‘부처님 오신 날’ 등 다양한 찬불가를 만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 한지로 만나는 이색 전시

# 10만 약사여래불 중생 위로하는 콜라주로

### 원진 스님 개인전 7월 17일~22일까지 인사아트센터서



원진 스님

“속가의 어머니가 아픈 모습을 보고 약사여래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10만 부처님을 그리며 세상의 병든 이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세상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싶다는 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약사여래불 10만불이 오색의 콜라주 작품으로 탄생했다. 원진 스님(청도 보갑사 주지)의 개인전 ‘당신은 부처님이예요’가 7월 17일~22일까지 인사아트센터 3층 제1특별전시관에서 열린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원진 스님은 출가를 하고 나서부터는 붓을 놓았다. 출가 수행자의 모습답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던 어느날 문득 그림을 그리는 일과 수행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다시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렇게 기존의 풍경 정물 등의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스님의 붓은 약사여래불로 향하게 된다. 속가의 아픈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스님은 그 시간 동안 세상 모든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중생의 아픔을 다시한번 알게 되었으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처음에는 속가의 어머니가 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자비를.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같은 마음만 가진다면 싸움할 일도 다툴 일도 없을 겁니다.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은 부처님과 다름없죠. 그 자비를 부처님 표정 속에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한지 위에 혼합재료를 사용해 그려낸 부처님은 10만불이 되었다. 스님의 작품은 이즈음 다시 새로운 생각으로 이어졌다. 갖가지 색과 표정의 부처님을 새로운 형태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

#### 속가 어머니 위로하고자
#### 10만 부처님 그리기 발원
#### 중생이 곧 부처님임을 깨달아

고 그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내고자 했다. 노랑 파랑 흰색 등의 바탕 위에 10만 약사여래불을 하나 하나 붙여 나가자 16점의 콜라주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만법귀일’은 만다라 형식으로 퍼져 나가는 부처님을 통해 “모든 법은 나부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나오고 들어오기도 한다. 내가 있어야 모든 법이 있고 그 법은 사라지기도 한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스님은 전한다.

‘당신이 부처님이예요’는 모두가 주인공임을 말해주고 있다. “작품 중간에 유리를 붙여서 관람객들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도록 했어요. 나도 부처님이고 너도 부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모두에게 좋은 에너지가 있고 참 주인공이라는 마음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주인공임을 깨달으면 세상이 좀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스님이 작품에 몰두하는 동안 스님의 속가 어머니는 이승의 옷을 벗었다. 최근 어머니의 49재를 치른 스님은 어머니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세상으로 회향했다. 이제 스님은 대중들에게 그림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알려 주고자 한다.

“앞으로도 제 작품은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를 통해 스스로가 치유될 수 있는 불교적 마음치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원진 스님은 동국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아카데미 드 라 그랑드 쇼미에르’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영담한지미술관 닥섬유조형미술 특강을 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약사여래불을 닥종이에 혼합물감으로 표현한 원진 스님의 ‘당신은 부처님이예요’. 중생의 아픔을 위로하는 10만불을 그려 콜라주 작품으로 완성했다.

# 동서양 한지예술 한눈에

### 한미 작가 24명 한지미술전 7월 17일~22일까지



영담한지박물관 관장 영담 스님

한지는 무한한 우주가 되었고 한없이 평화로운 자연으로 탄생해 우리의 감성을 촉촉히 적신다. 한지의 다양한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있어 눈길을 끈다. ‘한미현대작가 한지미술전’이 7월 17일~22일까지 인사아트센터 3층 제3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미국과 한국의 작가 24명이 참여해 한지 미술의 새로운 세계를 연다. 영담한지미술관(관장 영담 스님) 특별기획 중 하나로 열리는 ‘한미현대작가 한지미술전’은 2012년 레지던스 작가로 한국을 방문했던 해외 작가 12명, 그리고 한국의 한지 미술작가 12명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전시는 동서양의 표현의 차이는 물론 한지의 다양한 오브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를 주최하는 영담한지박물관 관장 영담 스님은 “작가들에게 아주 두꺼운 장지에서부터 아주 얇은 하늘종이까지 3종류의 전통한지를 주며 작품으로 표현하게 했다. 특히 미국 작가들은 처음 접해 보는 한지를 받아들고 매우 기쁘고 신기해했으며 서양적 그림 기법으로 한지 고유의 특성을 살려 작품으로 승화했다”고 전했다.

한국 작가로는 영담 스님, 원진 스님, 임효, 이홍원, 이영, 김호연, 허만욱, 문은희, 이민자, 박학성 등이 참여한다.

한편, 사찰종이 연구와 한지미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영담 한지박물관은 영담 스님의 작품 2000여점과 한지작가 작품 15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미쉘 리의 ‘Well cooked men’

BORYUNG
장건강(쾌변)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www.boryung365.com
NAVER 장쾌장
쾌변! 하루1포로 배변을 시원하게!
전 알로에로 만든 장쾌장 덕분에 정말 좋아요! 매일 아침이 상쾌하거든요!
장속은 세균들의 전쟁터! 장내에는 100조개의 세균들이 살고 있으며 유익균과 유해균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장(腸) 건강! 이제부터 편안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신없이 세수하고 출근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출근시간, 등교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도 불편한 장때문에 화장실에 들러야 안심이 되는데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시간이 너무 걸려 아침마다 정신이 없다. 오래도록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가스가 차거나 아랫배가 항상 묵직하다. 화장실에서의 한바탕의 소동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되풀이 되다보니 배변활동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다.
굵고 시원하고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령의 야심작 장쾌장 탄생!
금번 보령에서는 배변활동에 원활(장건강)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보령 장쾌장을 출시함으로서 고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일으키고 있다.
장쾌장의 핵심성분인 알로에 전잎은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이 인정되었다. 알로에 전잎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성분으로는 polysaccharides와 glycoprotein, aloin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특히 aloin은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aloin이 소장에서 유액의 배출을 촉진시켜 Na-K-ATPase의 활성을 억제하거나 점막 투과율을 상승시켜 대장활동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였다.
보령 장쾌장은 먹기 편하게 환으로 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장쾌장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운동의 리듬을 유지하여 자연스런 배변습관을 되찾는데 도움을 준다. ‘장쾌장’은 섭취후 빠른 시간내 배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보령 장쾌장으로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보내세요.
50년 전통의 보령에서 장건강을 위해 출시한 보령장쾌장! 주문하는 즉시 택배로 보내준다.
보령 장쾌장은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보령장쾌장’ 후불제 판매 전격실시!
보령장쾌장에 함유된 안트라퀴논계는 장 점막을 자극하여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제품의 확실한 자신감으로 후불제 판매를 전격 실시합니다.
이제 ‘장쾌장’과 함께 가볍고 시원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무료전화 : 080-800-7575
1박스 구입시 1박스를 더 드립니다.(300셋트한정)
“장(腸)이 편안해야 온몸이 편안합니다”
묵직하고 잔변감이 남아있는 아랫배, 보령 장쾌장이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원료명 및 함량]
알로에아보레센스(무수바바로인 30㎎/g) 와 차전자피분말, 이눌린/치커리추출물, 다시마분말, 사철쑥분말, 유산균혼합물, 퉁퉁마디분말, 밀크씨슬추출물, 삽주뿌리 등이 이상적으로 배합되어 장(腸)이 불편한 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릴 것입니다.
‘선착순 300셋트 특별 할인판매 中!’
하루 1포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 평소 장 기능이 약하신 분
▶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가스가 잘 차는 분
▶ 늘 책상에 앉아 활동이 적은 직장인
▶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
▶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
▶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아랫배가 묵직하신 분
▶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남아 있으신 분
▶ 활동량이 적어 장의 연동운동이 부족하신 분
규칙적인 장운동
장쾌장
• 구 성 : 장쾌장 (5g×60포) 2개월분
공급원 BORYUNG 보령수앤수 판매원 O2net
주문전화 080-800-7575

# 서양 따른 용어 혼란 미술사학은 쇠락의 길로

##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 팔메트→제3영기싹 넝쿨모양 영기문 (상)



지금까지 인동당초문을 3회에 걸쳐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인동초란 원래 덩굴이어서 인동당초라고만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미술사학에서는 굳이 인동당초라 부릅니다. 실은 인동당초가 아니고 제3영기싹을 전개시킨 생명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영기문임을 이제 아셨지요? 그런데 인동은 무엇이고 팔메트는 무엇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팔메트! 서양미술사학에서 흔히 쓰이는 매우 중요한 용어가 어찌하여 동양미술사학의 중요한 용어가 되었을까요? 그런 일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동서양 미술품 모든 장르의 어디서나 나타나는 아름다운 무늬이며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과연 그 팔메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동서양의 팔메트는 뿌리가 같은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일까요? 도대체 팔메트는 무엇을 상징은 하는가요? 단지 종려나무인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양의 팔메트는 잘못 붙여진 용어이며, 동양과 서양은 같이 팔메트라 불러도 각각 전혀 다른 조형임을 알게 될 것이다.

Palmette(팔메트)는 사막지역에 많은 종려나무인 Palm(종려나무)의 축소형인데 그 나무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동서양미술에 그토록 많은가요? 그토록 중요한데 동서양 미술사학자들조차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일까요? '이또츄타'라는 일본 건축가의 원로가 인동(忍冬)을 팔메트라고 번역함으로서 우선 '첫 번째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왜 그는 허니 서클이라는 영국에서 쓰는 인동초를 팔메트와는 전혀 다른 식물인데 팔메트라고 번역했을까요? 프랑스와 독일에서 쓰는 용어인 팔메트와, 영국에서 쓰는 용어인 허니 서클(인동초)은 각각 다른 것인데 왜 서양에서는 같은 조형을 두고 나라마다 다른 식물로 부르는 것일까요? 더구나 동양학자들은 그 두 가지를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무비판적으로 따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같은 조형이지만 인동초라고 하지 않고 굳이 팔메트라고 부르는 조형이 따로 있으니 항을 달리하여 다루기로 한다. 이런 습관도 이상하지 않은가?

팔메트라고 하면 우선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 '아크로테리온'이란 용어는 그리스-로마의 신전(神殿)의 지붕 위에 장식하는 채색기와나 조각상이나 만병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꼭대기'란 뜻이다. 앤시미온(anthem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박공의 꼭대기나 구석을 장식하는 것으로 주로 팔메트 모양이 많다. 그런데 그 모양이 넓게 확산하는 모양이 종려나무와 같다고 하여 팔메트란 명칭으로 불린 이래 지금까지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널리 쓰이고 있다. '팔메트(Palmette)란 나무는 없고, 팜(Palm)이라는 종려나무를 가리키나 종려나무를 무늬화한 조형을 팔메트라 부르고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내가 처음으로 본 것은 그리스 첫 여행에서 본 수니온의 아폴로 신전의 동쪽 페디먼트(박공)의 중앙 꼭대기에 장식했던 아크로테리온이었다. 처음 그 조형을 보았을 때 팔메트가 아니고 영기문임을 직감하고 가슴이 벅차 두근거렸으며 그 후 8년 만에 채색분석하여 보니 감개가 무량하다.(그림 ①-1, 그림①-2) 높이 1미터 50센티인 그 조형은 기본적으로 갖가지 제3영기싹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2영기싹 갈래 사이에서 만물이 화생하는데 만물을 삼각형 모양으로 상징했다. 즉 영기화생한 만물에서 다시 영기가 발산한다는 영기화생(靈氣化生)의 원리에 의해 길게 발산하는 영기 가닥들을 노란 색으로 칠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발산하는 추상적 영기문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긴 잎처럼 확산하는 종려나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팔메트라는 용어를 만든 것이다.(그림 ②) 보이지 않는 영기를 구상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형태가 여러 가지인 까닭이 거기에 있다. 만일 종려나무 잎이라면 한 가지 조형으로 나타내야 했다.

가장 간단한 아크로테리온은 하나의 단위 무늬를 이루는 것으로 가장 많다.(그림 ③ 원래 색이 없는 것을 필자가 채색분석한 것) (그림④, 그림⑤ 고대의 원래 채색을 살린 것) 모두가 기본적으로 제3영기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갈래 사이에서 나오는 만물을 상징하는 조형에서 길게 아름답게 뻗쳐나가는 것은 잎이 아니요, 발산하는 영기를 조형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 그리스-로마의 건축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아크로테리온에 집약되어 있다.

특히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의 아크로테리온은 높이가 무려 4미터!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인데 역시 장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 '아크로테리온이 제우스 신전의 신과 신전이라는 우주의 축소에서 발산하는 영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서양미술사는 영기화생론을 모르고는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림 ⑥-1, 그림⑥-2) 맨 위의 아름다운 곡선들은 결코 종려나무인 팔메트가 아니요, 영기문이다. 영기문은 무엇이나 아름답고 유려하다.

그리스 신전에서 발산하는 강력한 영기를 밝히게 된 것은, 내가 한국의 공포와 지붕 위의 갖 가지 용과 보주의 상징을 풀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 ①-1 수니온의 포세이돈 신전, 동쪽 페디먼트의 중앙 아크로테리온, 기원 전 440년경. 영어 설명, tendrils(덩굴), acanthus leaves(아칸서스 잎) and anthemia (anthemion의 복수, 인동당초)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갖가지 제3영기싹 넝쿨모양 영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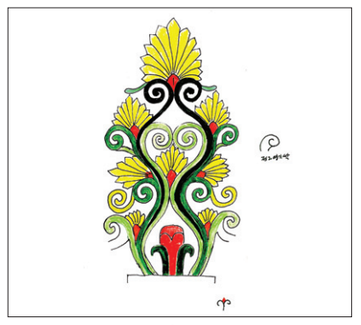


그림 ①-2



그림 ② 종려나무



그림 ③ 채색분석, 노란 색으로 칠한 것이 영기문이며 잎이 아니다



그림 ④



그림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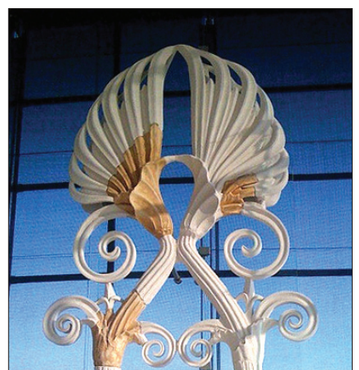


그림 ⑥-1 파르테논 신전의 아크로테리온, 기원 전 438년 경, 대리석, 높이 4미터




그림 ⑥-2

## 藥이 되는 사찰음식

# 평상에 앉아 먹는 '쌈밥'이 그리운 날



### 쌈밥

△재료(4인 기준)

○ 보리밥 - 멥쌀 1컵, 찹쌀 1/2컵, 늘보리 1컵

○ 옥수수밥 - 멥쌀 1컵, 찹쌀 1/2컵, 깐 옥수수 2컵

○ 모듬쌈 - 당귀, 쌈배추, 겨자잎, 케일 등

△만드는 법

① 보리밥 - 늘보리는 빡빡 문질러 씻어 2시간 정도 불린 후 1.5배 정도의 물을 부어 보리밥을 먼저 지은 후 20분 정도 불린 멥쌀과 찹쌀에 1.2배 정도의 물을 부어 밥을 짓다가 물이 자작해지면 보리밥을 넣어 같이 뜸을 들인다.

② 옥수수밥 - 옥수수는 삶은 후 알맹이를 발라 놓고 20분 정도 불린 멥쌀과 찹쌀에 1.2배의 물과 옥수수 알맹이를 넣어 밥을 짓는다.

### 여러 가지 쌈장

△재료(4인 기준)

○ 약고추장 - 고추장 1컵, 과일즙(사과, 배, 파인애플) 1컵, 생강즙 3큰술, 간장 2큰술, 꿀 1큰술, 참기름 2큰술, 잣 3큰술

○ 견과류 쌈장 - 된장 1/2컵, 고추장 2큰술, 맛국물 1/3컵, 다진홍고추 2큰술, 다진 청고추 3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1큰술, 견과류 1/2컵(호두, 잣, 호박씨, 잣)



○ 강된장 - 된장 3큰술, 표고버섯 3장, 호박 50g, 호박잎 5장, 홍고추 1개, 청고추 2개, 청량고추 2개, 맛국물 2컵

○ 꽈리고추 쌈장 - 고추장 1/2컵, 맛국물 1/3컵, 매실청 3큰술, 생강즙 1큰술, 간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꽈리고추 100g

△만드는 법

① 약고추장 - 냄비에 고추장과 과일즙, 생강즙, 간장을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다가 약간 무른 정도의 농도가 나면 꿀과 참기름을 넣고 불을 끈다음 그릇에 담고 잣을 올려낸다.

② 견과류 쌈장 - 냄비에 약간의 기름을 둘러 다진 홍고추, 청고추, 된장, 고추장을 넣고 볶다가 맛국물을 부어 끓인다.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고 불을 끈 후 그릇에 담고 다진 견과류 올려낸다.

③ 강된장 - 표고, 호박, 청홍고추는 잘게 썰고 호박잎은 끓는 물에 데친 후 잘게 썰어 냄비에 넣고 볶다가 된장과 맛국물을 부어 자작하게 끓여낸다.

④ 꽈리고추 쌈장 - 냄비에 고추장과 맛국물을 넣어 볶다가 농도가 나면 매실청, 생강즙, 간장을 넣고 끓이다가 1cm 정도의 길이로 썬 꽈리고추를 넣어 숨이 죽을 정도로 익으면 참기름과 통깨를 넣고 불을 끈 다음 그릇에 담아낸다.

### 보리쌀, 콜레스테롤 저하·정장 작용

여름이 무르익어 가는 이맘때쯤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 앉아 텃밭에서 갓 뜯어 온 갖가지 야채와 구수하고 칼칼한 여러 가지 쌈장에 갖지은 잡곡밥을 싸 먹는 쌈밥이 그리워진다. 푹 불려 무르게 지은 보리밥과 햇옥수수를 넣어 지은 밥은 입 안 가득 톡톡 터지는 단맛이 일품이다. 보리쌀에는 점착성 섬유질인 글루칸이 들어 있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을 주고 정장작용에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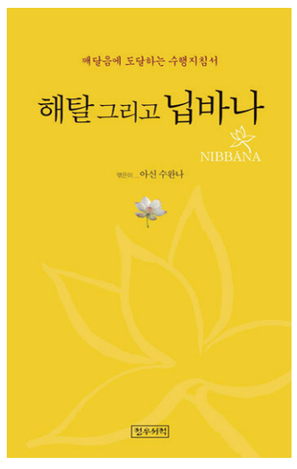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해탈 그리고 닙바나 화제의 신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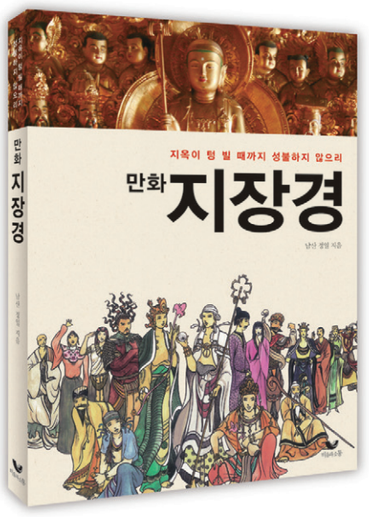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 될 것이요, 범부중생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태종사 조실 도성영공. 추천사 중에서–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퇴현 전재성박사 추천사 중에서–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닙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




우란분절 법보시 특별할인!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리
만화 지장경
정일선사 지음
46배판 | 흑백 | 304쪽 | 12,800원

정일 선사, 지장경 300독 후 '이뭣고?' 화두 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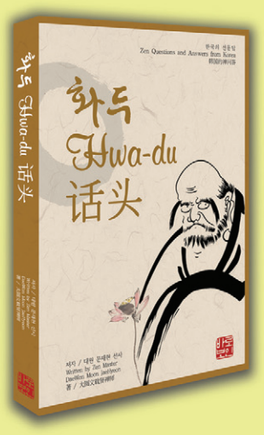
지장경은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한 대승경전. 갖가지 신통력으로 아수라, 지옥, 아귀, 육도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려는 지장보살의 큰 서원을 말씀하신 경이다. 조계종의 대표적인 선사인 故 정일 스님(선학원 이사장, 보광사 조실 역임)은 생전에 〈지장경〉 300독 독송을 통해 불심과 신심, 효심을 배양하고 이를 참선수행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강조해 왔다. 이 만화는 정일 선사가 직접 감수한 책.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tong (02)2632-8739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1번째 저서 출간!

* 화두




현재 31종 61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 한영중 3개국어판 〉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 바로보인 선문염송 22권

전30권 중 제2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031-534-3373 / 010-9043-1016

# 인물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군자의 삶, 그림으로 배우다**
조인수 지음
다섯수레 펴냄
1만9천8백원


서산대사 진영 · 작자미상, 18세기


화담대사 진영 · 작자미상 19세기


김명국 작 달마도 17세기

다섯수레가 펴내고 있는 〈아름답다 우리 옛 그림〉 시리즈 3번째로 '인물화' 편이다. 한국 회화사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인물화 50점을 선정하여 인물화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 준다.

'태조 이성계 초상', '고종', 신윤복의 '미인도', '화담대사의 진영', '서산대사 진영', 이경윤의 '탁족도', '왕생자를 극락으로 맞아들이다, 아미타삼존도', '선재동자를 만나는 관음보살, 수월관음도', 김명국의 '달마도'에 이르기까지 책은 다양한 인물화를 통해 인물의 이력과 일화, 초상화를 그리게 된 동기, 그림의 용도와 활용 등을 소개하고, 발문이 있는 경우 주인공과의 연관성을 자세하게 소개하여 한층 더 흥미롭게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나라 옛 그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산수화지만, 그림이 처음 나타나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인물화였고, 당시는 인물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림 기법에서도 먼저 발달한 인물화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내용으로 하므로 보는 이에게 윤리를 중시하는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에 높은 수준으로 발달했고,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화풍과 내용이 변하면서 초상화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화가 꾸준하게 그려졌다. 생활과 사상, 문화 등 시대의 관심사가 표현된 인물화는 역사의 기록이자 자화상이다.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여러 가지 인물화를 초상화, 고사인물화, 도석인물화로 나누어 대표적인 작품들을 살펴본다. 그림에 담긴 이야기와 이를 아름답게 표현한 화가들이 뛰어난 솜씨를 통해 삶과 혼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인물화에는 실제의 인물을 그린 초상화, 상류층 여인을 아름답게 그린 사녀도, 일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풍속인물화, 도교의 신선이나 불교의 부처와 보살 같은 종교 인물을 그린 도석인물화 , 역사 속 인물의 유명한 이야기를 다룬 고사인물화가 있다.

조선 시대에는 유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이념이 되고 사회를 유지하는 사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교훈을 전달하는 인물화가 크게 유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도교와 불교가 유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인물화도 많이 나타났다. 종교 행사 때 사찰을 장식하는 화려하고 커다란 불화나 도술을 부리고 불로장생하는 신선도가 유명한 화가들에 의해 그려졌다. 이렇듯 인물화는 정치와 사상을 배경으로 하면서 종교적 믿음과 도덕적 신념을 잘 나타내 주는 그림이다.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초상화'를 다루고 있다.

'초상화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초상화가 많이 그려진 조선 시대에는 주인공의 모습을 '터럭 하나라도 틀림없이' 그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외형적인 유사함 못지않게 정신과 기품을 나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여러 번의 변란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조선 왕조의 분신 같은 존재가 된 '태조 어진', 당시 최고의 솜씨를 자랑하던 이명기가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 준 '오재순 초상', 채용신이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 준 '최연홍 초상' 등을 소개하고 있다.

2장에서는 '고사인물화'를 다루고 있다. 고사인물화의 주제는 역사 속 인물, 신화와 전설, 문학 작품의 주인공과 함께 도교와 불교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그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보다는 삶의 교훈을 주려는 교육적 목적이 큰 그림으로 김명국, 정선, 김홍도, 장승업 같은 뛰어난 화가들이 다양하게 그렸다. 숙종이 극찬한 이명욱의 '어초문답도', 국화처럼 청정한 선비의 마음을 표현한 정선의 '동리채국', 속세를 떠나 자연을 벗 삼고 독서로 살아가는 선비의 모습을 담은 이재관의 '오수도' 등을 통해 옛 이야기와 함께 인물들의 배경 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3장에서는 '도석인물화'를 소개하고 있다. 불교를 숭상하던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불화가 많이 그려졌지만 초기에 다소 쇠퇴했다가 조선시대 후반부터 번성했다. 도교 관련 그림은 신선도가 대부분으로 김홍도, 심사정, 장승업이 신선을 소재로 흥미로운 작품을 많이 남겼다.

화려한 색상과 짜임새 있는 구도로 종교를 넘어선 빼어난 작품인 국보 제218호 '아미타삼존도', 관음보살의 자비로움이 잘 나타나 있는 '수월관음보살도', 김명국의 '달마도', 심사정이 걸인의 모습으로 불로장생한 신선 이철괴를 그린 '절름발이 신선 이철괴', 젊은 김홍도의 솜씨가 유감없이 드러난 국보 제139호 '군선도'를 소개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영혼', 비즈니스 리더십에 적용

### 내 길에서 걷고 있는 영혼을 만나다

**리G. 볼먼/테렌스 E. 딜 지음 | 권상술 옮김**
**IGMbooks 펴냄**



"현대의 기술만능주의 사고는 우주에 사람을 보내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게 만들었지만,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주거나 일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리더십에 확신과 성실성을 심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이 바로 영과 혼의 탐구입니다."

책은 인류가 단기간에 성취한 물질적 풍요 이면에 나타난 양극화, 고용불안과 실업, 노사갈등과 도덕적 해이, 세계 최고의 수준의 노동시간과 자살률 등 '풍요'의 부작용들이 가져온 인류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고찰이다. 특히 리더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무력감에 빠진 기업 경영자 스티브 캠던이 멘토인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 영적인 여행을 떠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룬 '이야기' 부분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생각거리를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한 '통찰'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류는 계속되는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9.11테러를 비롯하여 끊임없이 자행되는 테러는 앞서 언급한 부작용의 한 단면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문명을 지탱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는 오히려 문명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온실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엔론, 월드컴, AIG, 매도프 등의 불법 행위, BP의 기름유출 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일련의 비즈니스 리더들의 도덕적 해이와 근시안적인 시야가 만들어낸 결과들이다. 2008년에 발생한 경제위기는 전 세계인의 의망을 산산이 부숴버렸고 인류를 두려움과 경제적 불안에 빠뜨렸다. 저자는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이 표류하고 있는 작금의 세태는 신념과 희망, 그리고 영감에 찬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책의 목적은 위의 사태들이 발생하게 된 인류의 일터에 깨달음과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애절한 외침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인류는 이에 따른 병리현상을 치유하려는 이른바 '힐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책은 진정한 힐링은 단순한 위로나 일과성 격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책은 그 힘을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리더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종교나 명상 분야서 다루어지던 '영혼'이라는 개념을 비즈니스 리더십에 적용했다. 특히 시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의 영혼에 대한 성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해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나도록 독려하고, 자신의 영혼을 회복한 다음에는 타인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3 ~ 7/9

| 순위 | 도서명 | 저 자 | 출판사 |
|---|---|---|---|
| 1 | 닦는 마음 밝은 마음 | 김재웅 | 용화 |
| 2 | 스님의 주례사 | 법륜 | 휴 |
| 3 | 깨달음 | 법륜 | 정토출판 |
| 4 |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 서암 | 정토출판 |
| 5 | 이해하고 내려놓기 | 일묵 | 궁리 |
| 6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혜민 | 쌤앤파커스 |
| 7 |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월호 | 마음의숲 |
| 8 |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탁낫한 명상 | 틱낫한 | 불광출판사 |
| 9 | 이렇게 말씀하셨다 (완역 잡아함경) | 김윤수 | 한산암 |
| 10 | 경봉선사 연구 | 정도 | 운주사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 우란분재 왜 7월 15일에?

### 우란분재

**대한부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원연구실 지음**
**조계종 출판사 펴냄 | 4천원**



백중의 깊은 의미와 우란분재의 참뜻을 알리기 위한 책이다. 기존 소책자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 보강하고 〈부모은중경〉 변상도를 함께 실어 부모님 십대은의 감동을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개정판이다.

음력 7월 15일 백중날엔 우란분재를 지낸다. 왜 그날 우란분재를 지내게 된 걸까. 부처님이 우란분재를 7월 15일로 정한 데는 불교적 의미가 있다. 경전을 살펴본다.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에 13일, 14일은 택하지 않고 왜 꼭 7월 15일을 택하십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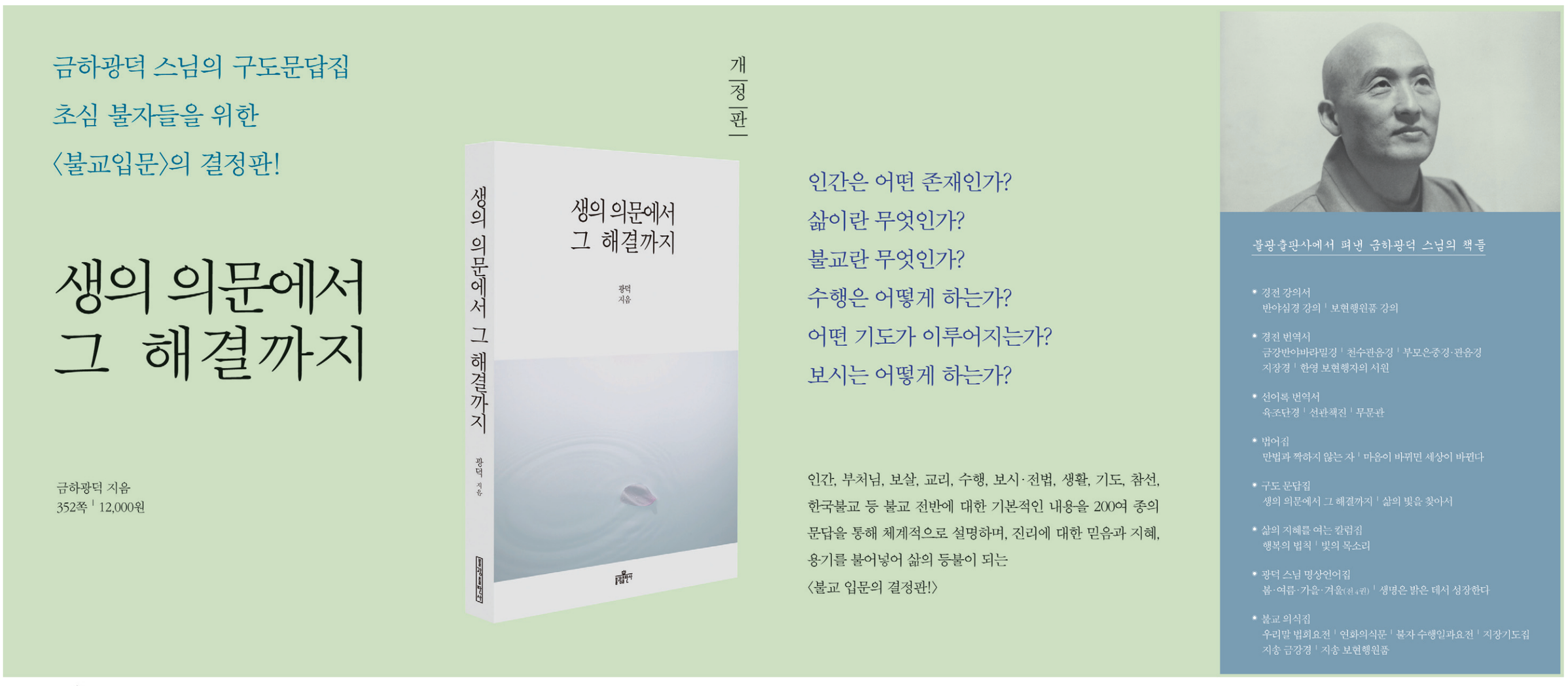
"목련아 7월 15일은 모든 스님들이 여름안거를 마치고, 자자를 하는 날이라 즐겁게 한곳에 모이니 너의 어머니를 천도하여 정토에 태어나게 하리라."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은 가정과 사찰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였다. 각 가정에서는 익은 과일과 채소로 조상의 사당에 천신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마련하여 춤과 노래로 하루를 즐겼다. 절에서는 재를 올려 부처님께 공양하고 불자들은 우란분재를 베풀어 스님들을 공양하고 조상의 천도재를 올렸다. 그리고 공덕을 짓기 위해 방생을 하거나 선행을 했다.

우란분재는 출가자로서는 석 달의 안거를 마치고 자유로이 행각하며 또 다른 수행의 길을 모색하는 해방의 의미가 있고, 공덕의 가피를 입은 영가들로서는 업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종교적 해방의 의미가 있다. 또한 목련존자의 지극한 효심과 아울러 대중스님들의 거룩한 공덕의 힘이 불자들로 하여금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법회이기도 하다.

우란분재를 지내는 날을 '우란분절'이라고 하는데 우란분절은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중요한 행사다. 우란분이란 〈우란분경〉에 나오는 말로 범어 울람바나의 속어형에서 파생된 역어이다. 번역하면 도현(倒懸), '거꾸로 매달린다'는 뜻이다. 〈목련경〉을 보면, 중생이 지옥에 떨어질 때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업풍에 날려 거꾸로 매달려 가는 것이 나오는데 이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거꾸로 매달린다는 것은 곧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지옥과 아귀도에 떨어진 중생이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서서 생활하는 인간이 거꾸로 매달린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부자유스러운 상태를 나타낸다. 육체의 부자유, 정신의 부자유가 바로 도현이다. 부자유와 고통으로 이루어진 지옥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이다.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받고 있는 선망부모, 시방의 유주무주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재를 베풀어 구한다는 의미가 있다.

백중날에 우란분재를 행하면 현재의 부모는 수명이 백 년이고 병이 없으며, 모든 고뇌와 근심이 없게 하고, 과거 7대의 부모는 아귀의 고통을 떠나서 천상이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복과 낙이 다함이 없게 된다고 한다. 또한 중생들의 전도된 가치관 즉, 어리석어 세상을 잘못 보고 거꾸로 착각하는 중생심을 버리고, 지혜의 자성광명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거꾸로 살아 온 자신의 모습들, 즉 세속의 가치를 쫓아 참된 가치를 버리고 있었던 일이나 자신의 이익을 타인의 행복을 짓밟았던 일, 부모님에게 불효한 일이나,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일 등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세우는 데 참뜻이 있다고 책은 설명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 옛 시 85편에 흐르는 인문의 향기 전해



**일 줄이고 마음 고요히**
**흥선 지음**
**놀와 펴냄**
**1만 6800원**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이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옛시를 골라 번역하고, 거기에 소소한 일상과 감흥을 붙인 에세이집이다. 저자가 박물관장을 지냈던 직지성보박물관 홈페이지에 '한시 한 소절'에 올렸던 글들을 추리고 다듬었다. 이 시들에는 자연과 사람에 대한 애정, 삶에 대한 성찰이 정갈하게 담겨져 있다.

책의 마지막부분에는 한 장씩 정성껏 고른 종이에 옛 시의 원문과 번역문을 일일이 적은 반듯한 손글씨 모음도 곁들여 직접 손 편지를 받아보는 듯한 친근함도 전해준다.

저자의 손을 거쳐 간택된 시는 총 85편이다. 그 안에는 시성(詩聖)으로 불리는 중국 최고의 시인 두보도 있고, 여류 시인 설도도 있지만 김시습, 휴정대사, 삼의당 김씨, 박지원, 김정희 등 선지식을 비롯한 우리의 옛 문인들의 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고 시구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지는 않는다. 그저 세심하게 언어를 고르고 호흡을 가다듬어 옛 시를 낭송해주고 거기에 스며든 저자의 맑은 감성을 전한다.

**"앞 산 뒷 산 흰구름/동서 시내 밝은 달/스님은 좌선하고 꽃비는 지고/나그네는 잠들고 산새는 울고"(휴정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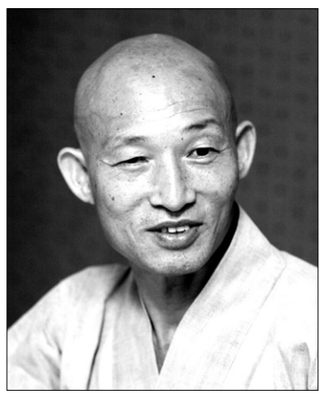
"봄이면 연초록 물결이 온 산을 번져 오르고, 화락화락 부치는 대로 정직하게 바람을 선사하는 부채에 기대어 여름을 지내며, 가을에는 짓붉은, 붉은, 노오란, 샛노란 단풍잎들이 마당을 뒤덮고, 겨울 채비를 끝낸 저 산 위로 눈이 쌓이고 바람이 지나가고 별과 달이 찬 빛을 뿌릴 것을 기다린다."

특히 "때글때글 쏟아지는 햇살" "꾀꼬리가 한 번 울면 능소화 한 송이가 벙글고" "소물소물 작은 삶의 무늬들" "시누대 서걱이는 소리, 낙숫물 토드락거리는 소리" 등 저자 특유의 소담하고 예쁜 말들이 공감각적 심상을 불러일으키며 잔치를 벌인다.

지금은 잊혔거나 홀대 받는 옛말, 순우리말, 방언 들이 제자리를 찾은 듯 빛이 난다. 책 안에 계절의 변화가, 자연의 아름다움이 넘치도록 가득하다.

자연을 바라본다는 것, 계절의 변화에 온몸을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 감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세상의 움직임에 섬세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가다듬는 것이며 사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저자는 자연의 생명력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관계의 망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을 관조한다. 그리고 "고요한 물과 묵묵한 돌이 만나 온 산을 울리는 우레 소리 내듯" 우리도 남과 만나며 다른 날, 다른 하늘을 열고 있는지 물어온다.



**휴정대사, 두보 등 문인들 시 소개**
**직접 손글씨로 원문과 번역문 수록**

우리를 허덕이게 하는 일과 감정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 옛 시를 통해 건네는 저자의 에세이가 혼탁한 우리 삶에 맑은 바람, 푸른 바람을 불어넣는다.

옛 시를 계절별로 나눠 실었다고 했지만, 사실 그 이상이다. 예를 들면 연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윤선도, 주돈이, 안민영의 연꽃을 거쳐 요사부손의 하이쿠, 경주 흥륜사터 석조에 새겨진 글귀로까지 이어진다. 또는 우리의 손발을 잠시 묶어놓는 게 장마의 미덕이니 "공작산 수타사로 물미나리나 보러" 가자며 김사인의 시 '장마'를 읽어주는 식이다.

적절한 위치에 들어간 고전의 한 구절, 시 한 소절은 글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산속 절집에 사는 지은이에게선 옛 선비를 만난 듯 인문의 향기가 느껴진다.

책을 사계절, 네 부분으로 나눈 사이들 속에는 지리산 화엄사의 홍매, 안동 제비원의 도라지꽃밭, 부여 가림성의 감국, 눈보라 휘몰아치는 청양 대숲을, 넓게 펼쳐지는 종이에 담아 글과 더불어 계절감을 남김없이 생생하게 전한다.

또한 옛 시의 원문과 번역문을 또박또박 적은 '손글씨 모음'을 책 말미에 본문과 차별되는 재질감 있는 종이에 곁들였다. 저자의 정성스런 배려들이 고즈넉한 옛 시들과 어우러 따스하게 전해진다. **김주일 기자**

**▲저자 흥선 스님은?**

1974년 직지사로 출가해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직지사 성보박물관 관장, 불교중앙박물관 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직지사 주지이자 문화재위원이다. 스님은 제 4회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결혼 생활서 죽음에 대한 통찰까지 인생 조언 총망라

**슬프고 웃긴 사진관**

**아잔 브람 지음 | 각산 스님 옮김 | 김영사 펴냄**
**1만3천원**



이 책은 세계적인 영적 스승 아잔 브람이 생에 대한 빛나는 통찰과 웃음을 통해 슬픔과 불행을 한순간에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 에세이다.

이 책의 밑바닥을 흐르는 생에 대한 탁월한 통찰은 '죽음 콘서트' 편에서 잘 나타난다. 아잔 브람은 1951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덕분에 레드 제플린이나 롤링 스톤스 같은 전설적인 그룹들의 콘서트에 다닐 수 있었는데, 그는 콘서트가 끝나고 돌아오는 런던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이 음악을 다시는 못 듣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거나 울지는 않았다. 대신 그런 멋진 음악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감이 밀려왔다. 열일곱 살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느낀 감정도 그때의 콘서트와 똑같았다. 슬픔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훌륭한 분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 행운이었고, 영광이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슬픔은 죽었다는 상실을 보는 것이고, 콘서트는 함께 지냈던 시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것은 인생의 많은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놓아버림'의 명상과 더불어 결혼과 독신, 동성애 문제, 직장생활 등 생활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어느 날, 한 자매가 상담을 하기 위해 절로 찾아왔다. 언니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그런데 동생은 결혼을 하지 못해서 걱정하는 사람이었다. 아잔 브람은 두 자매에게 해법을 주었다. 먼저 독신자인 동생에게 말했다.

"당신의 언니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필요 없다면서 헤어지겠다고 합니다. 당신은 남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 이제 그럼 서로 바꾸세요. 자매들은 항상 공유하지 않습니까? 서로 나누십시오."

그 다음 진지하게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언니에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결혼 생활의 고통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남편을 버리고 이혼하다면, 당신 동생이 가지고 있는 독신녀의 고통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놓아버림 명상'으로 해법 제시**
**바라는게 없을 때 행복 찾아와**
**'협력'은 직장서 행복 위한 필수요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없어지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지고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지고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만족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이것은 싫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원해'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직장 생활에서는 통제하고 일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조언한다. 좋은 상사는 오후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다. 자기 권한을 넘겨줄 줄 아는 것이다.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을 믿는 것이다. 남을 통제하려는 건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방법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축구팀처럼 팀을 꾸려서 협력하는 방법이다. 스타 선수 한 명은 결코 최고의 팀이 될 수 없다. 좋은 감독이 열한 명의 선수를 하나의 팀으로 만든다. 좋은 팀워크가 만들어지면 뛰어난 기량을 가진 스타 선수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하나의 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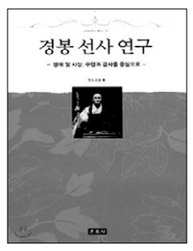
회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회사Company'라는 말에 담긴 의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회적인 기술들을 배워야 한다. 해야 할 일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워주는 기술 말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경봉선사의 삶과 선풍 체계적으로 연구 조망

**경봉선사연구**

**정도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7천원**



경봉 선사는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고승 중 한 명이다. 그는 간화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통도사를 중심으로 가람수호와 교화에 남다른 업적을 남겼다. 또한 근현대 불교개혁 과정에서도 정신적인 중심이었으며, 당대 고승들과도 서신 및 법거량을 통해 독자적인 선풍을 남겼다. 경봉 스님은 선사로서뿐만 아니라 시인으로서, 화가로서, 서예가로서도 유감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근현대 역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통도사 강원 강주와 주지, 선학원 이사장과 극락호국선원 조실로 주석하면서 대중 교화에 힘써 한국 현대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 책은 이러한 경봉 선사의 삶과 사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의 선풍(禪風)을 체계적으로 드러내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근현대 한국불교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기획됐다.

이 책은 경봉 선사의 생애와 선사상을 조망하고, 한국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선사의 위상, 선사가 한국 불교교단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하여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다섯 주제로 구성했다.

첫째, 경봉 선사가 살았던 불교계의 현실과 그의 구도자적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기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불교계의 동향, 경봉 선사의 생애를 네 단계로 나눠 고찰하고, 그가 지은 〈법해〉 〈삼소굴일지〉 〈삼소굴소식〉 〈원광한화집〉 등의 저서들을 하나씩 분석한다.

둘째, 경봉 선사의 선사상은 한국 선사상사에 있어서 누구의 선사상을 계승하고 있는가이다.

여기서는 먼저 경봉 스님의 선사상은 보조 지눌의 선교일치와 간화선 사상을 계승한 것이라 논증하고 있다.

그리고 경봉 스님의 서신왕래를 분석해 보조 지눌대사의 사상을 계승한 용성 및 한암 스님의 선교겸수와 돈오점수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를 창조적으로 실천했음을 고찰하고 있다.

셋째, 경봉 선사 선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세 가지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먼저 경봉 스님의 선리관(禪理觀)은 종밀이 분류하고 지눌 스님이 〈절요사기〉에서 제시한 직현심성종(直顯心性宗)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증론에 있어서는 보조 지눌 대사서부터 백파 긍선을 거쳐 경허에까지 이어지는 돈오점수의 간화선을 채택하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선풍에 있어서는 철저한 생활선적 선풍을 견지하였음을 밝힌다.

넷째, 경봉 선사의 수행과 결사의 내용인데 경봉 스님이 선과 교를 아우르는 선교겸수의 입장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수행과 법문을 실천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출재가들이 함께 수행하는 다양한 결사를 조직했음을 설명한다. 즉 만일참선결사, 만일염불결사, 화엄산림법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섯째,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경

**철저한 생활선적 선풍견지**
**선교겸수의 확고한 신념 펼쳐**
**간화선대중화, 교단개혁 공적**

봉 선사의 위상은 무엇이며, 그가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이다. 먼저 경봉 선사의 위상에 있어서는, 한국불교의 성격을 '회통'으로 봤을 때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있어서 보조, 휴정, 경허로 이어지는 회통불교의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교겸수, 선정쌍수 등의 회통적 특징을 발휘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간화선 전통을 대중화하여 생활선적 간화선풍으로 펼쳤으며, 수행전통을 회복하고 교단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아냈다.

불교계에 끼친 영향으로는, 간화선 대중화에 기여했으며, 수행처와 포교원을 설립하고 다양한 대중법회를 열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선화와 선묵 전시회를 통해 중생교화와 불교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책은 경봉 선사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고, 선사가 한국불교사와 현 불교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깊이 있게 조망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을 위해 손수 지은 선화와 선묵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해설함으로써 경봉 스님의 생활선적 선풍과 예술적 깊이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했다. **김주일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왕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신라와 고구려·백제와 가락 역사의 보물창고



도쿄대학에서 간행한 20세기 최초 신활자 〈삼국유사〉. '왕력' 부분은 가독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홀대 받지만, 이를 읽어야 전체적인 삼국유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

1. 역사와 연표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한 시대를 기록하는 일이다. 한 시대 속에 투영되어 있는 자신의 유전인자, 즉 자신의 혼과 얼을 만나는 일이다. 역사가는 다양한 사건들이 빚어내는 불협화음들을 일정한 사관에 의해 하나의 하모니로 이끄는 지휘자와 같다. 각 '점'(點)들이 빚어내는 사건들과 그 점들이 연속되어 이어가는 '선'(線)들의 흐름, 그 흐름들이 중중무진으로 얽어내는 '망'(網)들과 그것이 빚어내는 다면적 의미망들의 덩어리인 '입체'(立體)로 사서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서가 탄생하기까지는 기록과 유물과 유적 및 기억 등의 사료 채집과 사관 정립 및 시대구분과 연표작성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통사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역사서에 대한 교육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예지를 통해서 현재의 자기를 성찰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일연(一然, 1206~1289)은 출가한 선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전문화와 역사전통에 대한 남다른 시선을 지녀왔다. 그는 선종의 여러 전적들을 접하면서도 조사들의 계보와 가풍 및 그들의 살림살이와 사고방식에 대해 남다르게 주목을 해 왔다. 수행의 기쁨[禪悅]을 느끼는 틈틈이 대장경을 두 번이나 열람하였고, 여러 불학자(家)들의 장소(章疏)를 깊이 연구하였다. 또 유가의 서적들을 두루 읽고 제자백가의 글도 겸하여 읽었다. 국사에 추대되면서 충효(忠孝) 개념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해법 및 불교적 국가관과 윤리관의 확보도 주요과제로 삼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삼국유사』 편찬을 기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략하나마 최치원의 「제왕연대력」을 참고하고 제자들의 도움을 얻어 만든 「역대연표」로 역사 기술의 근거로 삼았다.

연표(年表)는 말 그대로 역사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도시화한 표이다. 『삼국유사』 제1권에 편재된 「왕력」은 역대 왕의 출생과 즉위 및 치세를 중국 연대와 비교 서술하여 기록한 연표이다. 일연은 제일 왼쪽에 중국 연표를 두고 '신라'와 '고구려' 및 '백제'와 '가락'(駕洛)의 순서로 적었다. 이는 신라 중심이 아니라 역사 기록상 가장 먼저 재위한 신라의 제1대 박혁거세(B.C.E. 57)를 앞세운 것일 뿐이다. 그 다음에 건국한 고구려의 제1대 동명왕(B.C.E. 37)과 백제의 제1대 온조왕(B.C.E. 18), 그리고 가락의 제1대 수로왕(C.E. 42)의 출생과 즉위 및 세계(世系)와 치세(治世) 등을 적고 있다. 중국 연표는 국가명과 황제명 및 연호와 연호 유지 기간 등을 적었다. 이에 상응하여 신라의 시조 혁거세(赫居世) 마립간의 재위기간에 해당하는 전한 선제(宣帝)로부터 기록하여 신라 경순왕과 고려 태조 및 후백제 견훤시대에 대응하는 당말 5대 10국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황제명과 연호를 적고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왕력」 이후에 유목을 나타낸 것은 「기이1」, 「기이2」, 「흥법」, 「의해」, 「신주」, 「감통」, 「피은」, 「효선」 등 7편이다. 이 때문에 「기이」 다음에 제2가 될 무엇과, 「흥법」 다음에 제4가 될 무엇이 빠져 있다고 본 학자가 있다.

일본학자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에 지나지 않아 유목을 세우고 이미 숫자로서 차례를 매기면서 같은 이름을 거듭 썼을 까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빠진 것이 또 다른 유목이었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조선 중종(中宗) 연간에 간행된 정덕본(正德本)에 근거해 보면 '동경흥륜사 금당십성'(東京興輪寺金堂十聖)과 '가섭불연좌석'(迦葉佛宴坐石) 두 조항 사이에 필요 없이 끼어든 것으로 보이는 「탑상」제4란 편목의 '제4'란 두 글자가 탈락된 나머지 글일 것이라고 논한 것이다. 또 「기이」와 「흥법」 사이에는 권도 바뀌고 수도 하나 건너띄므로 그렇게 보려고 하였다. 이것은 「왕력」을 제1권으로 볼 때 제2권 「기이1」과 「기이2」의 권차 배정 문제와 두 조목 사이에 끼어든 「탑상」제4의 권차 배정과 조목 배정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기이」와 「흥법」 사이에는 같은 기사 계속되고 있어 억지로 나눠야 할 이류를 발견할 수 없다. 또 「기이」제1 앞에 책이름을 나타낸 것이 없어 이것이 책 첫머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책 이름이 「왕력」 위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왕력」제1'이라고 차례를 매긴 것이 분명하므로 「왕력」이 유목 중의 하나이자 제1권의 첫머리가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역사의 보물창고

「왕력」편은 제일 첫 부분에 편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야기 중심으로 된 편이 아니어서 『삼국유사』 독자들은 「왕력」편을 건너뛰고 「기이」부터 「효선」까지 읽게 된다. 「효선」을 다 읽고 나서조차도 다시 「왕력」편은 읽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삼국유사』를 완독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일부 번역본에는 서두의 「왕력」편이 가독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예 「효선」 뒤에 편집해 넣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왕력」편을 읽는 사람은 일부 전공학자들 뿐이다. 과연 「왕력」은 읽을 필요가 없는 편일까? 아니면 읽어보아도 전혀 재미를 느낄 수 없는 편일까? 그런데 「왕력」편을 읽지 않고 『삼국유사』「기이」에서 「효선」까지만 읽으면 사국의 세계와 치세가 잘 잡히지 않는다. 반드시 「왕력」을 읽어야만 왕실의 세계나 치세가 잘 잡히게 된다.

**'왕력' 읽어야 왕실 세계 이해**
**중국 대등하게 왕명 병기·기술**
**연표는 역사를 읽는 지남 돼**
**연표 읽은 이후 기이 등 읽어야**

「왕력」은 신라와 고구려 및 백제와 가락 역사의 보물창고이다. 보물 창고에는 보배들이 가득 차 있다. 「왕력」편에는 일연이 삼국 중 신라의 시대구분을 상고기, 중고기, 하고기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는 제1대 혁거세마립간에서 제22대 지증마립간까지를 상고기로 보았다. 제23대 법흥왕에서 제28대 진덕여왕까지를 중고기로 보고 성골의 왕이 재위했던 시기로 보았다. 제29대 태종무열왕에서 제56대 경순왕까지를 하고기로 보고 진골의 왕이 재위했던 시기로 보았다. 이것은 제1대 혁거세마립간(赫居世麻立干)부터 제28대 진덕여왕(眞德女王)대까지를 '고대'(기원전 48~기원후 653), 제29대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부터 제36대 혜공왕(惠恭王)까지를 '중대'(654~779), 제37대 선덕왕(宣德王)부터 제56대 경순왕(敬順王)대까지를 '하대'(780~935)로 시대구분 한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대비된다. 일연은 왕의 호칭과 출자를 중심으로 마립간 시기, 성골 왕의 시기, 진골왕의 시기로 삼분한 반면, 김부식은 왕의 정계와 방계를 구분하여 박석김 삼성시기-무열왕계 시기-방계김씨기로 삼분하였다.

「왕력」편에는 신라의 국명이 '서라벌'(徐羅伐) 또는 '서벌'(徐伐) 혹은 '사로'(斯盧)-'계림'(鷄林)-'신라'(德業日'新' 網'羅'四方)로 변화하였음을 알려준다. 또 왕의 호칭이 차차웅-거서간-이질(사)금-마립간의 변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또 법흥왕 때부터 시호(諡號)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왕의 내외가 출가하여 승려(僧侶)가 되었고, 십재일(十齋日)에 살생을 금하고, 도첩(度牒)을 주어 승려가 되게 하였음을 알려준다. 진흥왕 (내외)도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가락(駕洛) 흡수 이후부터는 신라 고구려 백제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백제와 고구려 흡수 이후부터는 통일신라의 연표만 기록하고 있다.

또 후삼국의 시대를 열었던 후고구려 즉 마진(摩震, 904~918)의 궁예, 후백제(後百濟, 892~935)의 견훤, 고려(高麗, 918~1392)의 왕건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태조 왕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목을 시설한 기술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철원경(鐵原京)에서 즉위(918)한 뒤 기묘년(919)에 송악군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 창건한 법왕사, 자운사, 왕륜사, 내제석사, 사나사, 대선원(보제원), 신흥사, 문수사, 원통사, 지장사 등 10개의 절 이름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중국 한(漢)나라의 황제명 및 6조(朝)의 국명과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의 황제명과 5대 10국 시절의 나라들인 주량(朱梁), 후당(後唐), 석진(石晉), 유(劉), 한(漢), 곽주(郭周) 나아가 송(宋)나라의 국호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들 연표는 저 신라로부터 고구려, 백제, 가락, 후고구려, 후백제를 아우른 고려가 탄생하기까지 중국 각 나라의 이름과 황제명에 준하여 사국(四國) 및 후삼국의 왕명을 병기함으로써 중국과 대등한 역사연표를 기술하고 있다.

3. 왕력, 반드시 읽어야 될 편명

연표는 역사를 읽는 지남이 된다. 연표는 역대 나라와 통치자 및 즉위와 치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정표이다. 때문에 역사고전을 볼 때 연표는 필수적인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역사서의 숲에서 길을 잃게 된다. 해당 시대나 통치자의 연호에 상응하는 시대 비정을 하지 않고는 역사의 길목에서 방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국(四國)시대의 '역대 왕의 연표'라고 할 수 있는 「왕력」편은 『삼국유사』를 읽는 이정표이며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독자들은 「왕력」편을 건너뛰고 「기이」편부터 읽기 시작한다. 이러한 독서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왕력'은 왕의 이력서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통치자인 왕의 성과 태생, 부모의 이름, 형제 관계, 즉위년과 재위 기간, 왕비의 이름, 나라 이름 명명, 도읍지, 수도 이전, 영토 확장, 장례법과 장례지 등 통치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압축되어 있다. 담겨 있는 정보로 치면 간략한 인명사전을 보는 듯하다. 짧은 칸(란) 속에 담는 속성상 해당 인물의 정보가 집약되어 있다. 해서 역사서 본문을 읽는 때에는 반드시 함께 읽어야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삼국유사』의 경우에는「왕력」 편만을 따로 읽고 나서 본문과 연계시켜 읽어나가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중국 역사에 상응하여 신라와 고구려 및 백제와 가락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일연은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연보의 필요성을 남다르게 인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역사서류인 '고기'(古記) 중에서도 최치원의 『제왕연대력』과 『신라수이전』, 김대문의 『고승전』과 『화랑세기』, 대구(大矩)화상의 『삼대목』, 최승우의 『호본집』(?本集)과 홍관의 『편년통재속편』(編年通載續編)과 같은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연보학, 계보학, 향가집, 전기류 등의 편재와 구성 등을 깊이 참고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선행 연표와 역사서 및 향가집과 전기류 등은 『삼국유사』 찬술의 밑걸음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김대문의 『화랑세기』의 출전 인물들을 깊이 참고한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유사』의 9개 편명 중 「왕력」편은 제일 처음에 자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이 가지 않는 편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편명이 지니고 있는 '연표'라는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연표를 읽고 난 뒤에 본문을 본다면 본문의 지형이 훨씬 더 유기적으로 그려질 수 있다. 동시에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꾸어 보게 되면 이 편명은 매우 달리 보일 것이다. 연표에는 사전적 기능과 지도적 기능 등이 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서술형 문장으로 되어 있어 얼마든지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삼국유사』의 독자들이 「왕력」편을 반드시 먼저 읽고 「기이」편을 읽었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왕력」편은 반드시 읽어야 할 편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민족문화추진회, 『삼국유사』(민족문화문고, 1976).
권상로 역해,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기만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여
주고받는 말마다 악惡 을 막아 듣는 이에게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理致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 잡보장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찬찬히 잘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선암 (부산 진시장 앞)
010-6569-1010

**불교의학 장생법회**
(사대천왕 항마법)
1. 수행자는 공부의 장애를 다스리고
2. 신도에겐 질병의 고통을 다스린다.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강 주 : 유리광
장 소 : 서울 동대문구 하정로 50-1(201호)
연락처 : 010-7387-2833

**각종 불사 상담**
(단청,탱화,개금,신축)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문화재청 화공 기능 보유자
011-9387 -1518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모든 고민은 네이버에서
"샤먼노트"를 검색해 보세요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불사용(佛事用) 달마도 보급안내**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 친필 달마도를 정성껏
저렴하게 그려 드립니다
보급처 051)202-8770
010-2953-8770
*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합니다.
부 산 청 암 달 마 원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불사용 禪書畵**
달마도, 목단꽃, 연꽃,
잉어,말, 소나무 등
어떤 규격 어떤종류의
그림이라도 원하시는
작품을 직접 그려드립니다
010-8718-6262
국전,대한민국미술대전수상

**최면** 전생,빙의퇴마, 우울,각종심리 치료 (6회완성)
개인지도 직접상담
**역학** 명리학 속성완성 작명,궁합,사주
010-9342-9794
051-517-9793

**지장기도를 통해 그 자리에서 영가천도 환자의 몸속에 숨어있는 빙의령 확인**
빙의,우울증,신병,대인기피,암,원인불명, 질환,악성피부질환,아토피,인생상담
지장보살님의 빛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낀다
스님,보살님,법사,일반인치유 및 제자양성
인체전기파동의학원
010-9242-5259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모집**
실전위주 교육(재가불자가능)
불공의식,천도재,49재,점안식
천수바라,나비무
010-9263-8057
부산 은진사. 인호, 수법 합장

**이 기도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어떠한 소원도 이루게 해주는 기도
*기도의비밀. 저자 정담스님. 값 15,000원
농협 351-0527-5845-43
영가천도,염력기도,소원성취법,사주통변법
스님,일반인기도비법,개인지도 제자 책임양성
다음카페 치우천왕정담 검색
010-4500-8234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 태징, 목탁, 송주북, 정근북, 법고)
– 천수바라, 작법(나비무), 49재, 천도재, 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 퇴마
천병,신병,우울증,대인기피증, 틱장애,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가정풍파, 엑스시스트에서도 치료 못하는 환자치료,
스님 법사 보살님도 상담환영
(천상을 여는 금강사)
010-2418-6222

**향기도의 비법**
•아주 특수한 기도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032)664-0048 / 011-741-0867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여름에 시원하고 물좋고
수목 울창한 조용한 사찰에
노스님(비구) 공양 수발할
공양주 구함 (대중식구 없음)
경북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사찰 관리하고 기도할
비구, 비구니 찾습니다
불자 부부 및
출가행자 환영
(강원도)
010-9421-0730

**참신한 비구스님 모십니다**
010-7223-7893

포교당 관리를 잘하시고
불자님 포교에만 최선의
목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스님 장기간 동안
백일기도를 할 수 있는
보살님 거사님의 바르고
좋은인연을 찾고 있음
010-9418-1632 지진열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총무스님 010-5511-70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보시금 130만원,
숙식제공, 출퇴근 가능
010-6789-495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청주)
010-3691-5865

**신심있는 법당보살, 공양주, 처사님 함께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1-774-4099

포교원을 처음 시작하는
승려입니다
불상,탱화,불단용품을
보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사례 드리겠습니다
010-7330-2361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자성주(자성사리) 수익사업**
친환경 납골문화의 21C 선두기업
고인의 유골을 섭씨 2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自性珠(구슬사리)로 생성하는 기계.
대도시 및 종교시설. 문중사당. 가정에서 모심
전국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 보은의 사랑

**무료공개강좌 (영가찾는법 강좌)**
생년월일시로 간단하게 찾는 법과 사주로 쉽게 찾는 법 등과 운에서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왕초보라도 가능함.
※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찾아 기도를 해주어야 모든 일이 풀린다.
무료공개강좌 –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 명리기초 및 영가특강반 :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통신강의 ☞ 지방거주나 시간이 없는 분 – 통신강의는 DVD 보내드림
백암역리원 ☎ 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비구니스님 모심**
(보살님도 가능)
주지소임 살면서 쑥뜸배워
치료해 줄 30~65세
(월보시금 300만원)
010-2899-1477 일산

빈 절이나 가난한 암자를
무보시로 운영
관리해 드립니다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어려운 사찰을 구합니다
(법납 40년 비구승, 탄성스님)
010-7534-4848

**빙의(신병) 퇴마**
퇴마 및 최면요법 과정
1. 개강 : 2013. 8. 3 (토요일) 오후 2시 개강
2013. 8. 5 (월요일) 오전 10시 개강
2. 참가비 : 200만원 (8회, 과정별 교재제공)
3. 선착순 5명 그룹지도 (상담 후 수강결정)
퇴마특별과정 : 배웠으나 퇴마 못하는 분
1. 개강 : 2013. 8. 4 (일요일) 오후 2시 개강
2. 참가비 : 100만원 (4회, 문답식 교육, 문제해결)
3. 선착순 5명 그룹지도 (상담 후 수강결정)
개 인 지 도
1. 기문둔갑, 성명학, 빙의 퇴마와 최면요법
2. 시간, 장소 (서울과 의정부) 상담 후 결정
3. 지방출장 지도 2명이상
상담 : 예약상담
* 사주상담 * 심리상담, 우울증, 공포증 * 빙의퇴마
* 무 속 인 :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법당정리
* 빙의 (신병) : 출장상담 및 출장 퇴마
• 신간 :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 주문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 비룡정사
• 저자 : 제행 스님 직접상담 및 지도
• 전화 : 011-772-4606. 02)588-4606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개강기념 8월 수강료 20%할인 혜택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 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짝 열린 눈에서 한 개의 티끌도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아함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시설비 약간

- 위치 : 서울
- 대지 : 20
- 법당 : 50*2동
- 대지 : 1000
- 가액 : 6억

- 위치 : 포항
- 대지 : 350평
- 법당 : 26평
- 요사 : 3채방5개
- 가액 1억8천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종합운동장부근
- 시설 잘되어 있는 전통형사찰
- 대웅전(90㎡), 지장전, 삼성각, 전통목조
- 토지(대+전) 5,000㎡
- 양도가액: 8억 8천만원(융자있음)

**010-7347-1010**
이박사공인중개사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수행도량, 조용, 530고지)
- 등기평수 4423평 중 종교부지 375평
- 임법당 조립식판넬 19평 기타 9평
- 대지 180평 조립식판넬 요사채 3동
- 창고 1동 외부화장실 과수원 2700평 8년생,3년생
- 가액 : 5억5천만원
- 답사후 절충가능

**010-4726-6496**

## 불교용품 전문점

- 위치: 서울 급 양도함
- 점포 30평
- 창고 20평
- 가격은 상담 후 결정 현재 성업중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4055-1214**

## 농 가 주 택

- 위치 : 경북 영양 상원리
- 대지 302평
- 건물 18평형 2동 부속건물
- 3동 한적한 곳 위치 다용도
- 8,500만원 주인직

**010-8899-8899**

##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사찰
- 면적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8억
- 위치 : 경남통영포교당시내
- 면적 : 90평, 법당, 요사, 공양간
- 종무소,상담실, 시설비 7000만
- 3층건물2층, 보:5000/200만
- 지병으로급매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 사 찰 및 토 굴 안 내

### 경주 토굴 안내

- 총부지 : 730평
- 법당 요사채 60평
- 야생화가 어울러진 아름다운 토굴
- 마을 앞 넓은 호수, 텃밭 100평
- 양도가 : 3억 2천만원

### 아 름 다 운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칠보 삼존불 봉안)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50년 역사와 정원수 다량
- 나비형 큰 호수
- 양도가 : 1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강원도 토굴 다량확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3층 각 75평
- 전세 500만원 /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전세가능
- 전세 1,500만원 / 월 12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 법당 : 20평, 요사 2동
- 대지 149평
- 가액: 5억 3천만원
- 기와 단청 17평, 10평
- 도심 속 포교에 최적지

**011-811-5466**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 대지 80평, 포교원 월세
-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 마당에 정원석등 아주 넓음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700만원(불상별도)

**010-2251-3378**

##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영북면 운천리 539-17
- 대지 : 90평
- 건물 : 법당(20평), 요사채(25평), 기름보일러
- 가액 :1억 5천만원

**010-4015-7145**
**010-9666-2738**

## 지리산 청학동 사찰 양도

- 위치 : 청암면 묵계리(계곡접)
- 면적: 1815평,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 7평
- 요사채 25평, 창고 1동, 해우소 1동
- 난방,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수도(자가 및 마을공동겸용)
- 양도가: 13억원, 최상의 명당터 동향임
- 부지조성완료

**010-3403-3355**

##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 포교원사찰 및 불교대학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 3층건물 3층, 100평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 차고, 심야전기, 인테리어 최고시설
- 법당 60평, 큰방2, 작은방1, 큰주방
- 욕실, 화장실 3층 내 스님 요사채
- 거실, 욕실, 주방, 방큰방 2개
- 전세 5000만원, 집기시설보시고 결정
- 옥상사용, 방수공사, 창고 방2개
- 꼭 하실분만 연락하세요

**010-4912-500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 총평수 827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 50평
- 산신각 약 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 3억 3천만원

**010-8034-8309**

## 암 자 안 내

- 위치: 충북 영동
- 평수 520평
- 건물 목조 기와 약 40평
- 별채, 창고, 산신각 등
- 산중암자, 가격절충
- 가액: 2억 5천만원

**010-9422-1233**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 임야300평 종교부지300평
- 법당 23평1, 삼성각5평1
- 요사채및 공양간33평1
- 미륵및용왕시설 주차시설완비
- 가액 3억5천만원
- 답사후 가격절충가능 꼭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0-4187-7682**

## 선 ~ 정 토 터 안 내

-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과수원)임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구포란형(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포장(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2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266평(평당 6만원)(금/토/일 중 방문예약)

**016 - 573 - 2032**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상담 후 조정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 신 축 대 웅 전

- 위치 : 경남 합천
- 총평수 413평
- 대웅전 목조기와 25평
- 요사채 25평
- 산세 좋고 계곡물 사시사철 흐름
- 융자 8천안고 1억 6천 5백만원 (가격절충)

**010-8794-1257**

## 암자(임법당)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
- 점양동호수가
- 대지 70평, 건평 약 45평
- 2층법당, 1층 요사(시설완비)
- 주차장 100평 완비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요

**010-7764-2080**

## 사 찰 부 지

- 가평군 상면 율길리
- 금계포란형 2만평, 평당 16만원
- 이메일 주시면 토지주가 직접 번지를 공개하겠습니다
- 원로(큰스님) 모시고 좋은 일
- 하실분 현장답사 후 연락 주세요

**soonlee2010@hanmail.net**

##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시 소재
- 부지 : 250평(대지)
- 법당 : 40평(3층, 석가래, 청기와, 단청)
- 요사채: 40평(2층), 종무소 : 40평(1층)
- 가액: 11억
- 특징: 부산에서 10분거리이며 포교지로 아주 좋음, 일반 부동산 물건과 교환도 가능함

## 사찰안내(포교당)

- 위치 :경남 통영시 소재
- 법당 : 70평 (임법당)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0만원(조정가)
- 특징: 도심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만 1억 5,000만원이 투입된 지역에서는 가장 큰 포교당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5848-0455 / 서울 010-5828-0455**

## 안 면 도

- 전원주택 및 사찰,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 명상센터, 체험학습장 등
- 건물 2동(48평, 30평)
- 대지, 전, 잡종지 : 5246㎡
- 국유지 : 990㎡
- 가액: 6억 5천만원
- 건물 1동 (48평)
- 대지 전 4555㎡ (가액 5억)

**010-9253-2527**

## 포 교 원 안 내

- 양산시 북부동 동양산 농협 옆
- 평수 : 90평, 방 5개, 법당 35평
- 삼존불, 산신용궁, 영가단, 후불탱화, 소불 206불
- 전세 4천 5백만원 / 월 5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절충

**010-8384-7754**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포함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 포교원(급)안내

- 충남 천안시 상가주택 2층 28평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20만원
- 저렴하게 양도해드립니다

**041)552-3476**
**010-9497-3746**

## 도심속의 작은암자

- 위치 : 부산시내(북구) 주차용이
- 1층 와가 방2칸 약 26~30평정도
- 법당 : 삼존불, 신중, 영가단. 산신용왕별도
- 국유지 : 사용료 내고 있습
- 가액: 7천 3백만원

**011-575-9707**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진주에서 15분거리)
- 부지 : 1000평
- 법당 : 20평(목조) 요사채 25평 산신각 3평
- 조용하고 전망좋고 옆 작은개울 흐름
- 가액: 3억 (보시고 절충가능함)

**011-586-8696**

## 사찰 및 전원주택

- 경북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부근
- 의성 IC에서 10분거리
- 서남향
- 대지 건물포함 1,200평
- 가액: 3억 (조정가능)
- 화강암돌 • 원두막 1채
- 80년 된 소나무 100그루 이상

**010-4811-0301**
**010-9828-5973**

## 사찰(급)안내

- 도심속에 산사의 맛을 풍기는 사찰
- 위치 : 부산 사하구 관내
- 대지 215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은행융자 3억원 (절충가능)

**010-6237-5964**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와 양평근교 소재
- 창건60여년의 아담한 사찰로 서울에서 1시간거리
- 평수: 부지 (종교용지 364평.임야 1690평) 등기건축물( 146평)
- 삼성각. 종각. 대법당. 석불. 석탑.
- 종무실(1.2층).요사채(방5).심야전기.
- 양도가액 : 4억8천만원(절충불가)

**017-372-8968**

## 아담한암자안내

- 위치: 울산 야음동
- 건평 130평
- 한옥 3채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010-2345-5558**

##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 2층 50평, 옥상, 지하 사용가능
- 삼존불, 지장, 신장, 산신, 용왕 탱화 소불 120불
- 대법당, 방1, 화장실3
- 시설 비품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불경기에 시작하시는 꼭 하실분께
- 좋은 시설 드리고 싶습니다.

**010-2842-6532**

## 상 급 택 지 안 내

충남도청에서 가까우며 교통이 편리하고
산간 전원마을이 되는 주택지를 찾는 분에게
권하고 싶은 상급택지

- 수맥이 없고 기가 있으며 안대가 좋음
- 도청에서 약 8KM(7분거리)
- 신설중인 4차선 진출입로가 있는 마을로 마을 안길과 접합
- 충남 예산군 응봉면 계정리 359-2 (대) 598㎡
- 가액: 1억 800만원

**010-8811-0149**

##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신녕면
- 갓바위 뒷편(답)
- 절터 3000평 • 건물 60평 1동
- 화장실 2칸 1동, 창고 1동
- 대형차 진입가능
- 대지 조성완료
- 스님이 말한 소꾸리터
- 가액: 6억

**010-6253-3107**

##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 대지 약 90평, 건평 57평
- 법당 2층 27평, 스님 접견실
- 요사채 : 1층 접견실, 거실방
- 비구니 스님 적격임
- 가액: 2억 6천만원
- 현재 운영중

**011-9625-1400**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남구 영대병원 지하철 부근 2층
- 평수 63평, 방3
- 삼존불, 인등, 연등 외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900만원(상담후 절충)

**070-8784-2010**
**010-5011-4096**

## 사 찰 안 내

- 위치: 광주 나주 중간 도심근교
- 토지 400평
- 법당, 요사채
- 가액: 1억 3천만원
- 꼭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011-9602-2293**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해운대 달맞이 최고의 경관
- 평수 약 40평
- 전세 2,000만원 월세 60만원
- 법당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010-8675-1817**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 4층건물중 3층
-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시설비(시설비없음).

**010-7459-2977**

## 사찰 또는 영탑부지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산 20-30번지 (20-4번지에서 분할), 44,380㎡(13,000평)
- 진안읍에서 4km로 5분거리며 4차선에서180m 마을에서500m거리
- 300m거리에 호수와 하천이 있는 잔디공원5만평이있고
- 일명"오용부"로 용이 5마리산다는 지명으로 토지명이 "청용모등이"
- 사질양토고 계곡이있고 사찰을 건립하고"영탑"부지 활용이 적합
- 다른용도로는 태양열,수련원,체험장등 적합
- 가액: 3억2천5백-분할 가능(평당 2만 5천원)

**주인 010-5669-0367**

## 임 법 당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시 지례
- 평수: 130평, 임법당 35평
- 삼존불, 소불, 신중단
- 방3, 거실겸 주방, 화장실
- 마당에 잔디, 주차 5대가능
- 텃밭 11평
- 가액: 5천만원

**010-2101-2522**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1억 7천 (융자 3,000만원 포함) 다른용도변경가능, 전세가능

**010-8993-3596**

## 기도처(토굴)안내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713-11번지
- 대지 : 상기 번지외 1필지 286평방미터(약 87평)
- 건물 : 149평방미터(약 45평)
- 시설 : 법당, 삼존불 신중, 산시탱화, 영가단
- 요사 : 방 3개 부엌(현대식) 화장실 겸 욕실, 별도 화장실 2개 있음 그 외 법당 시설은 완벽하게 갖추어 졌음
- 가액 : 6,200만원

**010 - 6312 -1178**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 시설 : 2층 법당 1층 공양간 (매우양호) 시설비 일체없음
- 보증금 : 2천만원에 월 50만원 (월세 600만원 선불)

**010- 6505-8004**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주시 가흥2동 472번지 금 명 사
- 법당, 산신각, 방 2개, 욕실, 주방
- 월세 : 1년에 200만원 (가격조절가능)

**011-9370-7513**

## 종 교 관 련 시 설 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포교원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곳
- 토지거래 해제 및 개발완화로 문화관련 시설 및 신축도 가능합니다
- 가액: 20억

**011-372-7744**

# “마음이 쉬는 ‘定’에서 울림의 리더십을”

연중기획 마음산업

## ‘신행 · 포교 地圖’ 바꾼다

### 〈13〉 통도사 영축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


7월 6~7일 신한은행 임원들은 통도사 영축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 명상 프로그램으로 힐링의 시간을 갖고 이를 리더십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7월6일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에서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신한은행이 하반기 워크숍으로 통도사 영축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의 명상힐링캠프를 선택한 것이다. 임원 120여명은 명상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갖고 이를 리더십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은행 측은 “통상적으로 연 2회 회사 자체 연수원 등에서 임원 워크숍을 열어 왔는데 이번 행사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통도사에서 열리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일방적인 회의가 아닌 마음챙김 명상인 사띠수행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것이 업무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서지원 은행장을 비롯 임원, 본부장 등 참가자 120명은 이틀간 통도사에서 머물며 명상을 경험했다. 특히 집중력과 추진력 향상은 물론 마음에너지를 강화시키는 수련법인 사띠 수련에 기반한 마인드케어 명상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일정은 첫째 날 까야사띠 명상체조와 마인드케어 강의와 실습에 이어 둘째 날은 새벽 숲길 명상, 예불, 발우공양 등 불교문화체험과 특강으로 진행됐다.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일깨우는 체조인 까야싸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인드케어 강의와 실습이 진행됐다.

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 이태호 본부장은 “몸이 의자나 바닥에 앉거나 누우면 쉬게 되듯이, 마음도 한 곳에 두면 쉬게 된다. 이것을 마음이 쉰다”고 하는 것이고 “오랫동안 마음을 한 곳에 붙여 놓은 상태가 정(定)으로 이 상태를 지속하는 시간이 오래 갈수록 마음의 힘이 더욱 강화되어 집중력과 추진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준을 한 곳에 두고, 상념이나 느낌들이 일어날 때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며 그 상념이나 현상에 이름을 붙이는 훈련이 알아차림이다. 지속적인 알아차림은 직관과 지혜를 계발해 마음 속 번뇌를 정화시키는 힘을 준다”며 마음챙김 명상의 의미와 효과를전했다.

서지원 은행장은 “이번 워크숍 주제를 ‘울림의 리더십’으로 정했다. 하반기 격변하는 금융환경 등 녹록지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 마음을 다잡으며 단결과 결속의 시간이 필요했다”며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천혜의 환경을 갖춘 통도사에서 명상 힐링 연수를 가지니 자기 성찰은 물론 마음의 힘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한은행 임원 120명 명상체험 힐링**
**지속적 알아차림은 직관과 지혜 계발**
**새 에너지 통찰력, 기업의 위기 해결**

이어 그는 “오늘날 조직은 상하 관계를 넘어 수평적 동반자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때문에 리더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소통을 해야 한다. 백 가지 말이 한 가지 행동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처럼 솔선수범해 주변 사람들과 조직 전체로 퍼져 나가는 울림을 만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명상을 통해 통찰력을 기르고 주변을 아우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한국의 대표적 금융기관인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통도사에서 하룻밤 묵은 인연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평화를 얻어 경제 초석을 다질 큰 힘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어느덧 불교 명상이 기업의 위기해법을 모색하고 치유받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는 공유와 소통이 막강한 정보이고 힘이다. 치유명상을 통해 내면을 일깨우고 강화된 마음의 힘으로 울림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면 올 여름 산사에서 명상을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

박경수 부산지사장

**알아차림 마음명상 이렇게**

## “자신의 마음을 자비심으로 가득 채우자”

명상의 기초 과정인 좌선은 알아차림의 가장 기초적 단계다.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차리는 것이 ‘알아차림’이다.

우리는 먼저 앉은 모습을 ‘앉음’ 엉덩이가 바닥에 닿은 느낌을 ‘닿음’하고 이름붙이고 알아차림을 한다.

한두 번 하고 나서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를 배에 툭 던진다. 그리고 생체 리듬에 따라 배가 움직일 때 배가 불러오면 ‘일어남’ 꺼지면 ‘사라짐’하고 이름붙이고 알아차려 본다.

걷기 명상은 행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걸으며 하는 수행이다. 행선은 좌선보다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기준점(출발점) 알아차림이 다소 힘들지만 제대로 하면 알아차림 기능인 싸띠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다.

마음을 맑히는 것이 ‘싸띠수행’이고 맑힌 마음을 인연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 메따수행 즉 자비관이다.

메따명상은 첫째 자신의 마음을 자비심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마음속으로 자비를 되뇌며 자비심을 충만하게 한다. 맞은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OOO야! 진정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이라고 말해본다. 다음으로 상대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OOO님! 마음속의 짐 다 내려놓으시고 진정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해본다.

이때 눈앞에 떠올린 모습은 선명해야 하고 보내는 마음은 진실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보내는 순서는 가족부터 인연 있는 사람들로, 그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상대를 자비심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

이태호 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 총괄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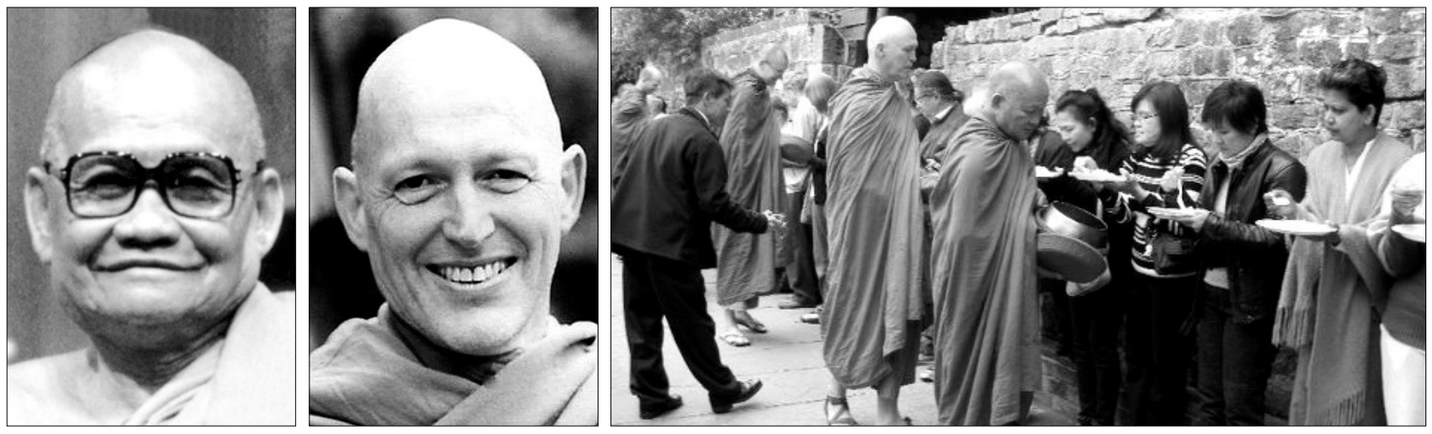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 유럽 최초의 산림 승원…남방불교 전통 숲 수행

### 〈11〉 영국 찌따위웨까(Cittaviveka)사원

영국 남부 웨스트 서섹스(West Sussex)지역에는 청정림인 해머우드(Hammerwood) 숲이 있다. 이곳에는 태국의 숲 속 수행의 전통을 따르는 수행자들이 법을 수행하고 있다.

바로 108에이커(약 13만 2천 평) 규모의 찌따위웨까(Cittaviveka)사원. 태국 아잔 차(Ajahn Chah, 1918~1992) 스님의 첫 번째 서양인 제자인 아잔 수메도(Ajahn Sumedho, 1934~)가 세운 사원으로, 서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남방의 전통적인 불교 승가를 이끌어가고 있다.


태국 아잔 차 스님(좌)과 그의 제자인 아잔 수메도 스님(우). 찌따위웨까(Cittaviveka)사원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탁발을 하고 있다.

**아잔 차 스님 제자 아잔 수메도 설립**
**탁발 · 숲운력 · 명상 등으로 불교전파**
**이태리 · 스위스 · 미국 · 뉴질랜드 등 분원**

### 아잔차 스님과 아잔 수메도

태국 출신인 아잔 차 스님은 아홉 살에 자신의 의지로 출가해 스무살에 비구계를 받았다. 젊은 승려였던 그는 지역사원의 해이한 계율에 대한 불만과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 숲이나 동굴, 화장터에서 지내며 고행승의 삶을 시작했다. 1954년 그는 인적이 없고 코브라나 호랑이가 출몰한다고 소문난 숲이야 말로 최적의 장소라 여기고 그곳에 머물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그를 중심으로 대규모 사원이 세워졌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곁에서 수행하기 위해 전 세계 200여 개의 분원에서 그가 확립한 수행법과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 출신인 아잔 수메도 스님은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해군 의무병으로 일본서 4년 동안 군복무를 했다.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기독교의 믿음과 무조건적 수용에 회의를 느끼던 중 스즈키 다이세츠의 선불교를 알게 됐고, 군복무를 마친 뒤 평화봉사단으로 영어를 가르치다 1966년 태국 방콕에서 불교를 접하게 된다. 1967년 태국서 출가해 비구계를 받은 그는 아잔 차 스님을 소개 받고, 1977년 까지 10년 간 아잔 차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서양인 최초의 제자가 됐다.

아잔 차 스님은 1956년 영국 불교 발전을 위해 설립된 영국 승가 후원회(The English Sangha Trust)의 초청으로 아잔 수메도와 영국으로 동행했다. 이때 영국의 불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감지한 아잔 차는 아잔 수메도를 불교도가 보시한 아파트인 헴스테드 승원(Hempstead Vihara)에 남겨뒀다.

아잔 수메도는 불법(佛法)을 모르는 영국에 탁발을 한다고 해서 불교가 전해질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탁발 말고 어떤 방법으로 법을 전하겠냐는 스승의 말에 매일 아침 아파트를 나와 주택가와 인근 공원으로 탁발을 다녔다. 그러다 수메도의 탁발 수행을 본 한 독지가가 영국 남부의 청정림인 해머우드 숲을 수메도에게 기증했다.

### 단체 생활 속 계율 지키며 살아야 깨달음 얻어

그렇게 해서 찌따위웨까(Cittaviveka; ‘고요한 마음’이라는 뜻)라는 유럽 최초의 산림 승원이 탄생했고, 승가 인원이 늘어나자 1984년 두 번 째 승원인 아마라와띠(Amaravati)를 설립하고 아잔 수메도를 초대 원장으로 모셨다. 이 두 사원은 영국 승가 후원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청정한 상좌불교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후 영국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도 승원이 생기기 시작했다. 영국의 노섬버랜드(Northumberland)승원과 드본(Devon Romano)승원, 뉴질랜드의 웰링턴(Wellington) 승원, 호주의 서펜틴(Serpentine) 승원 등이 설립됐다. 아잔 수메도 스님은 이러한 분원의 지도자로서 서양에서 성공적으로 남방의 전통적인 불교 승가를 이끄는 선구자가 됐다.

아잔 차 스님은 제자들을 지도할 때 승원에 모아놓고 모여서 살아가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다. 승가 공동체의 단체 생활에서 계율을 지키며 생활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아잔 차 스님의 지도 방식은 찌따위웨까 사원 외에 다른 사원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찌따위웨까 사원은 아잔 수시또(Ajahn Sucitto) 스님이 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원에는 20 여 명의 비구 · 비구니 스님이 함께 수행하고 있다.

산림 승원의 스님들은 오늘도 전 세계에서 아잔 차의 단순 솔직하고 직접적인 가르침과 생활과 밀접히 연결된 법을 전하고 있다.

찌따위웨까는 담마 홀에서 매주 토요일 담마토크(법문)와 차담을 하며 묵언명상을 하고, 일요일에는 유도명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기포럼도 열어 승단과 재가자들이 함께 불교를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숲을 보존하는 운력활동도 함께 참여하는가 하면 ‘Garden days’라는 날을 정해 수도원 경내에 있는 원예를 다듬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 싫어함과 박대하는 마음은 구함이 많기 때문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29)

### 비구 발거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정사에 계실 때였다. 5백 비구들이 불사를 위해 화주를 구하러 다녔다. 장사꾼들은 비구가 오는 것을 보기만 하면 이내 가게 문을 닫고 그들을 피했다. 그러면 비구들은 집으로 찾아가서 거듭 과보를 설명하여 신심을 내게 했다. 심지어는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억지로 보시하기를 권하기도 했다.

"내가 왜 이러냐 하면, 그대로 하여금 색력(色力)과 수명을 얻고 공덕을 더하여 감로의 결과에 이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오."

장사꾼이 그 말을 듣고 신심을 내어 약간씩 보시를 했다. 후에 장사꾼들이 사리불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일을 사리불에게 하소연 했다. 이야기를 들은 사리불은 돌아가 들은 이야기를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다.

과거 세상에 발거라는 비구가 숲 속에 살고 있었다. 이때 수리들도 이 숲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었으니 아침저녁으로 어지러이 울어대어 발거를 괴롭혔다. 어느 날, 발거가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발거에게 물었다.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다른 괴로움도 없이 안락하게 숲 속에서 살고 있느냐?"

발거가 대답했다.

"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이 즐거이 숲 속에 있습니다. 다만 수리들이 울부짖고 어지러이 굴어서 사유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발거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새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발거에게 말씀하셨다.

"그 새들이 올 때마다 새들로부터 각각 털 한 개씩을 달라고 하여 얻도록 하여라."

발거가 부처님의 말씀대로 새들에게 털을 달라고 하자 새들은 저마다 각각 털 한 개씩을 떨어뜨려 주었다. 아침에 떠날 때마다 매번 이렇게 되풀이 하며 털을 달라고 하자 새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서 하룻밤을 잤다. 그러나 옮겨 간 잠자리가 편안하지 못하여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도 발거는 다시 그들에게 털을 달라고 했다. 새들은 또 저마다 털 한 개씩을 주고는 모여서 의논을 했다.

"저 비구가 털을 한없이 달라고 하니 이제 우리는 멀지 않아서 우리의 옷인 털을 몽땅 빼앗기고 말거야. 그러면 다시는 하늘을 날 수 없을지도 몰라." 다른 수리가 말했다.

"저 비구는 언제나 이 숲속에 머무르고 있으니 우리들이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밖에…"

사리불과 함께 있던 여러 비구들이 모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숲 속의 저 비구는 너무 비겁합니다. 자기 마음은 어지럽게 놔두면서 새소리는 두려워하고 미워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오늘만 비겁한 것이 아니었다. 전생에서 큰 코끼리 한 마리가 숲 속에 살고 있었다.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 나무를 부러뜨리자, 코끼리는 나무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 두려워하면서 달아났다. 그 두려운 마음이 조금 사그라지자 다른 나무 밑에 가서 서 있었는데, 그 나무도 부러지는지라 또 달아났다. 그때 천인이 게송으로 말했다."

'바람이 사나워서 숲 속의 나뭇가지 꺾이네. / 큰 코끼리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달아나는구나. / 그렇다고 이 넓은 하늘 아래에 / 큰 코끼리여, 어는 곳으로 피하려는가.'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때의 코끼리가 바로 숲 속의 비구이다."

"용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그 사람은 다시 선인에게 말했다.

"그 용의 목구멍 아래에 영락보주가 있습니다. 용에게 그 보주를 달라고 청해보십시오. 용이 성질이 워낙 구두쇠라 끝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용이 다시 나타나자 선인은 용에게 보주를 달라고 말했다. 용이 청을 듣고는 금방 마음이 불쾌해져서 천천히 몸을 풀고 떠나갔다. 다음 날 용이 다시 나타나자 선인이 게송으로 말했다.

'반짝반짝 빛나는 마니보인 / 영락으로 그 몸을 꾸미셨구려. / 만약 용께서 나에게 보시하면 /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자 용도 게송으로 말했다.



삽화 · 강병호

'마니주를 잃을까 두려워 / 막대를 잡고 개를 부르는 것과 같네. / 보배 구슬은 얻지 못할 것이오. / 다시 그대를 보러 오지 않으리다. / 구하는 것이 많으면 친애(親愛)를 잃으리니 / 이 때문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천인이 허공에서 게송을 읊었다.

'싫어함과 박대하는 마음은 / 모두가 구함이 많아 생긴다네. / 범지의 탐내는 모습이 나타나자 / 용은 바로 못 속으로 잠겨 버리누나.'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과 코끼리는 하찮은 축생인데도 오히려 많이 구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물며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너희 비구들은 일을 많이 벌여서 널리 구하며 만족할 줄 모르면서 저들 신심 있는 바라문 거사들로 하여금 마지못해 재물을 희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마하승기율〉 제7권에 나오며, 또 〈미사색부화혜오분율〉 제3권에도 나오는데, 글의 내용은 같지 않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이대원성 보살의

## 바라밀 일기 ㉙



# 장병들 수계보며 '군포교' 다시 생각

### 논산 훈련소 군 법당을 다녀와서

논산 훈련소엘 가기로 했다. 내가 만든 공림 공양모임 회원들이 모여서 가기로 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어서 밤 내내 설레이기도 했다. 오후 2시에 있을 운문사 수계식에 맞춰 오전 9시에 출발을 했다. 언제나처럼 기도하며 점심도 준비해서 갔다. 나는 16년 전부터 군법당후원회 일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나에겐 이번 방문이 남다르다.

내가 군 법당을 후원하게 된 동기는 내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아들은 카이스트 박사 과정에 있었고, 한 달간의 훈련으로 군복무를 대신했다.

아들은 연세대 재학 시절에 불교 동아리 회장을 했었다. 그 동아리 방(법당) 부처님 탱화는 동국대 불교미술학과에 다니는 한 살 아래 여동생이 그렸고, 표구를 내가 해주었다. 그렇게 법당 불사를 했다. 그때 동아리엔 인호란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가 입대를 했는데, 부대장이 종교가 불교인 사람은 손을 들으라고 해서 손을 들었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법사를 시켰고, 얼떨결에 '법사'가 된 인호가 걱정하며 하소연 했던 생각이 났다. 한 달에 한번 하는 법회를 하기 위해 한 달 내내 불교에 관

### 장병 위문하러 갔다가
### 위문받고 공부하고 돌아와

한 책을 읽어도 10분을 해 줄 말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 때 서울에 갈 일이 있어 갔다가 그 당시 미얀마 등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시다 돌아오신 거해 스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호가 생각나서 스님께 부탁을 드려 인호가 있는 경기도 파주의 군법당 엘 같이 갔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또 부대의 전화가 자유롭지도 못할 때여서 그냥 무작정 부대 이름 하나 들고 찾아 갔다. 일요일인데도 마침 외출 하지 않고 부대에 있었던 인호를 법당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인호는 이 법당이 사병들의 쉼터라고 했다. 이유인 즉 교회나 성당은 초코파이라도 주니 그리로 몰려가고 여긴 벽에 기대어 쉬고 싶어 온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큰 근심을 하게 되었다. 법당을 찾는 이유가 고작 그런 것이라면 이는 정말 큰일인 것이다. 나는 사정 이야기를 하고 거해 스님께 법문을 부탁했다. 그런데 스님은 못한다고 했다. 나는 못내 섭섭하여 스님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그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먹을 것이라도 주면서 오라 해야 하는 일인데 빈손으로 사람을 부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속내를 보이셨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스님의 말씀이 옳았다. 부처님 말씀만 내세운다고 다는 아닌 일이다. 부처님 말씀의 귀함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 사람들을 우선 법회에 앉혀야 하는 것이 내가, 우리가 할 일인 것인데 그 일이 쉽지가 아닌 것임을 깨달았다. 생각 없이 의욕만 넘쳐 스님께 무리한 부탁을 드려 죄송했다.

나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선 차분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도반들과 함께 스님께 장병들에게 나눠 줄 음식들을 보내드렸고 스님은 매달 파주 법당에 법문을 하러 가실 수 있게 되었다. 차츰 소문이 퍼지면서 이웃 다른 부대에서도 스님의 법문을 듣기위해 모여들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인호는 제대를 했다. 그 후 거해 스님은 미국에 가셨고, 나는 지금까지 16년 동안 군법당 돕는 일을 해왔다. 이제 나와 도반들이 나이도 들고 해서 16년의 후원을 이번에 회향하기로 하고 각자의 인연따라 종단에서 하는 군 법당 후원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논산 법당에 도착했다. 일주문을 지나 너무도 웅장하고 잘 지어진 큰 법당 앞에 서니 눈물이 왈칵 솟아질 것만 같았다.

오후2시 장병들 수계식이 있어 법당으로 함께 들었을 땐 이미 가득 찬 우리 국군 장병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깨알같이 많은 장병들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놀란 토끼처럼 뛰기 시작했다. 큰 박수로 환영을 하고 싶었는데 도리어 우리가 장병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미안하고 쑥스러웠다. 운문사 명성 큰 스님이 단상으로 등단하시고 뒤따라 함께 오신 비구니 학인스님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랐다. 수계의식이 시작되었다. 마치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1200 비구가 모여 있는 듯했다. 이윽고 스님이 법문을 내리시고 장병들은 부처님께 지계를 맹세했다. 스스로 계를 받겠다고 모인 장병은 무려 3400명이었다. 3400명의 새로운 불자가 생긴 것이다.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지 그 큰 우렁찬 목소리도 잊을 수가 없다. 우리도 또한 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었다. 70평생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군인을 본 일이 없었다. 늠름한 우리의 아들들이다. 멋있고 믿음직했다. 이렇게 귀하고도 아까운 아들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음이니 어찌 남의 아들들이랴. 모두 나의 아들이었다. 우리 모두 맘 편하게 살고 있음도 이 든든한 아들들 덕분이니 우리도 작지만 그 보답을 해야겠기에 이곳 법당에서 더 많은 불자를 배출 할 수 있도록 한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모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원력을 세웠다. 각자의 가족 원불(願佛)을 모시기로 했다. 점점 더 많은 불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곳이 포교의 전당이 되길 바라면서 더 많은 관심으로 우리나라 불국정토로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서원했다.

오늘 너무도 뜻있는 행사였다. 위문을 갔던 우리는 위문을 받고 왔다. 모두가 행복했다. 그리고 평소에 신문지상이나 TV에서만 뵙던 자광 큰스님과 명성 큰스님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오늘은 스스로 100점의 하루였다고 나 자신을 칭찬하고 싶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아름다운동행




[ 나눔투어모집 ]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공식과 함께하는 나눔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7월 31일까지 )

[후원참여]

[ 벽돌 한장 ] 10,000원
[ 책상 · 의자 ] 50,000원
[ 땅 한평 ] 100,000원
[ 식수대 ] 300,000원
[ 컴퓨터 ] 1,000,000원
[ 교실 한동 ] 10,000,000원
[ 법당(10명) ] 50,000,000원

아름다운동행 대한불교조계종

학교건립 불사

극심한 가뭄과 기아, 질병
그리고 부족한 배움의 기회로 인해
아프리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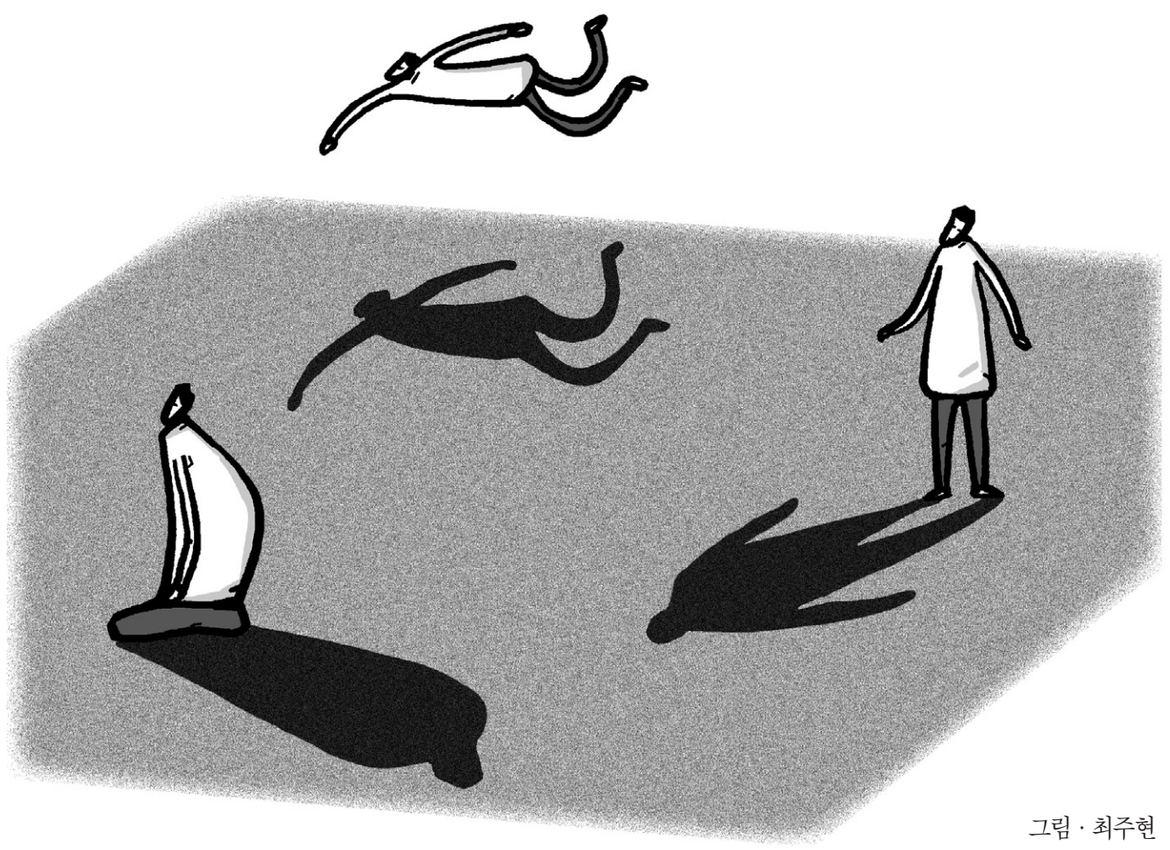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후원문의] www.thenanum.org T. 02-737-9595 F. 02-737-9195
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대행 스님



# 이 세상 천차만별 모든 생활은 내 마음속에 가설돼 있어


그림 · 최주현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차원의 그릇에 따라서 모두 끼리끼리 모이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멀어도 멀다 안 하시고 이렇게 왕림해서 한마음이 돼 주시는 것에 재차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참 요상한 놈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요상한 놈이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요상한 게 아니라 마음내는 게 요상하겠죠. 우리가 항상 몸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대로 육근(六根)이라고 하고 육경(六境)이라고 하고 육식(六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의식이 색에 들고, 색은 의식에 포함돼서 항상 밝게, 어떠한 생각이든지 하게 하고 어떠한 거든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의식이 빠진다면 아마 송장이 될 걸요? 그래서 오관이라고 하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을 아는 거, 몸뚱이의 부닥침을 아는 거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보통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붙었으니까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가지의 문제는 객관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상행식(受想行識), 이 자체가 바로 색의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둘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성 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대로, 눈은 눈대로 소임을 가지고 있고 귀는 귀대로 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 맡는 코는 코대로 자기의 소임을 가지고 있고, 맛을 아는 고놈도 바로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몸의 부닥침을 아는 놈은 아는 대로 소임을 가지고 있죠. 몸에 부닥치는 고놈은 바로 경계를 소임으로 맡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보이는 데 색으로만이 소임을 맡은 게 아닙니다. 즉 대기권을 지킨다 이겁니다. 레이더망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알게끔 통신하고, 모든 면에서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나쁜 건 나쁜 것대로 들어온다고 소식을 전하는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혹성에도 대기(大氣)가 있으니까요.

코의 소임은 냄새 맡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음식 만드는 데의 냄새도 맡아지죠. 구수한 냄새와 먹고 싶지 않은 냄새, 썩은 냄새 이런 것도 잘 맡아 들이는 소임을 가졌죠.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소임을 가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심 속에서 무의 세계를 맛보는 소임 말입니다. 일거일동, 천차만별의 모든 냄새를 만약에 제대로 맡지 못한다면 어떠한 상점을 냈다 하더라도 망합니다. 품목에 따라서 어떠한 자리에다 해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도 냄새를 맡는 게 필요합니다. 그 소임에 다 포함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눈의 소임은 어떤 것이냐? 색상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심안으로서 보이지 않는 데서 돌아가는 천차만별의 이치를 알고 모든 결단을 내리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심안의 그 의식의 작용이 있어야 바로 심안과 육안이 동일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색의 소임만 가진 게 아니라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한 것을, 양면을 다 안고 판단을 내리는 소임을 가졌단 얘기죠. 그리고 듣는 것도 마음의 귀로 들어서 동일하게 동시에 같이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개별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다섯 놈이 바로 합동하고 합심해서 하나로 돌아가면서 하나에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요상하다는 게 뭐냐 하면, 아주 나쁘게도 좋게도 생각할 수 있고, 나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육신이, 모든 의식들의 집합소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하나의 안을 세울 수 있어야 비로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서 좋은 것이지, 이것저것이 제각기 따로따로 생각을 낸다면, 도둑질도 하게 하고 나쁜 일도 하게 하고 좋은 일도 하게 하고, 이것저것 '나'라고 나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혼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놈이 그렇게 시키는가 하면 여러분의 몸속에, 항상 얘기해 드리듯이 몸속에 자생중생들이 있습니다. 그 자생중생들이란 어떤 것이냐? 천차만별의 업식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업이니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스스로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애고를 닥치게 하고 병고도 걸리게 하고, 영계성에 휘달리게 하기도 하고 세균성에 휘달리게 하기도 하고 또는 윤회성에 휘달리게 하기도 하는 이 모든 업보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여러분의 몸속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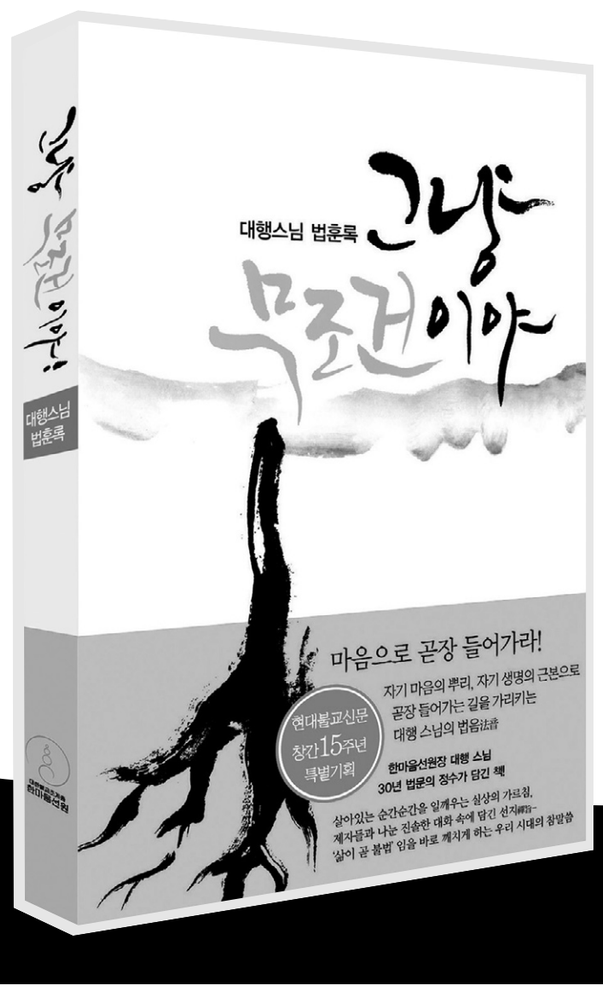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죠. 여러분이 죽으면 죽는 대로 그 업식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죽어서 짐승을 보고도 사람인 줄 알고 좋다고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업식에 따른 차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는 어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린단 말입니다. 자기 영혼의 근본이 자기를 형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써 정자 난자를 빌려서 바로 자기를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형성을 시켜서 자기의 집합소로 만드는 겁니다. 집합소는 여래의 집이라고 해도 됩니다. 집합소. 자생중생들의 집합소. 그러나 여래의 집은 자생중생들의 집합소만 되는 게 아니라,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모두 천차만별로 돼 있는 만물만생의 집합소죠. 그래서 여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래의 집이기도 하지마는 바로 관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의 심부름꾼도 되죠. 그러니까 그걸 그림자처럼 짊어지고, 무겁지 않은 걸 무겁게 짊어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라. 업식에서 나오는 대로 속지 마라. 업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를 네 마음이 한마음으로 너 아닌 게 없다고 믿어라. 네 오장 육부, 네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이 모두 너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너 아님이 없다 하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그 여러 가지 고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50%의 물질세계에서는 컴퓨터를 놓고 입력을 해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숙명통이라는 이름의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동적인 컴퓨터.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

☞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 부처님도 자기 마음과 둘 아니게 놔버려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행하는 거와 말하는 거와 천차만별의 모든 행이 전부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근본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차만별의 생활은 바로 내 마음속에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쓰고 행하고 말하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돌아가는,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이 우주간 법계에 또 입력이 됩니다. 모두가 돌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남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남이 못 보게 행을 한다 하더라도, 나쁜 행을 했든지 좋은 행을 했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어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가설이 돼서 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고 통신이 되고 또는 삼천대천세계에 바로 직결이 돼서 통신이 되니 법계에 통신이 되고, 그러니 어찌 천당 지옥이 딴 데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생각을 잘해서 다스리고 나간다면 천당을 가져올 것이고, 잘못 다스리면 지옥을 가져올 거는 뻔한 이치입니다. 모두들 속이는 것은 자기만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조놈!' 하고 밉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쪽에서도 '요놈!' 하고 밉게 생각을 하고, 쌍방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스스로 내 탓으로 돌리고 '이 세상에 내가 났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나지 않았다면 상대가 없으리라. 좋은 일이든지 나쁜 거든지 모든 게 내 탓이로다.' 하고 내 탓으로 돌려놓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둘로 보지 않고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가야 할 텐데, 남을 원망하고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딴 사람들한테 바로 그렇게 미움을 받고 증오를 받게 되고, 우주간 법계 일체제불의 마음도 그렇게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슬기로운지 모릅니다. 한생각 잘 내고 못 내는 데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느냐, 또는 창살 없는 감옥에, 웅덩이에 빠져서 세세생생 허덕거리고 빠져나오질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니 과거에 지은 죄는 오늘에 받고 오늘에 하는 것은 미래에 받는다고 했지만 어저께도 과거요, 조금 아까도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저께 따귀를 때렸더니 오늘 따귀를 때리러 되오더라.' 이런 걸로 표현을 해도 여러분이 다 알아들으시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 까닭에 일체 만법 천차만별로 돼 있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대처하는 법, 즉 양식을 먹는 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먹는 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 부처님도 자기하고 둘이 아니게, 자기 마음과 둘이 아니게 놔야 됩니다. 삼천 년 전에 계신 부처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신다 할지라도 그 고깃덩어릴 믿지 말고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하나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모두가, 풀포기 하나라도 나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없고, 내 살림살이 아닌 게 없고, 남녀를 막론해 놓고 모두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렇게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 먹어라.' 하는 말은, 이게 말이자 방편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모든 걸 닥치는 대로 집어 먹어라. 모든 거를 닥치는 대로 집어 먹되 걸리지 않게 집어 먹어라. 체하면 막힌다. 막히면 죽는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재식법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 법재식은 부처님이 가르쳐 준 뜻을 내면에 새겨 놓고 내 몸속의 자생중생들을 한 마음으로 내 주인공에 감사히 놓는다, 맡겨 놓는다.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맡겨 놓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선열법이니 물질세계와 내면세계가 둘이 아닌 마음으로 근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니, 그것을 내면 주인공에 감사히 놓는다. 셋째, 염식이니 일체제불의 마음이 한마음이 돼서 찰나에 내 마음을 통해서 나투니, 이 또한 내면 주인공에 감사히 놓는다. 넷째, 원식이니 행선 입선 와선 좌선, 이 모두를 한데 합쳐서 참선으로 돌려서 둘 아닌 행을 하고 체험하고 다스리고 나가는 것이니 또 내 주인공에 감사하게 놓는다. 그리고 다섯째, 불식이니 일체 만물만생을 보살피며 내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 걸림 없이 여여하게 구족하니, 이것을 재식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법이자 여러분의 법이며, 그 생활 자체가 여러분의 생활이면서 참선이면서 바로 불법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항상 이 말씀을 해 드리는데도 여전히 캄캄하다면 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걸 닥치는 대로 집어먹어라.**
**집어먹되 걸리지 않게 집어먹어라.**
**체하면 막힌다.**
**막히면 죽는다.**

그래서 다섯 가지 향(香)이 있는데, 첫번만 얘기하죠. '계향' 할 때 마음의 계향이지 그것이 달리, 이름의 계향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나한테 닥치는 것이지,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부딪침도 없고 닥칠 일도 없죠.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모두 '내 탓이라!' 하고 돌려놓는 것이 바로 미움을 안 가질 수 있고 증오를 안 할 수가 있고 화목을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이나 자식지간에도 말로써 몸을 잡으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마음을 잡으려 하신다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다 해서 "요놈의 새끼, 왜 그런 짓만 하고 이러냐?" 하고 자꾸 그러면 자꾸 빗나가서 나중에는 큰 도둑이 되고 큰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환난이 생깁니다. 그러나 "얘, 춥지 않으냐. 덥지 않으냐. 배고프지 않으냐. 어떻게 잤니?" 아, 이렇게 지혜로써 따뜻한 말을 해 주고 따뜻한 행을 해 주면 금방 바뀌집니다.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면 바로 자식과 부모라 하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다. 그럭하고 아주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렇게 대해 주면 금방 행이, 말이 모두가 바뀌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해서, 나쁘게 돌아가는 것을 좋게, 슬기롭고 고뇌가 없고 병고가 없이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했지마는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기 한 가지만 없어도 살지 못하며 물 한 가지만 없어도 살지 못하며, 불이 없어도 살지 못하며 흙이 없어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 의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 네 가지가 바탕이 돼서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아주 충만히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들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듣지 못했던 분은 그대로 잘 생각해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관습에 의해서, 살아나오던 관습에 의해서, 그 관습의 착이 떨어지지 못해서, 습이 떨어지지 못해서, 욕심이 떨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얽매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은 그 까닭입니다. 그 네 가지의 요소가 바로 에너지의 참원소로 돼 있다는 사실을, 불신해서라기보다는 모두 몰라서 그렇죠. 있는지도 모르고 쓰는지도 모르고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서 자유롭게 쓰시라는 겁니다. 닦는다는 이치는 바로 다스려라 이겁니다. 놔라 놔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업식을 놓으라는 겁니다. 놓으면서도, 거기다 맡겨 놓고 그대로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고정됨이 있습니까?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냄새 맡는 거나 말을 하는 거나, 몸이 움죽거리는 거나 가고 오는 거, 이 모두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공한 세계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를 잘 다스려서 놓고, 또 어떤 애고가 있더라도 '애고도 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애고가 없어지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놔 버려야 합니다.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는 데서 체가 있는 걸로 나오는 거니까 바로 거기다가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한대라고 했습니다. 유한한 것은 육신이지마는 무한한 것은 무심(無心)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기복으로 전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물질세계에서는 물질세계대로, 무의 세계는 무의 세계대로 바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전달을 하고 돌아가니 세세생생 끊임없이 영원하더라 하는 이치를 아셔야 할 겁니다.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본원에 나가고 있는 신도입니다. 항상 큰스님의 원력에 감복을 받고 아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한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리신앙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간혹 외국에서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셔다가 새로 봉안하게 되었다는 절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사리가 그렇게 많을 리도 없겠지마는 더욱이 진신사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스님:**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아픈 제자가 부처님을 청해서 그 집에 가셨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려니까 "일어나지 마라. 네 마음이 내 마음을 안다면 이 고깃덩어릴 보고 고깃덩어리가 일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음과 마음이 통했으면 그걸로써 족하니라." 이러셨거든요. 그랬으니 꼭 그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부처님도 모두 부처님의 마음을 뜻하는데 그 물질을 보고 전전해서 되겠습니까? '물질을 보되 부처님의 마음을 보라. 부처님의 마음을 봤으면 마음을 지녀라. 마음을 지녔으면 자비로써 여러 사람들과 둘 아니게 마음을 베풀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니 어찌 물질을 보고 찾겠습니까? 그리고 전전하고 끄달리겠습니까? 천리만리에 사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리의 근본을 내가 지니면 그것은 껍데기가 되죠.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지혜로운 생각으로써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2(남):** 큰스님 만나 뵙고 싶어 왔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원에 다니고 싶어 왔습니다.

**큰스님:** 그래요. '결혼하고 싶으면 한다!' 이게 그냥 법이에요. 나는 그래요. 어저께요, "오늘 내일 비가 온다는데 어떡하나?" 이래요. 여기 올 사람들이 비 맞을까 봐 걱정을 태산같이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체가 없고 마음먹기에 달렸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못한다는 이런 아주 얄팍한 관습에 의해서 끄달리지 말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 (주먹을 쥐어 보이시며) 하는 것이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들어야 하겠다!' 하면 아마 들 겁니다. 하하하…. 그리고 '법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구합니다. 꼭!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7월 1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1평 미니법당
(대웅전과 지장전)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장엄불사 했습니다.
모든 불자님께 알려서 친견 하시길 바랍니다.
- 나무석가모니불 -



卍 대한불교 조계종 새로운 하얀마음선원(백심사)
전화 031)707-010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 제헌절, 대한민국 탄생을 회고한다



송재운
실버타임즈 편집인

오는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제정 제65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우리나라는 4천여년 동안 군주국이었고, 그 다음 1935년은 제국주의 일본에 지배 당하였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면서 1948년 7월17일 건국 헌법이 제정되고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 기까지는 미 군정하에 있었다. 그런데 이때 제정된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이라는 새 독립국가로 거듭 태어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 헌법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 정의의 이념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지금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건국 헌법으로서의 우리 헌법은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내용면에서 목적의 정당성 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세력들은 이 헌법을 제정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이 있는 주요 건국 인물에게 마치 분단의 책임이 있는 것 처럼 책임을 전가 한다. 분단의 책임은 UN의 남북한 총선을 거부한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지 남한의 우익세력에 있지 않다.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3상(미. 영. 소)회의에서는 한반도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독립국가로 발전시킬 것에 합의, 미. 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협의에 아래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한국을 길게는 5년동안 미. 영. 소. 중 4개국이 신탁통치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에 따라 미소공동위는 1946년 1월 15일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입법과 신탁통치안 등을 내놓았으나 국내에서의 반탁운동에 봉착했고, 3월 20일 1차 회의, 1947년 5월 21일 열린 2차회의 역시 미. 소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결론 없이 결렬 되었다. 이로써 남북간의 대화는 끊어지고 사실상의 분단이 확정된 셈이다. 그러자 미국은 한국문제를 UN에 상정시켰고, UN은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한 다음 UN임시한국위원회(UNTCOK)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토록 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김일성은 UN한국위원회의 입북을 거절하고 총선을 거부하였다. UN은 결국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의 안을 받아드려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치르게 된다. 원래 의원 정족수는 298명이었으나, 인구비례에 따라 북한지역에 배당된 100석을 제외하고 198명만이 5,10선거에서 선출되어, 이들 198명의 의원으로 역사적인 제헌 국회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소련은 이미 1946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켜 북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기반을 만들어 두었다. 그러니 소련의 남북한 총선반대는 당연하다. 소련의 이런 계략을 간파한 이승만은 1946년 3월 1차 미소공동위가 무산되자, 6월부터 남한 단독정부 수립론을 강력히 전개하고, 1946년 12월부터 47년 4월까지 워싱턴을 방문하여 조야에 이와 같은 단독정부 주장을 펴며 로비활동을 하였다.

5.10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헌법을 유진오의 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의 안을 참고해 심의, 1948년 7월 12일 통과시키고 조선왕조 건국일인 17일에 공포 발효시켰다. 헌법은 국회를 단원제로 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며, 국무위원 제도를 두어 내각제 요소도 가미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제정의 역정을 살펴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UN 총회의 결의에 의해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탄생한 국가로서,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건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 세계10대 교역국에 들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은 김일성 3대 우상화에 빠져 인권 없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였다.

발언대

# '아시아나 사고기 영웅들' 그들은 보살이었다

7월 7일 발생한 아시아나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런 와중에도 인명 피해를 최대한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은 12명의 객실 승무원들 때문이었다.

특히 외신들은 이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비상 상황을 가정한 반복된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서도 매뉴얼대로 활약했다. 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비상구 주변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며 비상 상황 발생시 착륙 상태를 점검한 뒤 탈출구 위치를 확인하고 승객들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모두 대피한 뒤에도 최종적으로 탈출하지 못한 승객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비로소 기내 밖으로 몸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현지 소방 당국도 "승무원들이 대형 참사를 막은 영웅"이라고 칭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베푸는 '헌신' 이야말로 세계공통언어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자비 정신이 아닐까. 신중일 기자

아시아나 항공 사고 당시 이윤혜, 최선임 승무원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위기 매뉴얼에 따라 구조활동한 것에 대해 외신등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복구하여 웅비하는 아시아나로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jwp615

안타까운 항공사고 현장에서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과 일부 승객들의 침착한 구조활동에 대해 세간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인들을 도운 이들은 '영웅' 이었습니다. @jhcho100

아시아나항공기의 사고원인 규명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사고현장에서 보여진 항공 승무원들과 일부 승객들의 침착한 구조활동에 대해 세간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자신의 안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들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johyunyong0411

항공기 불시착으로 죽음의 순간에도 승객을 끝까지 구조한 아시아나 승무원들 정말 진정한 영웅입니다. @RYUYAN12

아시아나 추락사고, 승객 구조 위해 헌신한 승무원들. 나라의 체면을 살린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ivermo1

"승객들을 신속하게 탈출시켜야한다는 생각에 생명의 위험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아시아나 사고시 함께 탑승했다가 승객들을 구조한 여승무원들이 인터뷰내용이다.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살신성인의 정신을 실천한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hong5603

"아시아나항공 사고 승객 구조위해 헌신한 12인의 승무원들- 이윤혜, 유태식, 이정미, 이진희, 현숙영, 김지연, 홍정아, 한우리, 김윤주, 전수민, 마니낫, 시리팁" 대한민국은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nzym5971

현장근무자들의 맹활약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아시아나 사고여객기 여승무원의 활약에 박수를 보낸다. 현장근무는 돌파력과 민첩함과 적절한 상황판단력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현장근무자 파이팅! @hwp0421

정말 멋지다. 생사가 갈리는데서 남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아시아나 승무원들에게 박수를.
@Ageha_k

지쳐 쓰러져있는 대한민국을 들쳐 업고 구해줄 사람 누구 없나요. 정말 가슴 찡합니다. 아시아나 승무원 모두 영웅입니다. @lcarus9ok

아시아나 승무원들 동체 불붙기직전까지 승객구조, 의무라고 하지만 정말 용감했네요. @thesignify

아시아나 스튜어디스가 생사의 기로에서 승객들을 구해냈다. 참사를 막은 그들의 눈물겨운 구조활동은 진정 소영웅의 모습이었다. 투철한 훈련과 직업에 대한 사명 사람에 대한 인본정신이 맞물린 결과다. 감동을 받았다. 항상 온화한 미소로 함께 해 주시길. @yhs851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 벤 레비라는 남성은 갈비뼈가 부러진 와중에도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비상구를 열고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빠져나가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kimik5

또한 아시아나 승무원 최선임씨와 승객 '벤 레비' 씨와 같이 본인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공포와 싸워가며 타인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용감한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nyanglee

오늘의 인물!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현장에서 갈비뼈 부상 중에 50여명을 구한 벤자민 레비씨가 주목받고 있네요. 살신성인이란 표현이 이분한테 어울리는 것 같네요. 주변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ydp119

社說

#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바라보는 '눈'

10월 10일 치러지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이제 3개월 남았다. 종단 안팎에서는 7월 8일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의 도박설을 주장한 前 오어사 장주스님의 일로 자칫 어렵게 조성한 화합선거 문화가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실제로 이번 장주 스님의 일이 있기 전에는 건전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견이 종앙종회와 대불청 등 곳곳에서 제기됐다. 출재가 모두 과거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반복해온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으로 과열혼탁된 양상을 벗어나 올바른 선거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조계종의 종무 행정을 이끌어갈 대표를 선출하는 총무원장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과거의 선거 과정을 보면 금품이 오가거나, 근거 없는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승가의 갈등을 조장하고 종단 위상을 실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도 지난 총무원장 선거때부터 이런 폐단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비결은 단일화였다. 지난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창립총회를 열고 발족한 불교광장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불교광장은 화엄광장 및 前 무량회 종회의원, 무소속 중앙종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종책모임이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단일화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종권 연장을 위한 편법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유야 어떻든 이번 총무원장 선거만큼은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답습해서는 결코 안된다. 무분별한 비방과 폭력, 금권, 매관매직 등을 배격하는 올바른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한 종단 화합과 안정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종단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천의 사표로서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도박사건 등으로 위상이 추락된 한국불교를 다시 끌어올릴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불교적인 선거를 기대한다.

# 부끄럽지 않은 대불련 동문회 기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의 기념사업이 파행으로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7월 5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현행 대불련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또한 8월 17~18일까지 예정된 50주년 기념사업에 불참하는 대신 9월 7~8일 서울에서 제11회 전국동문대회를 열 것도 결의했다. 사실상 사업이 두 쪽으로 나뉜 것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이 총동문회가 자신의 뿌리인 대불련 50주년 사업에 불참을 선언한 것은 동문간 내부 갈등의 요인이 크다. 현재 대불련 동문은 총동문회와 전국동문회로 분열돼 갈등 중이다. 올해 2월 총동문회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 간 자격시비가 불거졌고, 결국 일부 동문들은 4월 27일 전국동문회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었다. 전국동문회가 출범하면서 동문 간의 갈등은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을 놓고 이어진 것이다.

양측 동문이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동안 애꿎은 대불련 현역 집행부와 실무진만 마음고생 중이다. 실제 박지연 대불련 중앙회장과 2000년대 중앙회장 동문들은 선배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지만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불교 지성의 상징인 대불련이 왜 이렇게 사분오열이 됐는지 알 수 없다. 5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단체가 사람들 사이의 반목이 없다는 것은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후배들 보는 앞에서 '이전투구'는 세속적 표현으로 '모양 빠지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선배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뿐인 대학시절 포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후배 재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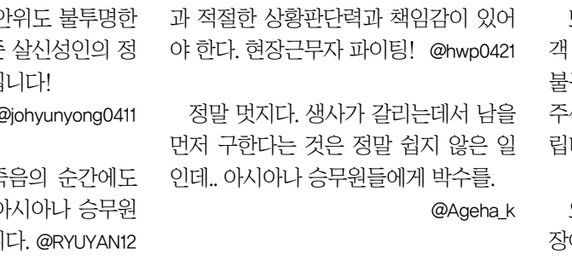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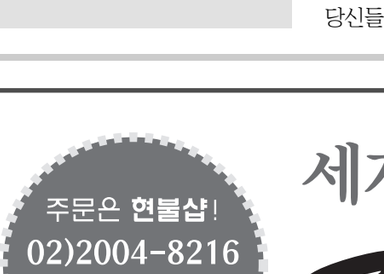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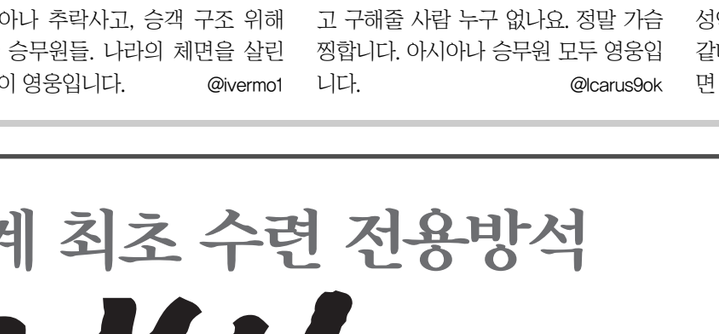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동국대학교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 제11회 청원스님 개인전

### 부산시무형문화재 조각장20호



■장 소 _ gallery la mer(서울 인사동)

■일 시 _ 2013. **7.24(수) ~ 7.30(화)**

■시 간 _ 오후 3시

| 후원 | 동국대학교, 현대불교신문, 불교신문

라메르 갤러리 02)730-5454 강서예출촌 051)972-3912